

2022년

제30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수상작품집

www.koreapost.go.kr



우정공무원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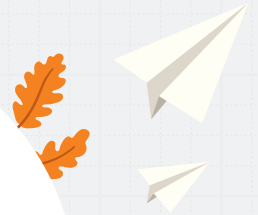
2022년

제30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수상작품집



CONTENTS

대상



초등 저학년	
전지호	12
초등 고학년	
박연우	14
중·고등부	
한정윤	17

최우수상



초등 저학년	
최보윤	20
정수민	22
양진영	24
김기현	26
김유주	27
초등 고학년	
박서은	28
박경후	30
류영준	32
전서우	33
채호림	34
중·고등부	
박수민	37
왕나경	38
이예지	40
김나현	42
홍지연	44

우수상



초등 저학년

심윤서	48
곽서아	50
강민재	52
하다영	53
김시연	54
김주아	56
김우현	58
손수빈	60
이주원	62
가민서	63

초등 고학년

김정민	64
이민지	65
정아윤	66
김문영	68
김소희	70
김선유	72
이하영	74
조안유	76
채준우	78
장서원	80

중·고등부

정인아	81
홍지명	82
이지혜	84
박지우	87
박시안	88
사원준	90
황인호	92
현재연	94
오수현	96
민경준	98



장려상



초등 저학년

최서형	102
이준우	104
임봄	106
최서원	107
안윤서	108
구본아	110
김연아	112
강채린	114
기현우	115
이소예	116
김명준	118
김은우	121
윤준혁	124
윤지아	126
백이한	128
심이진	130
전시윤	132
조은우	134
이현석	136
배서진	138

초등 고학년

김주하	139
윤원형	140
김서하	142
김유준	144
박윤영	146
류원엽	148
이수민	150
윤신혜	152
방예림	155
노형준	156

정수민	158
박태희	161
고준	162
이소민	164
정은호	166
이연희	168
하서윤	170
전소윤	172
조아윤	175
양하은	178

중·고등부



이준서	180
김서연	182
강은서	184
최위진	186
박지훈	187
윤하빈	188
윤여준	190
윤여원	192
백민승	194
서규빈	197
지다현	198
김지윤	200
강수린	202
권도윤	204
정현우	206
최성온	208
이교진	211
금지연	212
연진현	215
최고은	216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발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가 올해로 3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작품 주제는 <우정사업>, <미래우체국>, <우리동네 우체국>, <우체국에 대한 추억>으로 시, 수필 등 생활문의 형태로 응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SNS에 짧은 글을 올리는 것이 익숙한 요즘 학생들에게 긴 글을 창작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 800여 명의 학생이 주제에 맞는 다양한 소재들로 작품을 제출하여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응모한 작품들은 진정성, 창의력, 상상력이 어우러져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체국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고 어린 학생들이 집배원을 비롯한 우체국 직원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눈길과 감사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음 대회에는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하여 대회를 빛내주시길 바라며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도 본 글짓기 대회를 계속 주최하고 발전시키면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비록 수상하지 못했지만 소중한 시간을 우체국 문화전 글짓기 대회를 위해 애쓴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과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우정공무원교육원장 김희경



착한 생각, 따뜻한 마음

최근 곳곳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날이 갈수록 점차 글을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수학이나 과학 등 어려운 시험 문제의 정답을 척척 잘 알아맞히는 학생도 문장을 이해하는 힘이 모자라 찢쩍대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정공무원교육원 주최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과 함께하는 우체국 문화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특히 이 문화전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체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글쓰기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올해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엄정한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수준이 높았다. 글의 내용도 착한 생각,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들 작품을 한 편 한 편 정성 들여 읽으면서 독창성, 주제성, 작품성,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독창성이 뛰어나도 주제성이 모호하면 뒤로 밀어냈고, 작품성이 출중해도 완성도가 미흡하면 낮은 점수를 매겼다. 모름지기 좋은 작품이란 독창적이면서도 주제를 잘 살리고 완성도를 높여 독자의 공감을 자아내야 한다.

초등부(저학년) 대상 수상작인 「우체국에 간 아기제비」는 해맑은 동심으로 우체국의 많은 업무를 파악한 작품이다. 많은 내용을 짧은 글에 담아내는 솜씨가 놀라웠다. 초등부(고학년) 대상 수상작인 「할아버지와 인터뷰」는 33년간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한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내용이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소재 자체가 뛰어났다. 중·고등부 대상 수상작인 「오래된 우체국」은 출생 소식에서부터 마지막 편지인 부고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일생과 우체국의 연륜을 접목한 작품이다. 주제가 건강하고 그 기법 또한 가장 탁월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입상 등위를 결정했다. 좋은 작품을 뽑을 수 있어서 기뻐다. 입상한 학생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아울러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응모한 모든 학생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2022년 11월
심사위원장 이광복 소설가·(사)한국문인협회 이사

초등 저학년 전지호

초등 고학년 박연우

중·고 등 부 한정운



우체국에 간 아기제비

전지호



아기제비는 오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동네를 구경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께서 “너 오늘 할머니 생신하신 거 잊었니? 지금 편지 보내는 곳에 마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말씀에 아기제비는 빨리 편지를 썼어요.

아기제비가 편지를 다 쓰자, 엄마께서 편지를 보내는 곳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기제비는 어디에서 편지를 보내는지 몰랐어요. 엄마께 여쭙보면 간단했을 테지만 엄마는 동생을 돌보느라 바쁘신 것 같아서 혼자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고 제일 먼저 아기제비는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경찰아저씨가 여기는 편지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후 아기제비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는 편지를 보내는 곳이 아니래요. 아기제비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아기제비는 편지 모양의 그림이 있는 우체국으로 갔어요. 드디어 우체국장님이 여기가 바로 편지를 보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체국장님은 오늘 편지 보내는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아기제비는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편지를 보냈어요. 우체국장님은 아기제비에게 우체국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우체국은 편지와 택배를 보내는 것 말고도 다양한 일을 한단다. 은행도 되고, 알뜰폰 서비스, 휴대폰 습득 신고, 용돈과 경조금 배달, 민원 배달도 된단다. 또 은행은 주로 도시에만 있지만 우체국은 도시와 농촌, 섬에도 있어서 전국에 3,500여 개가 있단다.”

“우와, 엄청 많네요!” 아기제비는 전국에 많은 우체국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우체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재미있었어요. 우체국장님은 아기제비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보니 흐뭇해서 우체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 집배원께서 빨간 우체통에 있는 편지를 모아 우체국으로 가지고 오셨단다. 우체국 집배원께서 24년 동안 걸으시는 거리를 합하면 지구 여덟 바퀴를 돌고도 더 걸은 것이지. 하루에 100m 운동장을 400바퀴씩 돈다고 생각해봐. 힘드셨겠지?” 우체국장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기제비는 “네,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 동안 걸으신 양이 엄청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쁜 빨간 우체통이 예전만큼 많이 없으니 아쉬워요.”

아기제비의 말에 우체국장님도 맞장구 치셨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아기제비 동생이 날아왔어요. 아기제비의 동생은 “형, 이미 할머니의 생신 잔치가 시작했어, 빨리 와.” 라고 급하게 말했어요.

아기제비가 시계를 보니 벌써 7시예요! 동생과 빠르게 날아가면서 아기제비가 물었어요.

“너는 우체국에 어떻게 왔어?” 동생은 “나도 편지 모양을 보고 왔어.” 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온가족이 모두 모여 계셨어요. 다행히도 엄마께서 할머니의 생일잔치는 지금부터 라고 알려주셨어요.

아기제비는 가족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인터뷰

박연우



할아버지께서는 우체국 집배원 일을 33년을 하셨다.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아프서도, 가기 싫어서도 결석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다. 할아버지 집에 갈 때면 할아버지 우표 보는 재미, 할아버지께서 상 받으신 거 보는 재미가 있었다. 누런 종이에 적힌 표창장이 참 많았다. 할아버지의 33년 집배원일이 너무 궁금할 때가 많았다. 방학 숙제에 인물탐구가 있어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탐구해 보기로 했다. TV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을 기자가 인터뷰를 한다.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되기로 했다.

의령 할아버지 댁에 가는 날 나는 종이와 연필을 챙겨서 할아버지께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하고 적어 보았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33년 집배원 일을 하셨는데 한 번씩 회사를 빠지고 잠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와 안 빠지고 싶겠노.. 연우가 학교 땡땡이치고 싶듯이 할비도 우체국 땡땡이치고 실컷 잠도 자고 싶었지.

하지만 할비만 기다리는 시골 사람들인데.. 내 편하자고 땡땡이치면 서울에서 저 미국에서 아들들, 손자 손녀한테 편지 오는 거는 누가 전해주노? 할비는 33년을 함안에 할 아버지 할머니들 덕분에 잘 버틸 수가 있었데이..”

“할아버지께서 집배원 일을 하시면서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 보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얼굴이며 손과 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시간을 달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도 전해주고 소포도 전해주고 그러다 보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정이 들더라고.. 이 할비 얼굴이 빨간 걸 보고는 가마솥에 고구마 삶은 거를 내 손에 꼭 쥐여주는 할배가 있었거든.. 늘 고맙다고 내가 갈 때까지 인사하고 갈 때마다 고사리며 감자며 주시면서 고마습니데이 하며 누군가가 이 할비를 진짜 필요할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집배원 하길 참 잘했구나.. 라고 자부심을 느꼈지..”

3가지 질문 중 마지막 하나를 질문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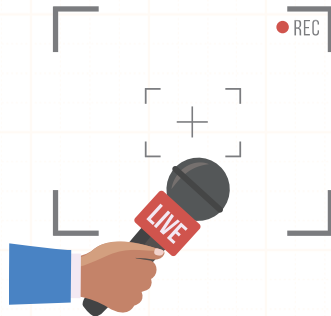
“할아버지한테 있어서 우체국이란? 집배원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참을 생각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긴장하신 것처럼 보였다.

“이 할비가 우체국 공무원 공채 1기라 그 의미는 더 남다르지.. 이 할비는 집배원 일을 하면서 33년을 우체국 집 이거밖에 몰랐데이.. 할비는 33년을 집배원일이 좋았고 자랑스러웠기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이 할비를 기다리는 시골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소식을 배달하고 싶었는데.. 우체국은 이 할비한테 인생의 전부였지.. 할비는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또 우체국에 간다고 할 거다. 그만큼 이 할비한테는 33년의 우체국 집배원 일이 즐겁고 따뜻한 일이었데이. 집배원은 사랑을 배달하는 좋은 사람이지.”

할아버지와의 인터뷰를 끝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실 때 눈에 살짝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다. 할아버지 인터뷰를 하면서 33년이라는 집배원 생활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할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33년을 우체국에 한결같이 일하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대단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아서 속으로 우리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를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른다.

누가 나에게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바로 우리 할아버지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 일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배원 일을 늘 뿌듯하게 생각하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야말로 그 어떤 유명 연예인보다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들보다 나에게서 최고의 위인이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나의 일을 사랑하고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돌아가도 이일을 하고 싶다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위인 중에 최고로 멋진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입니다.
할아버지의 33년의 멋진 인생을 존경합니다”



오래된 우체국



한정윤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던 날

세상이 많이 발전해
인터넷도, 전화기도
번쩍번쩍 빛나지만

탄생 소식을 알리던 편지가
손에서 팔랑팔랑 춤을 추며
우체통으로 들어갔다.

우체국 터를 오랫동안 지켜온
오래된 우체국은
우체국을 지나간

두근거리는 학교 입학 통지서도
첫사랑에게 전해질 첫 번째 러브레터도
짜릿한 회사 합격 안내문도
설레는 결혼식 청첩장도
인생의 마지막 편지인 부고장까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기억하며
또 새로운 꿈을 꾸다.

아이의 인생은
우체국이었다.

초등 저학년 최보운
정수민
양진영
김기현
김유주

초등 고학년 박서은
박경후
류영준
전서우
채호림

중·고등부 박수민
왕나경
이예지
김나현
홍지연



할머니의 마음

최보운



할머니는 대구에 살고 있다. 할머니는 나에게 선물을 자주 보내주신다. 엄마는 나에게 “할머니가 우체국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셨네” 라고 말해주었다. 우체국 택배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멀리 계신 할머니 물건들이 한번만 자고 학교에 돌아오면 우리집에 있다. 우체국 택배는 마술사 같다. 그래서 난 궁금한 게 많다. ‘택배 아저씨한테 날개가 있나?’, ‘비행기 타고 가시나?’, ‘힘들지 않으신가?’

난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너무 좋다. 할머니가 주신 선물과 할머니 물건들이 나한테 빨리 와서 생일 선물을 받는 느낌이다. 할머니는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사과즙, 인형, 양말, 학용품은 꼭 새 걸로 보내주신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보운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선물 감사합니다. 할머니 코로나 없을 때 우리 집에 꼭 놀러 오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예쁘게 꽃도 그리고 할머니 웃는 표정도 그렸다.

편지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야 한다고 엄마가 말했다. 이번에 처음 갔는데 편지봉투에 작은 네모 ‘우표’라는 걸 붙여야 한다고 했다. 내 용돈으로 우표도 사봤다.

우표가 귀여웠다. 편지봉투에 붙여 우체국에 일하시는 사람한테 줬다. ‘편지가 어떻게 멀리 있는 할머니 집에 가지?’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편지야 잘가.

기쁜 마음으로 엄마랑 집에 왔다. 우체통에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계셨다. 엄마가 말했다. “보운이가 쓴 편지는 우체국 트럭차에 넣고 편지가 대구에 도착하면 그때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전달받아 할머니집에 배달해주는 거야.” 내가 생각한 것들보다 더 힘들게 편지가 가는 거 같다. 앞에 계신 집배원 아저씨를 보니 너무 고마웠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처음이었다. “엄마,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쓴 편지 할머니한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인사했어.” 집배원 아저씨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아쉬웠다.

우체국택배,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 다들 감사합니다.
내 마음, 할머니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전해주는 우체국

정수민



엄마랑 저랑은 미장원을 2년에 한 번 가요.

엄마랑 저랑은 머리카락을 계속 길러요.

왜냐구요?

저는 어릴 적 4살때 부터 아파서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해서 대학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다른 친구들을 보면 나와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없이 온몸에 링거를 꼽은 모습...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놀라는 저를 보시곤 엄마께서 친구들이 아픈 이유를 설명해주셨어요. 그 후부터 난랑 다른 친구가 아닌 아픈 친구일 뿐이구나... 난랑 똑같이 웃고 미소짓는 친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때 엄마가 '소아암 친구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길러 기부해 볼까?' 하고 제안해 주셨어요.

전 그때부터 2년 넘게 머리카락을 길러 미장원에서 가서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단발로 싹 짧았어요. 그순간엔 사실 어색하기도 하고 긴머리가 사라지니 이상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긴머리카락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깝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걸로 친구들을 도와 줄 수 있단 생각에 마음 한켠엔 뿌듯했어요.

그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에 우체국에 갔어요. 먼저 번호표를 뽑고 고이고이 주소를 적고 품명에 '머리카락' 이라고 적어서 번호를 기다렸어요

“땡땡”소리와 함께 제 번호를 불러주시는 밝은 우체국 언니의 미소에 창구앞으로 가서 택배를 접수했어요.

우체국 언니가 “어머! 이거 머리카락이에요?? 착하구나! 너무 좋은일을 했구나!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언니도 못하는걸 너는 해내는구나.” 라는 말에 2년 동안 열심히 기른 머리카락이 절대 절대 아깝지 않았어요.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것도 아닌데 우체국 언니가 너무나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며 칭찬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체국 언니가 저의 2년의 시간과 함께 소아암 친구들에게 보내 주시는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따스하고 감사했어요.

“접수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는 우체국 언니의 말씀에 어깨가 으쓱으쓱 하였습니다.

우체국은 단지 편지만 보내주고 택배만 보내주는 곳이 아니라 저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도 함께 전달해 주시는 곳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저는 또 머리카락을 기를꺼예요. 아!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저의 머리카락과 친구들을 생각했던 몇년의 시간과 마음을 우체국 언니를 통해 전해줄거예요.

우체국 언니 감사합니다.

저 또 머리 길러서 우체국갈게요!!!

감사합니다.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과 시간을 전해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우체국 택배

양진영



제가 만약 우체국장이 된다면 천국으로 가는 우체국 택배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천국에 계시서 선물을 전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들께 여쭙봤어요. 만약 천국으로 가는 택배가 있다면 할아버지께 무엇을 보내 드리고 싶으신지요. 할머니께서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터, 아빠께서는 심심할 때 읽을 수 있는 책, 엄마께서는 맛있는 과일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할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부모님께서서는 착한 아이들에게는 산타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산타할아버지께 선물을 받고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착한 어른들께도 선물을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천국으로 가는 택배를 만들고 싶어요. 산타할아버지께서 착한 아이들이 있다면 어디든 가시는 것처럼, 우체국 택배 아저씨도 어디든지 달려가시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가 천국으로 가는 우체국 택배를 만들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언제든지 제가 보내 드리고 싶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예요.

산타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에만 찾아오시지만, 우체국 택배 아저씨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떠오를 때마다 저의 마음을 담아 언제든지 선물과 편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봄에는 제가 키운 딸기랑 아빠께서 직접 키우신 체리,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 가을에는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홍시, 겨울이 되면 새콤달콤한 귤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10월이면 할아버지 생신이신데, 그때는 우리 가족 사진을 보내 드릴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택배가 있다면 저도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나 편지를 받아 볼 수 있겠죠? 할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천국으로 가는 택배가 만들어 지면 할아버지와 계속 소식을 주고받을 거예요!



솜사탕 우정

김기현



너에게 쓴
편지 손에 들고
우체통에게 가는 길

통통통
엄마처럼 포근한
미소로 나를 반기는
빨간 우체통

똑똑똑
나팔꽃처럼 맑은
목소리로 편지 전하는
파란 우체부 아저씨

짜짜짜
개나리처럼 환한
얼굴로 손뼉 치며
내 편지 열어보는 너

징검다리 우체통 건너며
솜사탕처럼 커지는
우리 우정.

편지의 기쁨

김유주



우편함에서 발견한 작은 편지
바로 여름방학 때 친구가 보내준 손 편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본다.

진심이 느껴지는 친구의 손 편지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콕콕 담겨있다.
전화와 문자로는
느낄 수 없는 친구의 진심
오늘 알았다.

나도 친구가 받고 기뻐할 것 같은
답장을 정성껏 쓴다.
'내일 빨간 우체통에 풍당 넣어야지.'

밤하늘에 뜬 보름달
친구의 얼굴이 보여
신난 마음으로 잠이 든다.

편지의 행복한 여행

박서은



오늘도 우편함이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회사에서 보내오는 광고 우편물, 돈 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신용카드 명세서 등등 반갑지 않은 종이뭉치들 사이에서 드디어 찾았다! 반가운 보물!

예쁜 노을로 물든 바다와 하얀 등대, 선명한 빨강·초록 배색의 커다란 우체통이 그려진 아빠의 엽서. 정성껏 꼭꼭 눌러쓴 아빠의 마음이 어느새 다정한 아빠의 목소리가 되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짜증 나고 속상했던 일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기분이 좋아졌다.

얼마 전, 아빠는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셨다. 다 함께 이사 가면 좋겠지만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했고 엄마는 울산에서의 일을 정리하셔야 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주말 가족이 되어 떨어져 지내고 있다.

기다리던 주말을 함께 보내고 나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실 때마다 아빠는 울산역에 있는 ‘미니 소망 우체통’에 엽서를 써서 보내신다. 비록 ‘미니’라는 단어가 붙어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큰 이 우체통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미니’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 그래서 새해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울산 간절곶에 가면 무려 5미터나 되는 ‘간절곶 소망 우체통’이 있다. 아빠의 엽서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바다와 등대, 우체통이 있는 바로 그곳, 간절곶의 랜드마크인 이 우체통은 엄청나게 큰 데다가 모양이 예쁘기까지 해서 포토존으로 아주 인기가 높다.

하지만 간절곶 소망 우체통이 더 특별한 이유는 무늬만 그럴듯한 가짜우체통이 아니라 정말로 편지를 배달해주는 진짜 우체통이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크기와 정겨운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간절곶 거인 우체통도 울산역 미니 우체통처럼 자신의 원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중이니 참 고맙다.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셨다. 일 년에 겨우 한 번 만날까 말까 했지만 휴대폰은커녕 집 전화조차 귀했던 시절, 지금처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나 영상통화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라 유일한 소통 수단은 편지밖에 없었다고 한다.

엄마는 그때 할아버지와 주고받았던 편지를 아직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신다. 오랜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빛바랜 편지를 보니 그 옛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먼 여행을 했던 편지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단한 피로를 사르르 녹여줄 만큼 툴림없이 행복한 여행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보고 싶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품고 있었을 테니까.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나는 멀리 이사를 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쉬움과 서운함에 벌써부터 눈물이 나지만 그때마다 정성과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 보내야겠다고 다짐한다.

편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보다는 많이 느리지만, 우리가 쓰는 편지는 서울과 울산을 이어주는 단단한 징검다리가 되어 우리들의 우정을 오래오래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편지의 행복한 여행을 응원하면서 머지않아 우편함에서 발견하게 될 반가운 보물들을 기대하며 기다려본다.

나의 소중한 우체국 아저씨

박경후



어린 시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내 동생과 작은 시골마을 충북 음성에서 살았다. 아빠는 주야를 번갈아 가며 일하시고, 엄마는 아침과 저녁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라 우리를 돌보기 어려우셨다. 그래서 조용하고 인자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

외로운 어린 시절에 유일한 친구는 풍요로운 자연과 작은 선물을 전해주시던 우체국 아저씨였다. 엄마는 계절마다 옷과 신발, 그리고 학용품들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셨다. 엄마는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작은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고, 아저씨를 졸라 읽어달라고 매달리곤 했다. 동생은 매미처럼 종아리에 매달려 2번 3번 계속 읽어 달라 징징대도 아저씨는 한 번도 짜증 내지 않으시고 읽고 또 읽어주셨다.

아저씨께 엄마가 보내주신 젤리랑 과자를 드리면 그다음엔 더 큰 간식으로 주셨던 아저씨가 있어 외로움도 작아질 수 있었다.

항상 심심했던 우리는 아저씨를 따라 작은 마을을 뛰어다니며 같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인사를 하러 다녔다. 우리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오토바이를 운전해 주시던 아저씨, 항상 매년 나오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던 인자하던 아저씨는

내가 만난 제일 멋지고 인자한 우체국 아저씨였다. 이제 아저씨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저씨와의 작은 추억들은 여전히 내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한여름에 냇가에서 물놀이할 때, 안전하게 돌로 깊은 곳은 막아주시던 모습, 동생이 논두렁에서 우렁이를 잡느라 옷도 더러워지고 신발도 잃어버려 같이 울고 있는데 아저씨가 동생을 업어주시며 달래주시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항상 그리웠던 아빠의 모습 같아서 지금도 나는 우체국 아저씨가 그림다. 어릴 적 동생과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슬프지 않았던 건, 바로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겨울에 지붕 밑 고드름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셨고, 가을엔 잘 익은 도토리로 공기놀이를 알려주셨고, 봄에는 사루비아 꽃으로 달콤 간식도 잔뜩 주셨던 나에겐 사계절 산타 같은 분이셨다.

동네엔 친구가 없었지만 우리 두 형제는 심심하지도 외롭지도 또 무섭지도 않았다. 아저씨께 자랑하려고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한글도 공부하고, 부지런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와드렸다. 할머니 집을 떠나면서 아저씨를 못 보는 건 너무 속상했다. 아저씨께 인사하며 안겨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마음에 남는다.

아저씨도 내 머리를 한없이 쓰다듬어 주시며 꼭 건강하게 지내고 또 보자고 약속했지만 다시는 아저씨를 볼 수 없었다.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던 아저씨. 동네 편지와 택배도 친절히 배달해 주시고, 작은 부탁도 다 들어주시던 인자하던 아저씨는 아빠 대신이었고, 든든한 나무 같았다. 시골 마을 우체국 아저씨 덕분에 우체국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소였고, 제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되었다. 지금도 우체국 아저씨를 보면 꼭 큰소리로 인사드리고 엄마와 우체국에 가서 할머니께 택배 보내는 일이 정말 즐겁다.

회색빛이었던 내 어린 시절은 아저씨가 있고, 우체국 편지와 택배가 있어 무지개색이 될 수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체국 아저씨 덕분에 우리 두 형제는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 가득하다.

느리게 가는 우체통

류영준



작년 봄 가족여행 때 나에게 쓴 편지,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넣었더니
일 년이 지나서 도착했다.

과거 열한 살의 내가
현재 열두 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벗꽃 잎이 떨어지는 나무 앞에서
동생이랑 뛰어놀며 웃고 있던 모습들이
새록새록 기억난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제 일처럼
떠오르게 하는 마법을 부린다.
그동안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묻는다.

즐거웠던 그곳으로 데려가 주는 마법의 편지
달팽이처럼 느리게 왔지만, 감동은 커지는
느리게 가는 우체통

동생 편지

전서우



오늘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셨다.

친척 동생이 보낸 편지다.
삐뚤삐뚤 글씨만 봐도
나는 입 꼬리가 씩룩씩룩
점점점 올라간다.

편지에서 동생 냄새가 난다.
꼭 곁에 있는 거 같다.

동생 편지는
게임기 보다 더 재밌어
읽고 또 읽게 된다.

감동 서비스의 추억

채호림



우리 집은 작은 산골마을로 사과가 유명한 장수이다. 직접 사과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엄마는 해마다 사과농장에서 직접 사과를 구입하셔서 평소 고마웠던 분들께 택배를 보내신다. 올해도 택배를 보내기 위해 엄마와 우체국에 갔다. 사과박스 12상자를 작은 손수레에 싣고 엄마가 손잡이를 잡고 밀면 나는 사과박스가 넘어지지 않게 박스를 잡아 주었다. 나는 사과박스가 흔들릴 때마다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중심을 잡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우체국에 들어서자 청원경찰분이 바로 뛰어오시면서 손수레에서 사과박스를 무사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청원 경찰하면 남자가 먼저 떠오르는데 장수 우체국은 항상 여자 청원경찰이었던 것 같다. 여자분이라고 힘이 덜하진 않은 것 같다. 도와주실 땐 엄마처럼 아빠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시는 것 같다. 우체국에는 우리 보다 일찍 온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른 분들이 택배 포장을 하고 있었다.

“찌익~, 찌~이~익, 찌찍”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지 하고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는데 두 번, 세 번 연달아 들었을 땐 귀가 아파 손으로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다.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기 위해 테이프를 푸는 소리 “찌익~, 찌~이~익..” 이런 소리들이 들렸다. 사람들이 복적일 때는 몰랐는데 잠시 정적일 때 나는 테이프 소리는 참기 힘들 정도였다.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엄마도 미간을 찡긋하는 게 보였다. 분명 나와 같은 마음 같았다.

택배를 무사히 보내고 우체국을 나와서

“엄마, 조금 전 우체국에서 테이프 소리가 너무 컸어.”

“그러게, 엄마도 귀가 아팠어. 우체국 안에 잠깐 있었는데도 테이프 소리에 신경이 쓰였어.”

생각해 보니 나는 오늘 하루 중 아주 잠깐, 잠시였다.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야 하는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괜찮은 걸까? 택배를 보낼 때 나와 엄마는 신경이 쓰였지만 정작 우체국에서 온종일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택배를 포장하고 부칠 때 나는 테이프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삶은 내색 한번 없이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셨다. 테이프 소리는 나와 엄마에게만 들리는 것은 아니었을거다.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고막을 때리는 소음이지만 일터이니 참고 견디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대단하게도 느껴졌다. 엄마와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고 오면서 유치원 다닐 때 일이 떠올랐다.

나는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녔다. 엄마는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엄마 지갑에 있던 몇 천 원씩 꺼내 나에게 주셨다. 어떤 날은 오천 원, 다른 날은 만원 매주 금액은 달랐다. 가끔 생일 때나 친척들이 주신 용돈이 있으면 그 용돈도 엄마는 주셨다. 나는 엄마가 주신 돈을 우체국 통장에 끼우고 가방에 넣어서 유치원에 갔었던 기억이 난다. 유치원 선생님은 학생들 가방에서 우체국 통장을 한 개씩 꺼내어 차곡차곡 통장을 정리하고 집에 갈 때 즈음 가방에 다시 통장을 넣어주시곤 하셨다. 그 통장에는 오늘 저금한 금액이 찍혀있었다. 우리가 가져간 통장을 한 번에 모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우체국에 직접 가서서 저금을 해주신 거라고 한다. 한 번은 그해에 우체국장 저축상을 탔다. 매주 빠짐없이 저금을 해서 받는 상이라고 했다. 그때는 정확히 무슨 의미의 상인지 몰랐으나 상을 받아서 마냥 좋았다. 우체국에서 학생들의 저축습관 장려와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우체국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치원과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엄마가 설명해 주셨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매주 저금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졌다. 엄마는 저금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아쉬워하셨다.

바쁘기도 하지만 깜박 깜박 잘 하시는 엄마는 우체국까지 직접 가서 저금하는 게 쉽지 않는데 유치원 갈 때 가방에 넣어 보내면 편하고 쉽게 저금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유치원 때 매주했던 저금 습관이 초등학생인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조금씩 모은 돈이 지금은 꽤 큰 금액이라고 좋아하셨다. 나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어 기분이 좋았다.

우체국은 우리 학교 앞 횡단보도만 지나면 바로 위치해 있다. 등갓길에 항상 지나다니는 길에 있어 매일 우체국을 보게 된다. 어릴 적 최초로 상을 받은 추억, 저축 습관을 길러준 곳으로 우체국이라고 하면 항상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 나에게는 박스에 테이프 붙이는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대단했다. 오늘도 우체국에서 감동 서비스라는 좋은 기억 하나를 더 추가했다.



빨간 깡통의 주인을 찾아주세요



박수민

걷다가 무심코 빨간 깡통을 본 적 있나요?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빨간 깡통은
이제는 찾는 사람이 없어 쓸쓸해진 우체통이랍니다
작은 구멍 속으로 사연을 밀어 넣던 손님들의 발걸음은
이제 끊긴지 오래, 작은 틈으로 바람만 들고난다고요
길을 걷다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체통은 깡깡 거리며 추억들을 내뱉습니다
도로 위에 흩어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시간들
소중하게 주워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우체통
비바람에 젖도 낙엽을 흠뻑 뒤집어쓰는 신세가 돼
심지어 아이들은 깡통이라 놀리기도 한다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가끔 그 틈으로 사연을 밀어 넣고
이제는 개미들이나 사연을 읽고 간답니다
달이 뜨면 빈틈으로 사연을 하나하나 띄워 보네요
가끔 지나가는 별빛들이 편지를 읽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빨간 깡통을 발견한다면
한 번쯤 걸음 멈추고 말을 걸어주세요
작은 구멍 속에 남은 이야기가 있는지 말이에요
있다면 하나쯤 손에 들고 가주세요
우체통 속에는 잃어버리고 사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한가득 잠들어 있으니까요

엄마의 새벽

왕나경



달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은 짙은 새벽, 우리 엄마의 하루는 그제야 시작된다. 나는 우리 엄마가 내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오전의 시간 동안 집에서 편하게 노는 줄만 알았다. 그게 아니라면 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우리 엄마는 전주우편집중국에서 일하신다. 새벽에 나가 아침 일찍 돌아오신다. 우리 엄마가 새벽 일을 택한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이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막냇동생을 챙기기 위해서, 또 나와 언니의 편한 하룻길을 위해서 새벽 일을 택한 엄마는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다.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야만 했다. 내가 잘 때 나가는 엄마를 보고 엄마는 안 피곤한가 싶었다. 내가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누워있을 때 엄마는 3시간이나 잘 수 있다며 기뻐하셨다. 나는 3시간 자면 힘들어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엄마는 위대한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매일 밤 엄마를 일터로 보내면서 이런 의문 한 번 가져보지 못한 내가 미웠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김에 엄마에게 여쭙보았다.

엄마가 정확히 하는 일은 타 지역에서 모여진 택배를 전라북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이다. 택배에 붙어있는 송장을 보고 하나하나 분류한다고 했다. 엄마가 일을 하며 얻는 보람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일단 솔직하게 급여를 통해 보람을 얻으신다고 하셨다. 또 엄마가 하는 일을 통해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마치 선물 받듯 택배를 받아 기쁨을 얻을 수 있어 뿌듯하기에 택배 하나하나 소중한 마음으로 작업하신다고

하셨다. 새벽에 일어나면 많이 힘들 것 같아 힘들지는 않느냐고 여쭙봤다.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셨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한다면 그 힘든 순간조차 즐길 수 있다고 하셨다. 쉬는 시간 30분 동안 마시는 커피 한 잔, 작은 초콜릿 하나가 그날 일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셨다.

사실 안 힘들 수가 없는 일이다. 새벽에 일어나 그 많은 택배를 분류하고, 다치기도 하며 고된 새벽을 보내는 일이니만큼 힘든 게 당연하다. 그 고된 일조차 긍정으로 소화하며 택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시는 엄마가 오늘따라 멋있어 보였다. 매일 밤 가족을 위해, 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20km, 40분의 거리를 달려가는 엄마가 존경스럽다. 사실 우리 엄마는 원래 기간제였다. 그러다 공무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에 있어 힘을 받고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하셨다. 엄마의 올라간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 이곳저곳 파스를 붙이시는 엄마를 보며 효도해야겠다는 생각도 자주 했었다. 그러다가 엄마를 위한 진짜 효도는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엄마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나도 나대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택배의 과정 중 엄마가 하는 일이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다. 고객들이 선물 받는 기분으로 택배를 받아 기쁘다고 하셨다. 나도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택배가 느리게 와도 투정 부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편히 누운 채 한 클릭 한 번이 누군가를 움직인다는 사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을 쓰기 전에는 엄마가 하는 일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 글을 통해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잠든 잿빛 새벽, 누군가는 깨어 우리를 위해 일을 한다는 사실에 더욱더 엄마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되었다. 엄마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이번 기회에 해야겠다. 사랑하고 항상 고마워요, 엄마.

우체국보험과 함께 떠나본 가족사랑 치유의 숲캠프



이예지

저희 가족은 우체국 보험 계약자인 엄마의 권유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숲 캠프를 작년에 신청하게 되었다. 나랑 아빠는 벌레도 많고 뱀도 나올 것 같은 숲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체국 보험’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엄마의 말에 1박 2일 동안 숲 체험을 한번 해보기로 하였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영주에 있는 ‘국립 산림 치유원’이었다. 그곳은 마실 치유숲길이라는 멋진 데크로드 산책로도 있었고, 수 치유, 치유 장비 등이 잘 구비되어 있었고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편백 통나무 집들이 너무 멋졌다. 주치 마을이라는 곳의 풍경이다.

마실 치유숲길에서는 소백산의 등줄기도 보이고 테마가 있는 숲길도 여러 갈래 있어서 더 재미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 비염이 있어서 환절기마다 약을 달고 살 정도로 심했다. 그런데 숲속에 들어서니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너무 맑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다. 해먹을 나무 사이에 걸고 누워 바라보는 전나무들도 푸르렀고, 작은 소리의 풀벌레 소리, 졸졸 흐르는 물소리 등 무념·무상의 상태로 나의 심신이 참 편안하다는 걸 숲에서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 ‘천연 크림’도 직접 만들어보고 명상 테라피를 해보면서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중3이라서 사실 코로나로 집에 콕 생활이 나에게서는 잘 맞았다. 물론 치유원은 재작년 중1학년 때도 갔었는데 그때 인터뷰도 해서 우체국 사보에 우리 가족사진도 실리고 인터뷰 내용도 글로 실려서 신기하고 좋았다. 아빠, 엄마랑 맛있는 식사도 하고 저녁엔 고라니 소리, 새소리, 매미소리, 때로는 멧돼지가 나온다는 치유원 선생님의 이야기도 떠올리면서 달콤한 1박을 했던 기억들이 나의 추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작년엔 한여름에 갔었는데 개울물에 발을 담그니 어찌나 시원한지, 숲속에 둘러싸인 나무들 사이로 찬바람이 부는 데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이 나왔다. 평소 아빠, 엄마도 일을 하시고 나도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하기 바빠서 제대로 얼굴 보면서 소소한 일상을 주고받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치유원에 와서는 프로그램마다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사진도 찍고 웃고 하니 가족 간의 소통도 되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았다. 아빠, 엄마가 친구처럼 느껴진 것 같았다. 특히 아빠는 요즘 회사일이 힘드신지 매일 우울하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웃으시면서 숲길도 거닐고 밥도 같이 먹고 명상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빠가 제일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다. 아빠가 엄마 덕분에 좋은 경험도 하고 몸도 좋아져서 고마워하는 걸 보니 나도 엄마도 뿌듯했다.

엄마는 평소에도 우체국 관련 사업에 관심도 많으시고 보험도 너무 좋은 게 많다고 가입도 많이 하시고 주위에도 소개를 많이 하셨다. 내가 아는 우체국은 우편물만 보내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는 숲 캠프 체험을 통해서 우체국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에도 기여를 참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족 간 애착을 가지고 숲 캠프도 참가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알던 숲의 이미지는 위험하고 걸어 다녀야 하는 힘든 곳으로 알았는데, 숲은 우리 가족에게 건강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치료사도 되어 주었다. 우체국에서 ‘환경성 질환 숲 캠프’를 매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우체국에 감사한 마음이다.

편지 하나의 진정한 의미

김나현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난 혼자 난생처음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좀 무섭긴 했지만 막상 캐나다에 도착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들이 그리울 때가 많았다. 그들이 보고 싶어질 시간이 다가올 때면 그들은 내게로 편지를 보내주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편지를 받았다.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면 어떤 날은 행복해서 웃음이 나왔고, 어떤 날은 그리움에 눈물이 나오기도 했다. 나는 편지들은 하나, 하나씩 모아 상자에 담아놓고 슬픈 일이 있거나 외로울 때면 그것들을 읽어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사실 문자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나머지 휴대전화로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 겪어 보면 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손편지만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랑과 받았을 때의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편지가 혹시라도 왔으면 하고 들떠서 학교를 마치고 우체통에 손을 꼭 넣어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습관마저 생기게 되었고 집배원 아저씨를 만날 때면 편지가 왔냐고 매일같이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기다리던 편지가 우체통 속에 들어 있는 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난 그곳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다.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가까이 지났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그곳에서 정말 정말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만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울며불며 작별 인사를 하던 날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히 남는다.

처음엔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많이 힘들었고 사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한국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어렵기도 했다. 공부도 어려웠고 특히 국어가 많이 어려웠다. 학교에 가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쳐보는 국어 시험을 망치고 우울한 상태로 집에 온 날이 있다. 정말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너무너무 속상했다. 그때, 나의 마음을 달래 주고 위로해 준 것이 그날 우체통 속에 있었다. 캐나다에 살았을 때의 내 절친, 클레어가 한국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다. 편지봉투 속에는 꼬불꼬불한 글씨체의 세 장의 편지지만 아니라 큰 하트 스티커와 클레어가 직접 만든 팔찌도 들어 있었다. 편지글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아마 국어 시험을 망쳐서 슬픈 마음과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이 합쳐져서 그랬을 것이다.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

어떻게 편지 하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때의 마음을 다시 회상해 본다..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물론 SNS로 주로 소통한다. 하지만 나는 꼬글꼬글한 친구의 글씨체가 담긴 편지가 더 좋고 기다려진다. 클레어도 아마 그렇게 느낄 것이다. 손편지 쓰기가 귀찮고 그 정도의 가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린 아직까지 편지를 주고 받을까.

정보화된 우리 사회에서 손편지를 쓰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졌지만 사람들이 손편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의 사소한 행복을 위해 열일 하시는 우체국 직원님들, 집배원님들 감사합니다!

해외 배송

홍지연



고등학교 1학년, 일본으로 이민 간 친구를 위해 선물을 보내주려고 했다. 그러나 한 번도 해외 배송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두려움만이 앞섰다. 그때 하필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던 시기라, 비행기가 뜨기 힘들다고 들었다. 이미 친구가 좋아하던 라면이랑 과자를 전부 상자 안에 담아둔 상태였는데, 막상 배송이 늦어져서 상하게 되면 어떡할지 고민했다.

가족들도 해외 배송을 받아본 적만 있지, 보내본 적은 없어서,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고민하고 있자 옆에서 엄마가 직접 찾아가 보라고 얘기했다. 나는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는 사례가 너무 다양해 직접적으로 도움 될 만한 정보를 찾기 힘들었다. 나는 샀던 짐들을 쇼핑백에 들고 집 근처에 있던 시내동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우체국에 들어가자마자 안쪽에 있던 박스를 꺼내 조립했다. 그 안에 물건들을 넣으면서 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눈치를 보았다. 들어가도 될 물건과 아닌 물건을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문 앞에 앉아 계셨던 직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다. 나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장 애매했던 물건(과자나 김 등)을 하나씩 질문했다. 직원은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며 분류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다행히 두 물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택배에 붙여야 할 스티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다. 오기 전에 친구에게 집 주소와 전화번호 정도는 받았지만 작성해야 할 칸이 많았다. 그러나 옆에 계시던 직원이 하나하나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칸, 들어간 물품은 어느 정도로 세세하게 적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셨다.

우여곡절 끝에 전부 포장과 작성까지 마쳤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구네 집이 EMS 배송이 안 가는 지역이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걸 다시 들고 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접수해 주시던 직원이 다른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다. 정확히 가는 시간이 얼마가 차이 나는지, 금액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등 물어보기 전에 알려주셨다. 덕분에 나는 당황하지 않고 선박으로 배송을 보낼 수 있었다.

요즘 많은 사람이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소심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배송을 보내는 데에는 변수가 많고 다양한 해결책도 많다. 그런 부분까지 인터넷을 찾기 힘든 건 사실이다. 내 경우처럼,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직원들도 전부 친절하신 데다가 일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에, 나도 그날을 계기로 매번 믿고 배송을 맡기고 있다.

초등 저학년
심윤서
곽서아
강민재
하다영
김시연
김주아
김우현
손수빈
이주원
가민서

중·고등부
정인아
홍지명
이지혜
박지우
박시안
사원준
황인호
현재연
오수현
민경준

초등 고학년
김정민
이민지
정아윤
김문영
김소희
김선유
이하영
조안유
채준우
장서원



나는 제비 우체국장

심윤서



2042년 7월 31일, 대한민국 제천의 제비 우체국은 오늘 하루도 바쁘다. 내가 이곳의 우체국장으로 일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곳에 편지를 부치러 왔는데, 이제는 여기 우체국장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우체국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무인 택배함과 무인 우편접수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제비 우체국은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우체국이다. 바로 내가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손편지 쓰기’이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어떤 할머니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의 무인 우편 접수기에 우편물을 꺼내러 갔을 때, 한 할머니가 나에게 물었다.

북한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신다. 그런데 주소를 보니 ‘평양특별시’로 되어 있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북한으로는 우편 드론을 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편지 배달을 위해 내가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휴가를 내서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할머니의 옛날 친구인 어떤 할아버지였다. 그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나에게 고마워하셨고,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지를 보낸 할머니에게 답장을 써서 주셨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 나는 이 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친구를 찾아주게 되었고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나와서 나는 기뻐했다.

우체국 사람들은 지금 드론으로 택배를 나르고 하니까 편지는 쓰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없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난 것은 손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잃어버렸던 친구를 찾으니 옛날에 즐겁게 놀던 생각이 얼마나 났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 나는 ‘손편지 쓰기’를 시작한 것이다.

손편지가 전해주는 기쁨은 지금 카톡이나 문자와는 완전 다르다. 직접 손으로 쓰고 그림일기도 그리고 하니까 휴대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쓰면 좋겠다고 알려주기 위해 무인 우편에 편지와 우표를 무료로 해주었다. 또 답장을 쓰는 사람에게도 무료로 돈을 안 받고 해주었다. 그리고 손편지 쓰기 대회도 하여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상도 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손편지의 기쁨을 알고 이제는 학생들도 쓰고, 어른들도 쓰고, 그래서 우리 우체국은 일이 많아서 일하는 아저씨들도 매우 많아졌다.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편해졌지만 작은 기쁨을 주는 것은 ‘손편지 쓰기’인 것이다. 그래서 제비처럼 소식을 물고 오는 우리 제비 우체국은 유명해졌고 우리 우체국에 오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비밀의 문이 완성될 날을 기다려요

곽서아



‘부릉 부릉. 편지 왔어요!’ 우리 동네에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는 아저씨들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편지나 택배를 전달하세요. 그런데 한번은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어쩔 줄 몰랐는데 다행히 길을 지나가던 분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날의 일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 우체부 아저씨가 넘어진 장면 때문이 아니라, 이날 보여준 우체부 아저씨의 행동 때문이에요. 우체부 아저씨는 다친 자신의 몸보다는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다시 모으고 비에 젖지 않도록 서둘러 가방에 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셨지요. ‘많이 아프실 텐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저 우체부 아저씨는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날 저는 우체부 아저씨가 다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편지나 택배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덥고 추운 날씨에도 제가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나, 저희 엄마를 편리하게 해줄 물건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이후 저에게는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언젠가 어른이 되면 꼭 우체부 아저씨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인 지금의 제가 생각해본 것은 발명품 만들기예요.

배송 버튼을 누르고 배송할 장소를 말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문 안에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물건이 도착할 수 있어요. 일하는 환경이 날씨나 시간에 영향받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이지요. 저는 현재 이 발명품의 이름을 ‘비밀의 문’으로 지었어요.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런 발명품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일하는 분들도 더 즐겁지 않을까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사고 없이 우편물을 배달해 주셔서 우체국도 더 빠르게 일할 수 있고, 혹시나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다치실까 봐 마음 졸일 일도 없을 거예요. 또 우리는 더 많은 양의 물건을 쉽고 빠르게 받아보아서 훨씬 편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하루빨리 제가 만든 ‘비밀의 문’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발명품이 처음 사용되는 날 우체부 아저씨들께 보낼 편지 내용도 벌써 생각해보았어요.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우체부 아저씨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제 비밀의 문과 함께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우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저씨들을 응원하는 꼬마 발명가 올림’

저는 오늘도 이 편지가 전해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체국은 우리의 몸

강민재



우체국은
우리의 몸!
구석구석 다 소중한니까.

편지는
새콤달콤한 입!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니까.

저금은
튼튼한 강철 위!
안전하게 우리의 돈 보관해주니까.

택배는
쌩쌩, 고불고불 창자!
정확하고 빠르게 소포 전달해주니까.

보험은
단단하고 굳센 다리!
미래를 대비해서 딱 서 있으니까.

우체국에 가면

하다영



엄마 따라 우체국에 가면
멀리 계신 할머니께 실을 보내고 싶다.
뜨개질을 좋아하시는 할머니께 선물을 보내고 싶다.

우체국 택배차가 보이면
할아버지께 손목시계를 보내고 싶다.
“다영아, 지금 몇 시냐?”
멀리 있는 내가 대답 못 할 때 손목시계를 보시면 좋겠다.

우체국 택배 상자에 잘 넣어
우체국 택배 아저씨에게 부탁하고 싶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 마음도 전해주세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우체통과 편지

김시연



나는 대구 고성동 우체국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이름은 우체통입니다.

나는 편지라는 밥을 먹고 살지요.
언제부턴가 아무도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아요.
모두 핸드폰만 보고 지나갈 뿐입니다.

나는 배가 고프고 우울합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 제비가 위로해 주지요.
내 배에 그려진 제비는 우체국의
상징이랍니다.

나는 매일 제비와 같은 꿈을 꾸며 잠이 듭니다.

자박자박 귀여운 아이가
나에게 편지 밥을 주어요.
나는 편지를 품고 미소를 지어요.
제비도 좋아서 펄쩍펄쩍 뛰지요.
나는 밤새 편지를 보듬어요.
아침이 밝아 오고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꺼내 갑니다.

나는 이 꿈이 진짜가 되기를
오늘 밤에도 기도합니다.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김주아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슬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돈이 없고 불쌍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심심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외롭고 혼자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귀여운 강아지에게 우리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메마른 사막에게 시원한 비를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아픈 고래에게 깨끗한 바다를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약 우체부라면,
우주에 있는 외계인들에게 지구의 아름다운 사진을 전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전해주고 싶은 것이 또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그게 무엇이든지요...

우리 집 보약

김우현



집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를 받았다.

“누고? 우현이가? 울산 할머니다. 할미가 총각김치 보냈다.”

총각김치를 보냈다는 울산 할머니의 전화였다. 얼마 후 총각김치가 도착했다. 아빠는 총각김치를 보시더니,

“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총각김치다. 할머니가 만드신 총각김치가 아빠한테는 보약이다. 총각김치는 비타민도 풍부하거든.”

이라며 활짝 웃으셨다.

나도 총각김치를 좋아한다. 아삭아삭 씹는 느낌이 참 재미있다. 울산 할머니가 보내주시는 총각김치는 아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보약이 되었다.

울산 우정 우체국은 할머니 댁에서 가깝다. 그래서 다행이다. 할머니께서 무거운 총각김치를 편안하게 택배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어? 그런데 이 무거운 총각김치가 멀리까지 어떻게 무사히 오지? 궁금했다. 엄마께 여쭙보았다.

“우체국에서 택배 받기, 물건을 차에 싣고 내리기, 배송하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 집까지 온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총각 김치가 지나긴 여행을 하고 우리 집에 오는구나. 울산에서 우리 집까지 차로 4~5시간쯤 걸린다. 아빠 차 타고 울산 할머니 집에 갈 때면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다. 그래서 나는

“아빠~ 몇 분 남았어? 언제 도착해?”

라고 열 번도 더 묻는다. 이쪽저쪽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동생이랑 장난을 치다가 지쳐 잠들기도 한다.

총각김치 싣고 오래 운전하시면 기사님도 나처럼 힘드실 텐데. 음.. 나는 비행기 택배 길이 찾길만큼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운전하는 시간이 줄어서 덜 힘들실 것 같다. 내가 30살쯤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비행기 택배 길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집 보약 총각김치에 가득한 비타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우체국도 비타민 같다

비타민 우체국아,

울산 할머니 집에서 우리 집까지

무거운 총각 김치를 무사히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할머니 정성을 고이고이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주렴.

미래의 우체국 만세!

손수빈



미래의 우체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는 편지들을 배달하는 걸 마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하고 편지를 순간 이동처럼 전할 수 있다. 편지만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걸 배달해달라고 하면 우체국에서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는 우체국을 만들고 싶다. 변신 로봇처럼 막 걸어 다니는 우체국인 거다. 사람들이 전화로 우체국을 부르면 우체국이 성큼성큼 걸어서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다. 그러면 모두가 너무 편리하고 좋을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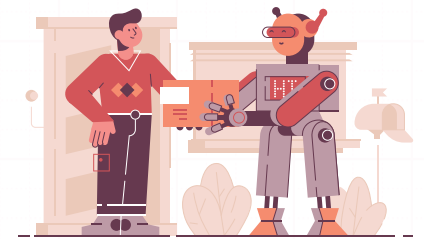
또한 우체국 트럭도 변신 로봇처럼 바뀔 것이다.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무지개 색깔 트럭인데 100km를 1분 안에 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른 트럭이다. 그런 트럭이라면 사람들이 보낸 택배나 편지를 만나질 만에 배송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엄청나게 멋지게 변화할 수 있다. 필요한 걸 금방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우체국에 가면 소원 나무가 있을 것 같다. 그 나무는 편지를 걸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무이다. 편지에 만약 소원을 썼다면 소원 나무에 소중한 편지 배달을 기도하면 된다.

심지어 무료라서 누구나 소원 나무에 편지를 매달 수 있다. 그러면 소원 나무를 이용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체국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명소가 되어 관광지로도 이용될 수 있다.

또, 미래의 우체국은 빌딩으로 지어질 것인데 택배가 높은 꼭대기 층까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생길 것이고, 꼭대기 층에서 헬기를 타고 택배를 이동시킬 것이다. 더 신기한 것은 우체국이 계절에 따라 색깔도 바뀌고, 모양도 다양하게 바뀌는 변신 우체국이 되는 것이다. 봄에는 핑크색, 여름은 덥고 해가 찡찡하니 노란색, 가을은 무지개색으로 변하는 거다. 왜냐면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알록달록하니까 말이다. 마지막 겨울은 우체국이 눈이 온 것처럼 흰색으로 변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일 멋진 건, 우체국에서 편지를 파는데 그 편지지는 나중에 먹을 수 있는 편지지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편지지라니! 그런 상품을 팔기만 하면 우체국은 대박이 날 것이다! 우체국 만세!



편지를 받은 제비

이주원



제비야 제비야 지금 많이 바빠?
 이거 내 마음을 담은 편지야.
 이 편지를 물고
 훨 훨 날아볼래?

편지를 물고 너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가장 편안하게 앉아 보렴.

이때, 물고 있던
 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조심스럽게 펴서 읽어봐.

어때? 나의 마음이 느껴지니?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던 행복을
 이제 너도 느낄 차례야.

추억의 우표

가민서



할아버지와 함께 모았다던
 소중한 아빠의 보물단지.

제사상 위 수북이 쌓인 우표만큼
 할아버지 향한 그리움 커져간다.

오랜 세월 손때 타 색 바랜 잉크
 그 속에 담겨있는 할아버지 손길.

조심스레 아빠가 건네준
 젊을 적 이야기 추억 몇 장.

나도 아빠와의 시간을
 우표에 담아야겠다.

바람이 전하는 말

김정민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하늘에서 오신
우체부 아저씨인가 보다.

바람이 전하는 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싶다고..

아저씨께 내 마음도
같이 실어 보낸다.

다음 번엔
꼭!
같이 와 주시라고..

자랑스러운 직업 우체부

이민지



여러분은 직업 중에 무슨 직업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개인별로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우체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체부란 직업은 편지나 소포 등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 편지나 소포에는 가족,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을 대신 전달 하는 게 굉장히 뿌듯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년 때 목포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휴대폰이 없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처음 보내는 거라 편지가 잘 전달될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우체부 아저씨께서 편지를 사촌동생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했었어요.

인터넷, 휴대폰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로 편지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현재는 문자 메시지가 옛날보다 훨씬 더 발달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줄어 거리에 우체통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마음을 담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 편지를 전달해 주시는 우체부 아저씨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사람들의 저마다의 사연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시는 수고와 추운 겨울 눈보라를 감수하시면서 언제나 웃음과 친절한 말씀까지도 따스하게 전해주시는 우체국 아저씨들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느끼면서 저도 이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친절함과 따스함을 갖춘 사람으로 직업정신을 갖고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우체국 택배와 아나바다 운동을

정아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우체국 문화전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가족과 친척들이 오랫동안 우체국 택배를 통해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는 저와 쌍둥이 여동생 이렇게 세 자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세 자매가 자라면서 필요한 유아용품부터 옷 신발 책등 많은 것들을 저희 엄마는 스위스에 사는 이모, 일산에 사는 이모 삼촌과 나눠쓰고 바꿔쓰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의 캐릭터 중 초코는 늘 무뚝뚝하고 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인 초코를 웃게 하려고 이발소 사장님 브레드는 초코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가 와도 무표정이던 초코를 마지막에 미소 짓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택배와 택배기사였습니다.

초코처럼 저도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이 이모가 보내주시는 택배입니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멋쟁이 막내 이모는 이종사촌들의 작아진 옷이나 액세서리 구두 장난감들을 이따금씩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택배 박스 안에는 저와 쌍둥이 여동생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모의 택배 박스는 보물섬으로 보물을 찾으러 떠나서 찾게 된 보물 상자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모가 보내온 택배 상자 안의 이종사촌들이 썼던 한글이 야호 USB로 7살이 된 쌍둥이 여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한글을 다 알게 되었고 이종사촌들의 작아진 래시가드와 아쿠아슈즈로 수영복을 사지 않고도 동생들은 유치원 물놀이를 할 때나 워터파크에 갈 때도 신나게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보내주신 택배는 주로 책 들인데 외삼촌들이 다 읽은 책이 저희 집으로 오고 외삼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집들은 저희 집에서 외삼촌 네 집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집니다. 또 서로 가지고 놀다 지겨워진 장난감을 주고받으면 새것은 아니지만 새것처럼 재미있게 가지고 놀기 때문에 엄마는 장난감 덕분에 자유시간을 갖게 된다며 좋아하십니다.

스위스에 사는 첫째 이모 집으로는 국제우편 EMS를 통해 주로 엄마가 김을 보내십니다. 스위스에도 한인마트가 있어 다른 식료품들은 쉽게 구하지만 김은 구하기 어려운 이모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보낸 김을 맛있게 먹는 이모 가족들 사진을 보면 제가 보낸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뿌듯해질 때가 있습니다. 스위스 이모는 김을 받은 답례로 스위스에서 유명한 고기 스틱이나 초콜릿 풍류를 보내주시는데 초콜릿은 너무나 달콤하지만 풍류는 솔직히 냄새도 심하고 짠맛이 강합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도 그렇고 이모 외삼촌들은 왜 우체국 택배로만 보내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엄마는 “안전해서” 라는 짧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 안전하다는 단어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에 부모님 동생들이 있어 저는 행복하고 집이 안전해서 가족들과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데 택배 같은 경우도 잃어버릴 걱정 혹은 물건이 망가질 걱정이 될 때가 있겠구나. 그런데 우체국 택배는 안전해서 이용한다는 엄마 말씀을 듣고 나니 우체국 택배가 있어 저희 가족들이 이모 외삼촌 가족들과 여유 있는 것은 나눠쓰기도 하고 대물림도 할 수 있게 되어 환경오염도 줄이고 지구의 자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친척들과 우체국 택배를 주고받으며 아나바다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 친척들과 정도 듬뿍 쌓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우체국 택배!

작고 소중한 우편물

김문영



나는 충청남도 당진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전학을 왔다. 전학을 오면서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쉽고 속상했다. 하지만 우체국이 있어 가장 소중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 있었고 작은 선물들도 나눌 수 있었다.

사실 나와 친구들은 편지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한 카톡과 문자 메시지가 더 편리하다. 하지만 내가 이사 가는 날 한 친구가 나의 집 주소를 물어보았다. 사실 나도 잘 몰라서 이사 온 후 친구에게 집 주소를 알려 주었다.

그 친구는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는데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내가 다른 친구랑 공기할 때 함께 하자고 하고 점심시간에 급식실 갈 때도 함께 가며 점점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어느 날 우리 집으로 작고 예쁜 편지가 왔다. 나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열어보았는데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문자 메시지로 보는 감사 인사보다 직접 글씨로 쓴 편지가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 나도 친구에게 편지와 작은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 처음 우체국에 가서 잘 몰랐는데 우편 창구에 있는 언니가 친절하게 택배 부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택배 상자를 저울에 놓아 측정하는 것도 신기했고, 내 편지가 당진에 있는 친구에게 내일 도착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친구와 나는 우체국 덕분에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집에 오는 데 오토바이를 탄 집배원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친구에게 편지와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는데 아저씨는 힘들게 우편물을 배달한다고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집배원 아저씨의 수고로 다른 사람이 기쁨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분 좋게 일하신다고 생각했다.

소중한 우편물을 전달해 주는 우체국과 집배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친구 정원에게 보내는 편지

김소희



정원아, 안녕? 요즘 장마철이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남동생과 집에서 좀비 놀이를 했어. 너는 심심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다섯 고개 퀴즈를 준비했어.

첫 번째 어느 지역이나 있는 공공기관이야. 두 번째는 제비가 마스코야. 세 번째 빨간색 큰 통이 있는 곳이야. 네 번째 누군가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곳이야. 마지막 다섯 번째 우편물과 편지, 택배 하면 생각나는 곳! 혹시 정답 눈치챘니?

맞았어! 정답은 우체국이야. 나는 우체국 하면 제비, 우편함, 우표, 편지, 빨간색, 우체부 아저씨 등이 생각나. 너는 무엇이 생각나니? 우체국에 대해 궁금하지 않니?

언제부터 우체국이 있었을까? 아주 옛날에는 연기를 피워 소식을 전했대. 편지는 심부름꾼을 시켜 직접 전했는데 답장을 받으려면 5일~10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편지 대신 카톡이나 메시지로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편리한데 옛날에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 우체국의 첫 이름은 우정총국이었던대. 1884년 흥영식이 초대총판(지금의 우체국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우정총국 개국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갑신정변을 일어나 폐지되고 말았어. 10년 후 전우총국이 설치되었고 전국에 24개의 우체사가 지어지면서 우체국이 많이 발전했지.

서울에 있는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는 내가 지금까지 본 우체국 중에 가장 크고 건물도 멋지더라! 그곳에 가면 우편박물관도 있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너랑 같이 가보고 싶어. 우체국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깜짝 놀랐지?

요즘의 우체국은 우편물도 배송하지만 금융 업무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체국 보험도 있대. 나는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 이용해 보고 싶어. 우체국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 하나 더!! 미국 돈 1달러에 있는 링컨 대통령이 예전에 우체국 총장이었던대. 너도 몰랐지?

정원아, 우표는 사 본 적 있지? 나는 예전에 엄마랑 다른 지역 박물관에 갔다가 우표를 붙여서 우리 집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 집에서 편지를 받으니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어.

우체국은 공공기관이라 배송이 빠르고 정확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해결되어 좋지만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고 일반우편일 때에는 당사자가 받았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우체국은 사람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달해 주어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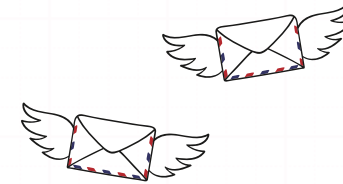
우체국을 떠올리면 기분이 편안해. 답장을 기다릴 때 구름에 누워있는 느낌이 들거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우체국의 중요성이나 고마움을 느끼는 일이 쉽지 않지. 하지만 지금까지도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역할을 잘 지키고 있는 걸 보니 앞으로 우체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기대돼. 그럼 안녕!

2022년 7월 24일

추신: 너도 우체국을 이용해 나에게 편지를 보내줄래?

느린 우체국

김선유



나는 가끔 과거의 내가
어땠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느린 우체국이 있다면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받고 싶다.

바쁜 현대사회 사람들은
편지도 택배도 빠르게 배송되는 걸 좋아하지만
난 느리게 배송되길 바라며
3년 뒤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

“너는 지금 행복해?”
“2022년의 나는 행복해.”
“이번 여름 가족여행은 최고였어.”
“체육시간 배구시합에서 이겨서 기분이 좋아.”
“난 지금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힘든 상황이면 잠시 쉬어가고
기쁜 상황이면 생각 속 과거의 나와 함께 웃고
화난 상황이면 잠시 마음을 추스르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나의 호기심을 풀어주도록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나하나 내 소망들과 내 마음들이 깃든 글자들로
이루어진 편지를 느린 우체통에 넣었다.

내 편지는 3년 동안 시간을 달리며 서서히
날아가는 우체국의 느린 우체통에 있다가
편지가 시간을 건넌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갈 것이다,

내가 과거에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쓴
기억도 사라져 있을 3년 뒤
미래의 우체부께 편지를 받은 내가 웃고 있기를 바란다.

마음이 오고 가는 우체국

이하영



비닐봉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밀고 할머니께서 우체국 안을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반겨주는 건 예쁜 미소로 인사하는 로
봇 직원이다.

첫 방문이 아니기에 로봇과 손을 잡는 순간 할머니의 인적 사항이 저절로 파악되기 때
문에 할머니와의 인사를 주고받은 로봇은 유모차에 실린 비닐봉지를 탐색하며 말했다.

“하영이 할머니, 봉지에 든 건 싱싱하게 가야 할 냉동식품들이니 아이스박스에 담고 이
봉지 안에 든 감자나 당근들은 상자에 넣어 포장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보내실
건가요? 1번 서울 아들 2번 양산 딸 3번 울산 아들. 최근에 보내신 적이 없으면 받으실
분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감자나 당근 채소는 1,2,3번 자식들에게 냉동식
품은 고향 친구 김미순에게 보내고 싶네.” 할머니 말씀이 끝나자 “네~ 알겠습니다. 감
자와 당근은 소분하여 3곳으로 보내고 냉동식품은 7번 합천 김미순님께 보내겠습니
다. 요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할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지은 농작물들을 가져오기만 하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다. 택배를 보내기 위해 상자를 구하지 않아
도 되고 주소를 하나하나 적어오지 않아도 되고 깜빡하느라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자동 결제가 되니 너무 편안한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로봇을 보며 미소를 띠신다.

이 택배들은 로봇들이 일 처리를 다 하다 보니 거리에 따라 1시간 내외부터 당일 배송
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서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 보내니 받는 이들도 즐거운 세상인
것이다.

미래의 우체국에도 오늘날처럼 방문이 아닌 예약 서비스도 있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보내야 마음이 편하는 할머니들이 많으시다 보니 예약 시스템보다도 방문의 인기
가 최고 인건 바람을 쐬 겸 이야기꽃들을 피우기 위해 직접 오시는 것이다.

모두가 편리해지는 세상이 오지만 10년이 지난 후, 20년이 지난 후 로봇이 있어 편리
해진 시스템이지만 우체국만큼은 할머니들이 농사지으셔서 택배 포장하다 자식 같아
서 맛보라고 건네주기도 하고 자식 안부 주고받는 마음이 오고 가는 사람 냄새나는 언
니들이 오늘날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땀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말 '감사합니다'

조안유



집배원 아저씨다 어? 아니네! 택배 집배원 아저씨인가? 라는 헛갈리는 내 머릿속에 집배원 아저씨의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단축수업으로 빠른 하굣길 그냥 걷기만 해도 땀이 주르르 흘러 난 손부채질하며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가는데 집배원 아저씨는 무거운 짐을 들고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시면서 택배를 나르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고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집 앞에서 편히 받았던 택배가 집배원 아저씨의 땀이 묻어있고 힘겨움이 함께 배달되었다는 것을 아저씨를 보기 전까진 정말 몰랐습니다. 집배원 아저씨를 보고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른 열려 드렸더니 “고마워.” 라는 말에 “아니예요.” 라며 수줍은 듯 아저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난 더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 사이로 넘쳐흐르는 땀방울은 마치 세수하고 닦지 않은 듯한 얼굴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가는 동안에도 나에 눈은 아저씨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었고 아저씨의 땀은 수도꼭지를 덜 잠근 듯 계속해서 땀이 흐르고 있었고 아니 샘솟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저씨와 제가 눈이 마주치자 아저씨 제게 “미안해 땀 냄새 많이 나지?”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괜찮아요.” ‘택배 짐 때문에 닦을 수 없는 아저씨의 땀을 대신 닦아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라며 속으로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먼저 내리는 아저씨의 등을 보는 순간 난 또다시 놀랐습니다. 물놀이를 한 듯 젖어있는 집배원 아저씨의 등이 땀이라는 거에 내가 받은 건 물건이 아닌 아저씨의 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간 나는 엄마에게 하굣길 집배원 아저씨를 만난 이야기를 하였고 엄마는 내게 시원한 우유 한 잔을 건네시며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게 참 많아, 그러니까 너도 혹 집에 있을 때 우편물 받거나 택배 받을 일 생기면 집배원 아저씨께 시원한 음료 수 하나 건네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렴. 그럼 아저씨는 너에게 우편물을 건네시면서 잠깐이나마 땀을 닦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고 너에 감사한 마음도 전달될 거라 생각해.”

그리고 저는 엄마와 집배원 아저씨들이 좀 더 편하게 짐을 나르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엄마는 집배원 아저씨들을 위해 낮 시간 때 만이라도 아파트 동과 최대한 가까운 입구 쪽에 집배원 아저씨들의 전용 주차장을 지정해 놓으면 어떨까? 그럼 짐을 나르실 때 덜 힘드실 거고 좀 더 수월하실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는 나에, 말에 엄마는 곧바로 관리 사무실에 전할 하시더니 엄마의 의견을 입주자 회의를 통해 건의해 보자는 말씀을 들은 후 엄마는 바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집배원 아저씨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내가 주문해 그저 당연하게 받는 물건이 아닌 아저씨들의 땀과 함께 배달되었기에 값진 거란 걸 받는 사람들도 알아주길 바라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이 나에게 전달된다면 우린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을 그분들에게 다시 전달하며 사는 게 정말 멋진 말이고 땀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란 생각을 합니다. 나니까 할 수 있고 우리니까 실천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집배원 아저씨를 보면 인사 잘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전하고 싶은 편지

채준우



우리나라의 우체국은 세계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우체국의 서비스에 감탄을 하게 된다. 어렸을 적 우체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나는 우체국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기로 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천 중앙 우체국에 다녀왔다. 우체국의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궁금한 것은 직원분들께 여쭙보기도 했다. 그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우체국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나는 국제 특급 우편인 EMS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우체국 시스템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EMS는 Express Mail Service의 약칭으로 국제택배 서비스인데 우체국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되는 말 그대로 특급 우편서비스였다. 함께 가신 엄마께서 갑자기 생각났다 하시면서 외삼촌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실 때 EMS를 자주 이용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외삼촌이 계신 일본으로 김이나 김치 같은 반찬거리며 옷 등을 보내셨는데 EMS를 통해 소포를 보내고 하루 이틀이면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셨다. 난 그 말씀을 듣고 20년도 더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EMS가 도입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나라가 아닌 친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도 편지와 소포를 보내니 며칠 안에 잘 배송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역시 우리나라의 우편 시설은 으뜸이네’ 라는 생각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미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아님에도 짧은 시간 내에 우편을 세계로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단함을 느꼈고, 자유롭게 우편과 소포를 보낼 수 있는 나라임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나라가 EMS를 통해 우편물 혹은 택배를 보낼 수 없는 곳이 있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인 바로 북한이다. 우리나라와 거리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마음만 먹으면, 종이비행기에 메시지를 적어 송~ 날리면 북한에 전해질 것 같은 짧은 거리임에도 전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본 것은 임진각 통일 전망대였다. 어릴 때 가보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마음은 한결같다.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보는 것!”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편지를 보내는 것이 자유로워진다면 우리와 같은 한민족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과자나 젤리,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남한과 북한에는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쟁 이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슬피 우는 이산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적어도 70여 년 전에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적잖은 아쉬움과 슬픔이 맴돈다. 이산가족이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봤다. 설상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우체국이 이산가족의 뜻깊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나의 소포와 편지글이 우체국을 통해 봉정만리 하면 좋겠다.”

우체국을 통해서라도 나의 바람이 가능해진다면 언젠가는 우리 한민족 모든 눈에서 가족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우체국에서는 한 국가도 빠짐없이 우편물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우체국이 되면 더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다. 북한 친구들과 마음 편히 편지를 주고받게 되다 보면 우체국의 도움으로 통일까지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 우체국은 누군가의 꿈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희망이 되어주고자 하는 시작점인 것 같다. 대한민국의 우체국! 부탁해! 통일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무지개 우체국

장서원



하늘에 수놓은 구름사이로 네가 보여
보면 볼수록 행복해지는 이 마음
무지개 우체국이라 불러주고 싶어
부치지 못한 편지들이 하늘에 떠있네.

빨간 봉투에 아픈 사연의 편지
주황 봉투에 슬픔을 달래는 편지
노란 봉투에 그리워 하는 편지
초록 봉투에 기다림에 대한 편지.

파란 봉투에 모두가 꿈꾸는 희망을
남색 봉투에 모두가 꿈꾸는 행복을
보라색 봉투에 모두가 꿈꾸는 사랑을
무지개 우체국은 바쁘네 바빠.

부치지 못한 편지들을
가슴 속 깊이 숨겨두지 않고
받는사람 무지개 우체국이라 적어보네
아주 긴 여행을 준비하는 편지라네.

나는 별, 우주의 우체국

정인아



나는 하늘의 별
긴 밤을 건너 빛이 된
어디서도 빛이 돼 닿을
시공간을 뛰어넘어 뻗은 별

나는 별자리의 일부
계절 타며 노니는
열두 달 내내 새로운
무수한 이야기 담은 별자리

나는 우주의 별
해 닮아 달 닮아
매일 빛나면서 함께한
매순간 빛나며 함께할
우리들의 영원한 별나라

나의 이름은 우체국
붉은 빛 체리 색 가진
사랑담아 마음 담아 체리 닮아
모든 이야기 붉게 전해주는
어디쯤 은은하게 언제나 빛나는
우체국. 유일무이한
그런 달이자 한낮의 해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는 우체국 택배

홍지명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시골이다. 그래서 농작물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우리 집에 보내신다. 어떤 때는 고구마가 한가득. 어떤 때는 복숭아가 한가득, 어떤 때는 고추와 무, 배추가 한가득.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택배 상자는 늘 흠이 묻어 있다. 그 흠 속에는 할아버지의 땀과 할머니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나는 차마 그 흠을 털어내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보낸 택배 상자는 사랑이다. 할아버지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할머니와 함께 땀방울로 이루어 냈을 로지 귀한 자식들과 손자들이 먹을 것을 생각하며 이뤄내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터질 것 같이 가득 보낸 상자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것 같아 가끔은 그걸 먹으면서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이제는 그만 보내시라고 해도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인데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먹으라고 보낸 것이라며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다. 분명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밤 끄꿍 앓으시면서 파스를 붙이셨을 것이고 장마철이면 물이 범람해서 농사를 망치실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못 주무셨으리라. 도와드린다고 해도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잘 먹는 게 행복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웃으시는 웃음이 나는 웬지 슬프게 들렸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더운 날 시원한 바람도 쐬지 못하고 또 어떤 날에는 비와의 사투에서 결국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자식과 손주를 생각하시며 이겨 내셨을 것이다.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우체국 택배는 우리 가족들에게 큰 행복을 선물해 준다.

농작물 하나 파손되지 않고 할아버지가 보낸 그대로 먼 이곳까지 잘 배송해 주시는 택배 아저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너무 가득 담아 터질 것 같은 상자도 행여나 터지지 않고 조심조심 아기 다루듯이 현관 앞까지 가져도 주셨을 택배 아저씨의 마음도 이 택배 상자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

우체국 택배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달아 우리 집 현관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우리 집 앞 현관의 택배는 사랑을 가득 담아 놓여져 있다.

우체국 택배는 어떤 이에게는 행복을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와 연결된 사랑의 고리를 달아 끈끈한 정을 어떤 이에게는 설렘을 사랑의 온도를 머금은 채 오늘도 누군가의 현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체국 택배가 전하는 사랑의 온도는 오늘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들의 땀방울과 함께...

우체국의 사계절

이지혜



나에게 우체국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 중 하나는 윤도현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이다. ‘사라질 운명에 놓인 모든 것들이 서로 의지해 지내는 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체국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명곡이다. 어릴 때의 나는 이 노래의 깊은 철학을 이해하진 못해도 가사 속 ‘나’와 비슷한 경험을 줄곧 해왔다. 우체국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동 말이다.

현재 MZ세대라고 불리는 나이대의 나지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다. 따라서 학교가 끝나기 전 어디서 만날지 상의해놓지 않으면 그날은 집 안에 누워 애니메이션이나 보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친구들은 점심시간마다 모여 집결 장소를 선정하곤 했다.

그때 당시 우리 동네의 우체국은 꽤나 복잡한 길을 걸어가야만 나오는 장소였다. 학교 운동장 미끄럼틀 아래가 초등학생 모두의 비밀 장소였던 것처럼, 은밀히 숨어 있는 우체국은 어린 나의 마음을 자극했다. 거기다 ‘파워레인저’의 주인공 ‘레드’와 같은 빨간 색깔의 건물이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아이들에게 우체국을 집결 장소로 적극 추천하곤 했다.

앞서 우체국을 은밀한 장소라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당시 나에게 소통하는 사람이라곤 부모님, 언니, 동생,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우체국은 나에게 새로운 대상을 관찰하는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해 주는 만남의 장이 되어 주기도 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재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우체국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윤도현 밴드는 경험하지 못한, 가을을 제외한 모든 계절의 우체국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봄에는 우체국에서 몇 걸음 걸어가면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벚꽃이 장관이었다. 문 너머 흐리게 보이는 시계를 훑고,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 싶으면 바닥에 떨어진 벚꽃을 주우러 달리곤 했다. 친구들과 마주하면 무관심 속에서 다시 떨어지는 벚꽃이었지만 좋은 향기로 우체국을 쓸어내렸으리라 믿는다.

여름 우체국에선 한 여경이 근무하시곤 했다. 그분은 손님들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무거운 짐들을 씩씩히 옮기시는 분이였다. 괜한 무서움에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동경의 눈빛을 보냈던 내가 기억난다.

가을에는 낙엽들이 많이 내려 한구석에 초록색 빗자루가 누어져 있었다. 차마 멋대로 건들 수가 없어 발로 나뭇잎을 속속 밀어 정리했었다. 말끔한 거리를 타고 사람들이 우체국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뿌듯했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겨울 우체국은 눈이 많이 내렸다. 사람들은 작은 얼음 결정들을 어깨에 쌓은 채 바닥에 깔린 종이에 먹물을 묻히며 걸음을 옮겼다. 빨간 귤가와 찡그린 얼굴의 사람들이 부치는 택배에는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 있을까 직감적으로 궁금해했던, 수면 양말을 양손에 끼고 눈사람을 만들곤 했던 추운 날들이었다.

특히 나는 여름과 겨울의 우체국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겨울의 추운 날씨 때문에, 우체국 직원들의 상냥한 배려 덕분에 나는 시원하기도 따뜻하기도 한 우체국 안에서 친구들을 기다릴 수 있었다.

많이 자란 지금, 나는 친구를 기다리고 위해 혹은 심심함을 풀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우체국을 들를 때면 미묘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비록 동심을 잃었지만 이젠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우체국은 사람들의 소망과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우편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장소인 것이다.

나의 추억 가득한 이 글을 읽고, 윤도현 밴드가 언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체국 앞에서’ 라는 연작 시리즈를 내 주기를 바라면서 엽서 냄새 가득 묻힌 글을 마무리 짓는다.



길 위의 우체부



박지우

내가 가려는 길은 어슴푸레한 새벽녘.
아이의 돌잔치 초대장을 전하는 밝은 새벽.

내가 가는 중인 길은 동이 튼 아침.
기다렸을 택배를 들고 바삐 움직이는 따뜻한 아침.

내가 걷고 있는 길은 해가 짹짹한 낮.
밝은 주택가에 가전제품을 배송하는 뜨거운 낮.

내가 걸던 길은 푸르스름한 저녁.
우편함에 비친 달이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저녁.

내가 지나온 길은 검은 밤.
부고를 전하는 깊은 밤.

내가 걷지 않는 컴컴한 동트기 전.
지나왔던 길은 지우고 다시 가기 위한 짧은 어둠.
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을을 보내드립니다

박시안



커다랗고 빨간 우체통을 보다 보면 가을의 단풍이 떠오른다. 가을의 나무들은 색색이 물들이고 장식하는 단풍잎. 그리고 어릴 때의 기억도 물씬 떠오른다. 어릴 때 나와 같이 놀던 친구가 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유치원이 끝나면 항상 근처 놀이터에서 놀곤 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어린 나이에 굉장히 특별한 친구였다. 그 친구는 한마디로 나와 베스트 프렌드, 베프였다. 그런데 친구의 아빠가 회사의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친구의 가족 모두가 영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게 되었다. 친구가 영국에 가고 나는 심심해졌다. 그때의 나는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영국은 살만한지도 몰랐다. 간간히 엄마가 전해주는 소식으로 친구의 안부를 알았다.

가을의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엄마가 커다란 나무들이 뽀뽀이 깔려있는 영국을 배경으로 환하게 미소를 짓는 친구의 사진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가을인데 단풍잎이 없었다. 형형색색의 단풍잎이 피어야 할 텐데 단풍잎이 없었다. 난 엄마에게 물었다. 그러자 엄마는 영국은 뚜렷한 사계절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도 가을이. 한국에는 벌써 후드러지게 단풍잎이 피어있었다. 이 아름다움을 더 이상 내 친구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쓰러웠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내 친구에게 가을을 보내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은 단풍잎을 편지에 부치자는 것이었다.

곧바로 밖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단풍잎, 은행잎 등 가을에만 볼 수 있는 모든 나뭇잎들을 주워왔다. 나뭇잎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6개의 뾰족한 뿔들을 그대로 가진 단풍잎을 하나 골랐다. 한자 한자 꼭꼭 눌러쓴 편지와 가을을 담은 듯한 빨간 단풍잎을 편지봉투에 넣었다. 해외 발송 편지라서 영어로 주소를 쓰고 우체국에 갔다. 편지 발송은 처음이라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떨어졌다. 우표를 사서 편지에 붙이기만 하면 끝이라 의외로 쉬웠다. 그리고 몇 달 후 답신을 받을 수 있었다. 읽어보니 단풍잎은 아쉽게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바스러져 있었다고 한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 엄마가 의견을 하나 내주었다. 코팅을 해서 보내면 어떠냐는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코팅지를 사서 손수 단풍잎, 은행잎을 코팅했다. 그리고 다음 편지에 코팅한 모든 나뭇잎들을 넣었다. 우리의 계획은 성공이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우리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커가면서 점점 새 친구들을 사귀고 영국에 간 친구에게 관심이 줄어들고 말았다. 그건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국에 왔는지도 잘 모르지만, 요즘 거리엔 흔치 않지만 우연히 우체통을 보게 되면 그때 그 가을의 내음과 단풍의 바스락거림이 느껴지는 것 같다. 우체국에서 친구에게 가을을 보내주기 위해 우표를 붙이던 그 느낌과 편지가 잘 발송될까 하는 두근거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체국에 보내는 편지

사원준



안녕하세요? 우체국 직원분들!

평소 우체국에 대해 제가 생각하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요즘 우체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힘드시죠? 편지를 배달해 주는 일이 우체국 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체국=편지’ 라고 떠올릴 정도로 편지가 우체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빨리빨리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다는 편지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죠. 좀 슬픈 얘기지만, 이대로 가다간 미래엔 우체국이 아예 사라지거나, 몇 군데 남지 않고 통폐합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런데 외부적인 변화나 거창한 계획들은 시간을 들여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 필요한 변화는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때때로 뉴스를 보면, 집배원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일하시다가 쓰러지거나, 심할 경우 과로사까지 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이 일을 어느 정도나 해야 일을 하다 죽는 경우가 생길까?’ 하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듭니다. 우체국의 수요는 분명 줄었는데, 왜 집배원분들은 일이 저렇게 많은 걸까 하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수요가 준 기업은 인원 감축도 이루어지니, 결국 남아 있는 직원 한 사람당 맡아야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어느 정도는 맞나요?

이유가 어찌 됐든, 가끔도 아니고 빈번하게 뉴스에서 저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건 분명 우체국 자체의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재정비하거나, 지금 우체국 내부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선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편지가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힌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체국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기분 상하지 말고 읽어주세요.

날씨가 날이 더워지는 요즘, 부디 건강 유의하시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22. 7. 14

우체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느린 우체국



황인호

2021년 8월 14일 아침 10~11쯤 거제도 바람꽃우체국을 갔다. 그곳 주변에는 주택이 뿐이어서 거제도 와서 아침부터 우체국은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며 툭툭대며 바람꽃우체국을 들어가니 TV에서만 봤던 1980년 대로 간 듯한 분위기의 우체국 내부를 보게 되니 신기하고 멋있었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너무 신기해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만져보며 행복해했던 것 같다. 알고 보니 바람꽃우체국은 편지를 써서 우편통에 넣으면 6개월 뒤에 도착하는 느린 우체국이었다.

그제야 우체국 이름이 왜 바람꽃우체국인지 알았다. 바람을 타고 간다 해서 바람꽃우체국인 것 같다.. 아마도?

나는 많은 편지지 중 마음에 드는 편지지를 고르고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고민을 해봤다.

가족에게 쓸라다가 미래의 나 자신에게 썼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 자신이 보면 추억 회상이 되고 좋을 거 같아서 미래의 나 자신에게 썼다. 20~30분가량을 미래의 나한테 6개월 사이 내 목표, 원하는 학교는 갔는지 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편지를 조금씩 채워 나갔다.

그렇게 편지를 다 쓰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조금 구경하다가 집에 돌아갔다. 그렇게 6개월이 될 즈음 2022년 2월 3일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다. 되게 설레며 편지봉투를 뜯고 내가 6개월 전에 현재 나에게 썼던 글을 보며 ‘아 그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어 이걸 이루었네’ 하며 오글거리면서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인 것 같다. 만약 다시 거제도를 가게 되면 마지막 행선지에는 바람꽃우체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식도 먹어 볼 것이다.

그때(2021년 8월 14일)는 오픈 시간 때 가서 음식 준비가 안 돼있어서 먹지 못했는데 다시 가면 음식도 먹고 힐링 하다가 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때 썼던 편지는 아직도 내 비밀 공간에 보관 중이다.



마음을 전하는 공간

현재연



어린 시절 나에게 우체국이란 애니메이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일하는 곳이었다. 물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우체부 아저씨를 본 적은 없지만 우체국이라는 곳은 왜인지 모르게 따뜻함이 묻어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매년 외할머니께서는 수확하신 농작물을 우리 가족에게 보내주신다. 영성하지만 단단하게 포장되어 온 박스를 열어보면 할머니의 마음이 꺾꺾 담겨 있다. 언젠가 할머니가 택배를 부치는 곳에 같이 따라간 적이 있다. 글을 잘 쓰지 못하시는 할머니가 잘 보내실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분의 도움을 받으신 할머니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택배를 무사히 보내실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한시름 마음이 놓였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셔도 주시지 못하셨는데 우체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할머니의 기쁨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내가 조금 더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나는 펜팔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펜팔을 한참 이어가던 중 나와 친구는 서로 각자의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욕망이 넘쳤고 지금은 당장 갈 수 없으니 아쉬운 대로 과자나 전통 물건 같은 것을 교환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에게 보낼 물건을 장만한 나는 한 가지 걱정이 되었다. 해외로는 한 번도 택배를 보낸 적이 없어서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택배를 보내기로 한 당일 나는 긴장되는 표정으로 우체국에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꼼꼼하게 포장을 마친 뒤 데스크로 향했다. 직원분이 어떤 것을 보내실 거냐고 물어봐서 내가 해외 택배를 보낸다고 하니 내가 써온 접수증을 살펴보셨다.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내가 빠트린 부분과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확인을 한 후 무거워 보이는 도장을 팡 찍으셨다. 그러고는 내게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택배가 어디까지 이동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 주셨다. 처음 시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무사히 친구에게 택배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듯 자주 우체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사이 나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다른 친구들과도 택배를 교환했다. 택배를 받는 입장이 되면 나는 매일매일 나의 택배가 어디쯤 도착했는지 확인하면서 설레었고 우체국 택배차가 우리 집에 도착하면 한걸음에 달려가 택배를 수령했다. 물론 택배를 보낼 때도 나는 설레었다. 친구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면 좋을지 상상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보낼 때는 나의 마음과 함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즐거웠다.

어느 봄날 그날도 나는 택배를 부치고 밖으로 나와서 친구에게 우체국에서 택배를 부쳤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마침 벚꽃잎이 바람에 휘날렸고 택배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과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 애니메이션을 통해 은연중에 우체국에서 느낀 따스움은 우체국이라는 공간이 그저 택배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택배를 준비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온기를 함께 보내는 공간이라는 것과 그 일을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의 손길이 함께여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함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우체국

오수현



얼마 전 아빠 이름으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왔다.

퇴근 후에 아빠가 열어보니 우표였다.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우표”

낱장 짜리가 수십 장과 4*4 16장이 붙어 있는 전지 우표도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표였다.

“아빠 우표를 왜 샀어요? 편지 보낼 때 있어요?”

“아니 당장은 없고,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고 해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구매했지.”

아빠는 어릴 때 우표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법 모았는데, 경제적인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얼마 전 우연히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우편 발행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사 보셨다고 하셨다. 아빠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표를 직접 붙이고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면서 편지지에 직접 편지를 적어 보내는 날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꼭꼭 눌러 담은 종이 편지를 보내고 싶을 때가 생기면 이 우표를 쓰라고 하시며 우표 낱장 한 장을 주셨다.

우표 한 장은 430원이다.

편지에 담아내는 정성스러움과 한 글자 한 글자 온 마음을 담아내는 그 가치에 비교할 수 없다. 우표는 그 무한한 가치를 전달하는 더 큰 가치를 품고 있을 것이기에, 단순한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손 편지는 그 옛날 영화나 소설 속에나 한 번씩 등장하는 아날로그 시대의 소재처럼 되어 버린 듯하다. 그렇다고 편지와 우표, 그리고 우체국이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옛날 영화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해 본다. 사람과 사람의 소식을 전하던 손 편지의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 email이란 전자 편지의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그 바탕은 소통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의 창구였던 우체국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소통과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우체국 또한 연결과 소통이란 본질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너무 늦지 않게 발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우체국은 편지와 등기, 단순한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에서 미래의 우체국은 첨단 I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와 보다 친숙해진다면 손 편지로 만나던 우체국에서 다양한 소비층과 소비자와 기업과 연결하는 새로운 미래형 우체국을 만나 볼 수 있을 않을까 기대해 본다.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미래형 우체국.

430원 우표 한 장의 가치가 무한한 마음을 담아내는 큰 가치로 거듭나는 것처럼 변화된 우체국을 만나고 싶다.

군대에 간 형의 편지

민경준



6월 7일, 내 생일을 5일 남겨둔 날이자 형이 군대에 간 날이다. 형은 훈련소에서 5주 정도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고 말해 주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소 기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연락이나 전화는 잘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형은 소식을 알려 주겠다고 편지를 자주 쓰겠다고 하였다. 우리 가족은 형과 함께 훈련소 가는 당일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낼 때 필요한 우표를 구매했다. 우체국 직원분은 어떤 우표가 빨리 가고 가격은 어떤지 친절하고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다. 형은 가족, 친구 등등 자주 편지를 보낼 것이라며 우표를 많이 구매하였다. 그렇게 형의 소식을 잘 전달해 줄 우표도 구매한 후 형은 배웅의 받으며 훈련소 교육을 받으러 떠났다.

시간이 좀 지나고 형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주는 비가 좀 많이 와서 편지가 젖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우체부분께서 잘 전달해 준 덕분에 편지가 집에 잘 도착했다. 나는 형의 편지를 받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은 형의 편지의 일부분이다.

“동생아, 잘 지내냐 형이다. 생일이었을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하루 보냈기를 바란다. 형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사격했는데 소리가 정말 크다. 50m, 100m, 200m 이렇게 있는데 쓸 때마다 과녁이 튀어나오는 구조다. 형은 18발이나 맞췄다. 수류탄 훈련도 했는데 범위가 15m로 터진다. 잘 못 던지면 정말 위험하다.

군대 와서 힘든 점은 밥 양이 적은 거다. 집 밥이 훨씬 맛있다. 너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 밥투정 부리지 말고 맛있게 먹길 바란다. 군대 가기 전에 사준 선물도 잘 쓰길 바라고 방에 있는 내 물건들도 사용해도 된다. 옷들도 이것저것 입어라. 형 책상에 체크카드 있을 텐데 그것도 써도 된다. 군대에 있으니 돈 쓸 데가 없다. 아무튼 훈련소 수료식 때 보자.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잘 도와드려라. 잘 지내고 건강해라.”

형의 손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형의 편지를 보는데 형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실감이 되었다. 그 와중에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편지에서 느껴져서 참 감동이었다. 전화로도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편지로 소식은 참 다른 느낌이었다. 형이 직접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써 내려갔을 생각을 하니 나도 편지 내용을 참 자세히 보았던 것 같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받은 편지를 잘 보관해 두어 가끔씩 다시 읽어 보시곤 한다. 이과같이 전화나 다른 채팅으로 주고받는 소식과는 달리 손 편지로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남다른 것 같다.

나는 형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어떻게 편지가 집까지 온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국 각지에 우체국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몰랐던 사실이었다. 또 많은 우체부분들께서 도시, 시골, 군대, 장소 상관없이 우편을 전달해 주시는 덕분에 편지를 보내려고 할 때 어디든 쉽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지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고마운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형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집까지 잘 올 수 있게 해주신 우체부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초등 저학년

최서형
이준우
임복
최서원
안윤서
구본아
김연아
강채린
기현우
이소예
김명준
김은우
윤준혁
윤지아
백이한
심이진
전시윤
조은우
이현석
배서진

중·고등부

정수민
박태희
고준
이소민
정은호
이연희
하서윤
전소윤
조아윤
양하은

이준서
김서연
강은서
최위진
박지훈
윤하빈
윤여준
윤여원
백민승
서규빈
지다현
김지윤
강수린
권도윤
정현우
최성은
이교진
금지연
연진현
최고은

초등 고학년

김주하
윤원형
김서하
김유준
박윤영
류원엽
이수민
윤신혜
방예림
노형준



나의 마음을 보내고, 기쁨을 전달 받아요!

최서형



우체국은 우편물을 모으고, 보내기도 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금융 업무를 겸하기도 하는 곳이다. 나에게 우체국은 마음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기쁨을 전달받는 곳이다.

나는 사천에 살고 있지만 친할머니께서는 울산, 외할머니께서는 대구에 살고 계신다. 요즘은 안부를 대부분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부쳐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함을 느낀다. 우리 동네에서는 빨간 우체통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직접 편지를 보내던지, 또는 엄마가 택배를 보낼때면 우체국을 이용을 하신다.

할머니께서 전화오셔서 “우리강아지들 편지 잘 받았데이~ 다음에 할머니집에 오면 맛난 거 사주꾸마!” 하신다.

그리고 할머니 친구분들께도 우리 손주들은 편지 써서 보낸다고 자랑도 하시고 그런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들께 음식이나 물건을 사서 택배로 보낼 때도 우체국을 가신다.

한번 보냈던 곳은 우체국에 등록도 되어 있어선지 또 “할머니 덕에 보내는가 봐요~ 할머니 좋아하시겠어요.” 라고 직원분들이 말씀도 하신다. 엄마 아빠도 결혼 전 우표를 붙인 편지를 자주 써서 보내시곤 했다고 한다.

문자와 전화 통화와는 달리 직접 쓴 편지가 주는 좋은 기분을 느끼고는 편지를 자주 써서 보내곤 하셨다고 했다. 가끔 그 편지들을 꺼내서 읽어 보시며 재미있어하시는 것 보면 나도 이렇게 우표 붙여서 편지를 주고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우체국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들어서면 반갑게 인사도 해 주시고 무거운 택배 상자를 가지고 오면 옮겨주시기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가라고 해 주신다.

아마 우체국에 계시는 분들의 정을 더해져서 인지 우체국에 갈 때마다 편지 받는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기분 좋게 보내게 되니 받는 사람도 편지와 물건을 받으면 너무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우체국을 기쁨을 전달받는 곳이라고 하는 이유는 편지나 물건에 마음을 덧붙여서 보내면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도 기쁨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체국은 내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물건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우체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기도 하고 상이 왔을 때 전달받는 곳이 우편배달부 아저씨이기 때문에 기쁨을 전달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림그리기나 글짓기 한 것들이 상이 오면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가져다 주시니 가끔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면 우편배달부 아저씨를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우체국은 내게 마음을 전달하는 곳이기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다.

오늘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적어 우체국에 다녀와야겠다.

외할머니와 우체국

이준우



“무슨 일이에요?” 외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마친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내가 물었다. “외할머니 댁 앞에 있던 은행이 이제 자동화기기로만 운영된다네. 외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은행 이용하실 때 직원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큰일이네.” 며칠 후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엄마와 나는 외할머니가 계신 부산으로 내려갔다.

코로나 시국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사이, 외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의 은행들은 모두 자동화기기로만 두는 무인점포로 바뀌어 있었다. 외할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눈도 침침하시고 기계 다루는 것도 어려워하셔서 그런 것 같다. 엄마는 생각해 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외할머니 댁 근처 우체국으로 향했다. “갑자기 우체국은 왜요?” 나의 질문에 엄마가 답하기도 전에 금방 도착한 우체국의 문이 열리자, 나는 우리가 우체국에 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체국 은행. 편지나 택배를 보내는 곳으로만 알았던 우체국에 은행이 있었다. 우체국 은행에서는 외할머니께서 기계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예금·보험이라고 적힌 창구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 딸과 손주가 방학하자마자 나 보러 왔네. 우리 손주 잘 생겼지?” 외할머니께서는 새 통장이 만들어지는 동안 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하셨다. 솔직히 많이 부끄럽기는 했지만, 외할머니께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기도 했다.

걱정했던 일이 잘 해결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뵈는 외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 엄마도 눈이 빨개져 있는 걸 보니 나와 같은 마음인가 보다. 집에 잘 도착했다고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좋아하시는 손 편지, 손 카드 부치러 우체국에 자주 갈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외할머니.’



그날이 오면

임봄



땡땡! 편지 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 방문에
증조할머니는 오늘도
버선발로 달려나가요.

울산 사는 큰아들의 편지
샤르르 퍼지는 미소.

서울 사는 작은 아들의 소식
남몰래 터지는 웃음소리.

하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는
그리운 막내딸.

그리고
할머니의 슬픈 한숨.

72년 전 전쟁 때 평양에 두고 온
작디작은 소중한 나의 아기.

눈물 한 방울
기나긴 그리움을 꼭꼭 눌러 담아
할머니는 오늘도 편지를 씹습니다.

우체부 아저씨
먼 훗날 그날이 오면

할머니의 편지,
꼭 전해주세요.

우체국이 좋아

최서원



우체국이 좋아
필요해서 시킨 물건
빠르게 배달해줘서 좋아.

우체국이 좋아
엄마가 차곡차곡 넣은 보험
아플 때 도움 줘서 좋아.

우체국이 좋아
용돈 받을 때마다 모았다가
통장에 예금할 수 있어서 좋아.

우체국이 좋아
멀리 사는 친척에게 보낸 편지
잘 전달해줘서 좋아.

우체부 아저씨의 달콤한 택배

안윤서



딩동!

현관문 앞에는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잘 자란 고구마가 한가득 들어 있었다. 엄마가 상자에 쓰여 있는 주소를 보시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신 선물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대전에 사신다. 대전에서 여러 가지 채소를 키우신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꾸시는 텃밭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고구마인데,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주신 상자 안에 몽땅 들어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렇게 많은 고구마를 캐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싱싱한 고구마를 내게 보내주고 싶으셔서 부지런히 고구마를 캐셨을 거다. 우체부 아저씨가 무거운 고구마 상자를 힘들게 가져다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고구마를 받아보지 못했을 거다. 나는 우체부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우체국은 참 좋은 곳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우체부 아저씨가 가져다주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리운 사람에게 전하는 선물을 바로바로 전달해주는 곳은 우체국이다. 우체국이 없다면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도 힘들 것 같다.

다음에는 우체부 아저씨가 학용품 선물을 가져다주시면 좋겠다. 좋은 학용품 선물로 공부를 하면 공부도 더 잘 되기 때문이다. 나는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집에 자주 오시면 좋겠다.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편지가 주는 감동과 놀라운 세상 우표

구본아



작년 겨울방학에 외할머니댁에 갔을 때의 일이다.

결혼하기 전 엄마 물건이 간직되어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차근차근 정리되어있는 것 중에서 편지 뭉치를 먼저 보고 싶었다. 어버이날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신 때 보냈던 편지인데, 정성이 담긴 듯 보이는 편지지에 쓰인 편지는 요즘 휴대폰 문자를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감동이었다. 한 자 한 자 글씨만 봐도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알 것 같았다. 매년 거르지 않고 편지를 썼다고 할머니께서는 행복한 웃음을 보이셨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라는 비슷한 내용의 편지는 진한 감동을 받았다. 나도 꼭 본받아 기쁨을 드리고 감사함을 표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올해 엄마 생신에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과 함께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편지를 보면서 편지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또 편지 겉봉에 붙은 우표는 편지가 더 값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다.

내가 관심을 보이자 외할머니께서는 “우리 손녀에게 보물을 보여줘야겠구나” 하시며 엄마가 초등학교 때 우표를 모았던 우표첩과 외할아버지께서 45년 동안 모으셨다는 우표를 보여주셨다. 먼저 엄청나게 많은 우표에 와! 입이 딱 벌어졌다.

놀라는 나에게 “처음 우표를 모으실 적에는 우표 발행 날짜에 맞추어 직접 우체국에 가서 사 오셨지, 그러다가 취미우표 통신판매 등록을 해서 우체국에 돈을 예치해 놓으면 우표 발행 날짜에 집배원 아저씨께서 등기우편으로 배달 해 주셨지” 하시며 우표 수집 과정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이 우표에서 놀라운 세상을 보았다. 모아오신 우표 중에서 일부를 보았을 뿐인데도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들’, ‘올림픽경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대통령님들’ 등 역사의 기록을 알게 하는가 하면 ‘국보, 탑, 종, 도자기’ 등 문화재, ‘야생화, 난초, 새’ 같은 것은 동식물 도감을 보는 것 같았다. 발행된 우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설명서도 함께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우표 발행 날짜, 가격, 디자이너, 인쇄한 곳, 발행 수량이 적혀 있어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보여주신 책갈피에 “우표는 지식의 보물창고”, “우표는 역사의 산 교과서” 라고 적혀 있었는데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다.

외할머니께서는 덧붙여 예전 집배원 아저씨 모습도 말씀해 주셨다. 자전거 타고 갈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배달하시던 모습과, “부르릉” 짐칸이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시는 오늘날의 모습을 견주어 보기도 했다. 종종 반듯한 상자로 배달되는 우체국 택배를 받아 보았는데 상자에 있는 마크를 건성으로 보았었다.

그런데 이번 글쓰기를 하면서 우체국 마크가 제비이며, 빠른 소식을 전한다는 상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집배원 아저씨께서 배달해 주실 멋진 우표가 붙은 편지를 받는 설레임과 감동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

김연아



나는 작년부터 아는 언니와 편지 쓰기를 하고 있다. 나는 안동에 언니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번 주고받았던 편지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편지 쓰기를 하니 서로의 안부도 물을 수 있고 내 마음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때마다 편지가 잘 도착하길 바랐고 우편함을 살펴볼 때마다 기대가 됐다. 나에겐 편지 보내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편지를 많이 쓰지 않는 거 같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 되니까 그런 거 같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 요즘엔 편지가 더 늦게 가는 거 같다. 아무래도 편지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 같다.

맨 처음에 우체국에 갔을 때가 생각난다.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갔었다. 우체국에 들어가니 우체국은 빨간색이 많아서 강력한 느낌이었고 우체국의 마크 무늬가 새 모양이어서 새처럼 편지나 택배를 빨리 전달해 줄 거 같았다. 나는 책에서 봤던 예쁜 우표를 기대하고 우표를 사러 갔다. 그런데 그냥 하얀색 우표였다. 나는 속상하고 실망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아서 예쁜 우표들이 사라져가는 거 같다.

그리고 나는 혹시나 우체통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우체통이 사라지면 내가 언니와 편지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우체통을 꼭 지키고 싶다. 그래도 지금까지 편지가 잘 가고 잘 도착하는 걸 보면 우체부 아저씨와 우체국에 너무 고맙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나는 우체통을 사용할 거다. 그게 바로 내가 편지를 계속 쓰는 이유이다. 그리고 예쁜 우표도 다시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럼 언니에게 편지 쓸 때 예쁜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낼 것이다. 미래에도 계속 우체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체국 택배 아저씨께

강채린



아저씨 택배를 먼 곳까지 가져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여름인데 힘드시죠. 저 학원까지 걸어갈 때 너무 덥고 땀이 났거든요. 아저씨
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께 수박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아이스크
림을요.

그리고 저번에 예쁜 구두를 가져다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고 상자 안에서 구두
를 꺼낼 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잘 신고 있어요. 제가 신기에 딱 맞
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아저씨 얼굴이 엄청 멋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아저씨는 정말 최고예요.

이 구두가 작아질 때 또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아이스크림을 들고 아
저씨의 택배를 기다릴게요.

그때 반갑게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도시 속 배달부 제비

기현우



제비야

제비야

옛날엔 박씨를 물고와 사람들에게 기쁨을
최근에는 편지들을 물고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기쁨을 나누고 나누어 사람들의 입꼬리를 올리게 하는구나.

지금 환경에서 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도시에 너가 남기고 간 곳 우.체.국.

불 꺼진 도시 속에서 우린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정말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배달부구나.

우체국의 역사와 집배원

이소예



오늘 선생님과 친구들과 우체국에 갔다 왔다. 우리 친구들이 조르고 졸라서 문 닫기 30분 전에 갔다. 우체국에서는 예금과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우체국에 가보니까 신기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우표와 엽서를 사봤다. 우표는 430원, 엽서는 400원 했다. 우표는 태극무늬가 그려진 것이었다.

그런데 우체국에선 외국까지 배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체국 옆에는 돈을 저금하고 꺼낼 수도 있었다. 또, 택배도 보낼 수 있었다.

택배 상자를 다 포장하고 나면, 종이에 보내는 사람 그리고 주소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을 쓰고 상자에 붙이면 보내진다. 우리 엄마는 옛날에 일본 친구가 있었다는데, 그 사람에게 보내 보고 싶다.

그리고 우체국에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선물과 생일을 축하 꽃다발도 보내준다고 했다. 예전에는 집배원 아저씨가 일일이 걸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지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편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와~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집배원 아저씨들이 힘들지 않게 탈 것을 만들어 주고 싶다.

뜨거운 태양, 강풍, 쏟아지는 비에도 끄떡없는 그런 것 말이다. 만약, 오늘 우체국을 가지 않았더라면 우체국의 역사와 우체국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옛날 어떤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주러 돌아다닌 거리를 총 합하면 대략 지구 8바퀴라고 한다. 또, 하루에 운동장 400바퀴를 45년 동안 돈 거리라고 한다.

아마 내 엄마가 그랬다면 아마 뼈밖에 남았을 것이다. 또 궁금해진 게 있다. 그럼 일제강점기 때에도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가야 했을텐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우체국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지금까지의 수많은 세월 중에서, 대체, 누가, 왜, 어떻게, 언제 만들었을까?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지금부터 우체국의 역사에 대해 다양한 책도 읽어보고 싶다. 어쨌든 너무 재밌었다!

로봇 집배원과 날개 달린 편지

김명준



우리 동네 우체국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 예금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와 나도 기다리는데 어떤 기계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가보니 무인 우편 자동 접수기였다. 화면은 일반우편, 등기우편, 국제우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기계 덕분에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쉽게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우편물을 접수해준다는 것이 참 신기했다. 식당, 카페 등 요새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미래의 우체국을 상상해봤다. 미래에는 발이 달린 로봇 집배원이 있을 것 같다.

우체국에 사람이 많고, 우편물이 많을 때 로봇들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받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상냥한 인사를 건넬 것이다. 그리고 신호음과 함께 가슴에 난 문을 끼익 열어 소포를 전해줄 것이다. 로봇 집배원을 도와 곧 날개 달린 편지도 나올 것 같다.

썩썩. 아침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참새처럼 날개 달린 편지가 알아서 받는 사람의 집으로 날아갈 것이다. 사람들의 머리 위를 편지가 빙빙 도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사람들은 ‘누가 내게 편지를 보냈을까.’ 생각하며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편물을 받아들 것이다. 누구나 빠르게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날개 달린 편지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독수리나 갈매기같이 덩치가 큰 새들이 편지를 물어가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나 바람이 강하게 불 때를 조심해야 한다. 이때를 대비해서 튼튼한 철갑옷을 입은 날개 달린 편지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하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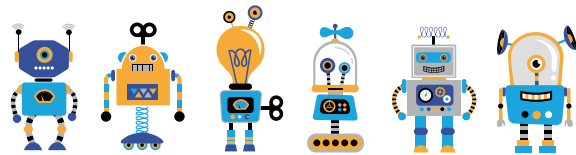
우리 엄마도 멀리 계시는 할머니께 편지나 소포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자주 찾는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맛있는 반찬을 직접 만드시고, 정성 가득한 편지를 직접 보내실 때도 있다.

처음 소포를 보내던 날, 잘못 포장해서 터져버린 김치가 되돌아온 적이 있다. 엄마는 그 소포 앞에서 마치 아이처럼 훌쩍거렸다. 썩 김치 냄새에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엄마는 상자를 꼭 끌어안았다. 꼭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받는 사람에게 닿기도 전에 되돌아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나는 엄마의 그 마음을 알기에 꼭 안아주었다. 그 이후, 엄마는 우체국에서 포장을 꼼꼼하게 하신다.

할머니는 “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보냈냐” 라고 하시면서도, 엄마의 우편물에 감동한다. 엄마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말씀하신다. 엄마와 할머니가 대화할 때면 나 역시 마음이 시큰시큰해진다. 아마도 엄마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고,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문자나 전화로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전달해주는 우체국이 참 좋은 곳 같다.

미래에는 로봇 집배원이 소포의 상태를 알고 자동으로 냉장고, 전기밥솥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 따끈따끈한 호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게끔 말이다. 지금 당장 전하고 싶은 마음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엄마를 따라 우체국에 가는 일이 좋다.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고 행복하다.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열심히 무언가를 적기 때문이다. 마음을 전해주는 우체국이, 우리 곁에 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아빠의 넓고 오래 된 빨간 수첩

김은우



어느 날 엄마가 저녁식사 준비를 하자고 아빠와 저를 부르셔서 저는 서재로 가서 아빠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 다다르자 아빠의 작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아빠에게 들키지 않도록 살며시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책상에 앉아 빨간 수첩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일기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의젓하게 모르는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거의 매일 발견을 하게 되었고 슬슬 빨간 수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참치 김치찌개를 저녁으로 먹은 날 아빠에게 빨간 수첩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빨간 수첩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셨는지 잠시 얼음 땀이셨던 아빠는 그 수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엄마와 저는 하마 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고 네모난 종이 위에 꽃과 식물, 곤충, 동화책, 악보, 위인, 대통령 등의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줄줄이 소시지 마냥 끝없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품을 아빠는 우표라고 말해주셨고 언제 쓰는지, 왜 모으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우표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 실물로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코딱지만한 작은 종이 한 장에 재미난 사연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아빠의 수백 장 코딱지 이야기엔 우리 가족은 욕조 속 물구멍처럼 빠져들어 늦은 밤까지 함께했습니다. 일기장인 줄 알았던 낡은 빨간 수첩은 사실 우표 앨범이었고 그 앨범의 나이는 34살이나 되었습니다.

이 앨범 속 주인공인 우표는 아빠 11살 때부터 함께해 온 믿음직하고, 든든한 비밀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우표가 왜 비밀친구라고 느껴졌냐면 아빠의 가족들은 아무도 우표에 관심이 없어서 우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용돈이 생길 때마다 버스를 타고 수창초등학교 앞에 있는 세계우표사에 가서 마음에 드는 우표를 계속 샀고 아빠 혼자 책상 서랍에 모셔두고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기분이 날아갈 때도, 할아버지께 혼이 나서 억울하고 슬플 때도 빨간 수첩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표에 관심이 없어서 가족과 나누지 못했던 어린 시절 아빠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한여름에 차가운 슬러시를 쭉옥 빨아 먹으면 머리가 멍한 것처럼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요즘 포켓몬 띠부썰을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으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엄마 아빠가 이해해주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면 눈에 혼자 서 있는 허수아비처럼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아빠의 오랜 취미이자 행복인 우표 수집을 함께 즐겨주기로 마음 먹었고 아빠가 기다리시던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사기 위해 온 가족이 인터넷과 우체국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표는 아빠 서랍 속 도둑고양이 같은 비밀친구는 아니지만 지금도 아빠는 우표를 사며 킁킁 바삭바삭 마시멜로 같은 달콤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휴가 때 광주에 있는 세계우표사에 함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과연 사장님은 아빠를 기억하실까요?



내가 상상하는 미래의 우체국

윤준혁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우체국 모습은 기계화되어 우체국 직원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것이다. 영화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나는 머지않아 우체국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로봇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상상 속 우체국에는 드론 집배원이 있다. 드론 집배원은 깊은 산속이나,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처럼 가기 힘든 곳에 우편물을 전달한다.

사랑을 배달하는 사랑봇도 있다.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줄 때 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미래의 우체국에서는 사랑하는 마음도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사랑봇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싶다. 가족을 잃어 슬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위로 해주고 싶다. 이 사랑봇을 잘 활용한다면 온 지구에 평화와 사랑이 넘쳐날 것 같다.

또, 누리호 집배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이름을 따왔다. 우주선의 엄청난 추진력처럼 힘이 센 누리호 집배원은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다. 심지어 건물도 옮길 수 있다.

그리고 거미봇이 있다. 거미봇은 거미처럼 8개의 다리가 있어 동시에 다리가 움직이면 서 지역별로 나라별로 분류해준다.

마지막으로 엄청 빠른 치타봇이다. 이 로봇은 신속하게 배달해 준다. 지구 반대편에도 오늘 저녁이면 받을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날아가야 만날 수 있는 호주에 사는 우리 고모한테도 할머니 김치를 오늘 저녁이면 보낼 수 있다. 이 치타봇은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다.

나의 상상 속 우체국에는 많은 로봇이 있지만 모든 로봇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움직인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움직이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내준다. 나도 기다렸던 게임팩을 받았을 때 엄청 설레었던 기억이 있다. 로봇 집배원은 단순한 편지나 물건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우체국 로봇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들의 친구이다.

따끈따끈한 사랑의 엽서

윤지아



저는 학교에서 엽서 보내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엽서를 쓴 것이었어요. 우체국에서 내가 쓴 엽서를 엄마 아빠한테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엽서가 진짜 도착할 것인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날 이후 아파트를 들어갈 때마다 우체통을 몰래 확인해 보았어요. 깜짝 엽서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비밀로 하려니 더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엽서가 도착할까?’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마음이 설레서 마치 토끼가 된 것 같았어요. 만약 엽서가 집에 도착한다면 강충강충 뛰어서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엽서가 도착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내 마음이 담긴 따뜻한 엽서를 엄마께 전달해주셨어요.

엄마는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엽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엄마는 엽서를 천천히 읽고 함박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딸이 벌써 다 컸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꼭 안아주며 뽀뽀해 주었어요. 그때 내 마음은 화창한 봄날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우체국에 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로 부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한 무지개가 떠오를 거예요.



우체국 2042



백이한

“띠리링 띠리링”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오늘은 2042년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공기는 매우 깨끗합니다. 야외 달리기로 아침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매일 아침 ‘기상벗’의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해요. 기상벗은 우체국에서 제공해 주는 아침을 깨우는 알람 서비스예요.

“오늘 백이한님에게 도착할 서류와 택배는 총 6개입니다.”

저는 로봇 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어서 준비하고 연구실로 출근합니다. 밖을 나서니 오늘 왠지 비가 올 것 같아요. 집에서 우산을 미처 가져 나오지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편한 나라 대한민국’이 비가 올 때쯤을 예측해서 제가 있는 연구소로 우산을 배송해 줄 테니까요. 연구소로 걸어갈까 하다 시계를 보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서둘러 근처를 지나고 있는 무인 집배원 택시 ‘제비s’를 불러 타고 가려고 해요. 다행히 1분 거리에 있는 제비s를 타고 연구소로 출근합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3D 프린터로 로봇 관절 부품이 출력되고 있어요. 한 달 전 일본에 주문해 놓은 부품을 우체국에서 3D 프린터로 전송해 주어 분실 걱정 없이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어요.

오후에는 공기정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될 거예요. 인도 뭄바이의 공기 질 분석을 위해 어제 퇴근 전 급하게 인도 정부에 요청해 두었는데, 다행히 우체국 ‘긴급제트’ 서비스로 곧 도착할 거라고 연락받았어요. 연구 일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우체국의 빠르고 정확한 글로벌 서비스 덕분에 해외 연구자들과 일정을 맞춰 직접 만나지 않아도 연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발 중인 부품들을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시간대에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전 세계의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어 정말 자랑스러운 우체국이에요.

자, 이제 퇴근 시간이에요. 온종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군요. 연구실 밖을 나서는데 ‘편한 나라 대한민국 AI’의 예상대로 역시나 비가 오네요. 배송된 우산을 들고 오늘은 천천히 걸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비 오는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집에 들어오니 정말 반갑고 신나는 편지가 하나 도착해 있네요! 바로 20년 전의 내가 20년 후의 나에게 보냈던 응원의 편지랍니다.

‘2022년 7월 21일, 안녕 난 9살 백이한 이야.’

편지를 읽어보니 9살의 내가 이런 생각으로 편지를 썼다니 신기하면서도 감동이었어요. 20년 전의 내가 29살이 된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마지막 인사를 읽으며 이제 저는 꼭 자려고 해요.

‘매일 매일 9살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편지의 여행



심이진

작년 여름방학에 학교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코로나로 너무 심심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마음을 정성껏 썼다. 집 앞에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엄마는 나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제비 모양이 있는 우체국에 데리고 가셨다. 세 정거장을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신이 났다. 제비 모양이 있는 우체국에 들어가서 편지 봉투에 작은 글씨로 주소를 쓰고 우표까지 사서 붙였다.

드디어 손 꼽아 기다렸던 개학날 선생님을 계속 쳐다봤다. 내 편지를 받으셨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

‘내 편지는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가 무서워서 도망쳤나?’

나는 친구들이랑 노는 사이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잊어 버렸다. 방과후 교실을 가려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이진아! 이리 와봐, 선생님이 편지를 받았어!”

마치 만난 사탕을 주실 것처럼 환한 얼굴로 손짓하셨다.

긴 여행으로 편지 봉투는 꼬깃꼬깃 해졌지만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금세 알았다. 엄마가 불러주신 대로 적은 우리 집과 학교 주소, 같은 우편번호, 그리고 내가 붙인 우표가 보였다.

선생님과 나는 두 손을 맞잡고 크게 웃었다. 내가 쓴 글자도 신이 나서 뽀뽀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나의 좋은 친구, 우체국

전시윤



나는 우체국이 참 좋아요. 어느 동네를 가든 보이는 빨간색 제비 마크가 친구처럼 반겨 줬어요. 할머니가 요즘 은행들은 하나 둘 없어지지만 우체국 만큼은 동네 터줏대감처럼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편하고 고마운 장소라고 말씀하셨어요. 흥부와 놀부 동화에서 제비가 반가운 친구였듯이, 할머니도 나도 빨간색 제비 마크가 있는 우체국을 보면 오래된 친구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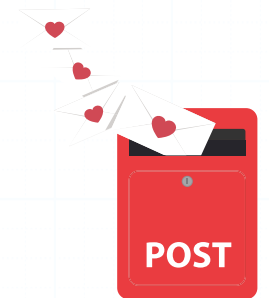
엄마 손을 잡고 우체국을 갈 때면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께 보낼 소포가 제비처럼 휙 날아가 전달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주문하는 택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 앞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체국에서 내가 보내는 택배는 손수 주소를 적고 포장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즐거웠어요. 내가 꼭꼭 눌러 적은 할머니 집 주소와 이름을 우체국 직원이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거예요.” 라는 한 마디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꼭 친구랑 종이접기를 하고 역할놀이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또한 우체국은 내가 받은 용돈들을 차곡차곡 모아주어서 통장과 카드를 들고 우체국에 갈 때면 친한 친구 집을 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우체국은 우리 동네에도 있고, 할머니 집에도 있고, 멀리 시골에도 있어서 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용돈 창고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욱이, 요즘은 은행이 동네에서 하나 둘 사라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우체국은 항상 변함없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친구는 항상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우체국은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아빠가 우체국 쇼핑을 통해 산청 바나나와 나주 배와 같은 맛있는 과일을 주문해 주는데, 아빠 말로는 믿고 주문할 수 있는 산지 과일이어서 더 맛있다고 했어요. 아빠와 함께 우체국 쇼핑 앱을 통해 이번 주에 먹을 제철 음식을 주문하는 시간은 항상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흥부와 놀부 동화에서 제비가 박 씨를 물어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요. 친구랑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정말 신나는데, 우체국은 맛있는 음식을 우리 가족에게 소개해 주고 안전하게 배달해 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나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우체국이 정말 좋아요. 또 미래에도 이런 좋은 친구가 계속 내 옆에 같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체국은 나의 정말 좋은 친구랍니다.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동네 우체국

조은우



내가 우체국장이라면 어느 면에서 보면 냉정하고 조금 까칠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냉정하지만 다정하고 따뜻함을 주는 좋은 우체국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하곤 합니다.

동전을 교환하려고 오는 손님, 중요한 편지, 문서를 부치려고 오시는 손님,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오시는 손님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시는 여러 직원분들은 어떤 손님에게도 어떻게든 친절하고 상냥한 따뜻함이 넘치는 좋은 분들입니다. 이 모든 걸 요즘 같은 시대에 시가 해주면 이런 다정다감한 마음을 못 느낄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우체국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맛있는 것을 보내드릴 때도 제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서 직접 부칩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우체국장님에게도 늘 감사하답니다.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내 꿈을 이룬다면 우체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번 돈을 기부할 것입니다. 우체국 안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늘 바쁘신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합니다. 갈 때마다 항상 웃으시며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기도 하답니다.

시대가 변하고 컴퓨터 이메일, 드론, SNS 등 많지만 우리 동네 우체국은 내 곁에 늘 함께 하고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으로만 해결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우리 동네 우체국을 자주 이용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의 우체국에 오다

이현석



지금은 2040년이다. 나는 드디어 완성된 타임머신을 탈 과학자이다. 이제 미래로 간다.

타임머신 안으로 들어가자 느낌이 이상했다. 갈 곳을 2100년 1월 11일 오전 11시 11분 11초 우체국 앞으로 했다. 타임머신이 웅~ 하는 소리를 내고 멀미가 날 거 같은 기분이 들더니 금세 소리가 멈췄다. 도착한 거 같다. 타임머신 문을 열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건물들, 공원, 기계들도.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우체국이었다.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새로웠다. ‘엽서를 보내볼까? 여기도 타임머신이 개발됐다면 어쩌면 과거로도 보내질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원분에게 엽서를 내밀었다. 몇몇 직원은 로봇이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이걸 과거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저쪽의 컴퓨터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어디인지를 입력하고 물건을 그 앞에 내려놓으시면 물건이 과거로 이동합니다.”

로봇 직원이 어떤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직원이 가리킨 컴퓨터 앞으로 가서 그대로 해보니 엽서가 사라졌다. 이건 과거로 돌아가면 확인해야겠다.

여긴 택배 보낼 물건의 포장은 기계들이 했다. 컨베이어 벨트보다 100배는 빠른듯한 기계가 움직였다. 거의 순간 이동이었다. 그 기계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길로 집집마다 배달된다고 했다. 멋지다.

‘집에서 택배를 받아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71년에는 자신이 생각한 복잡한 생각을 남에 머릿속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우체국에서 어떤 기계에 서서 누구에게 전달할 건지 입력하면 받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이 전달된다고 한다. 정말 놀라웠다.

돌아갈 시간이 되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왔다. 진짜 미래의 우체국에서 내가 보낸 엽서가 와 있었다. 다음번엔 엄마와 타임머신을 같이 타고 미래의 우체국으로 가야겠다. 과학자인 내가 연구한 복잡한 생각을 엄마에게 말로는 설명이 힘들었는데 거기서는 간단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이났다.

고마운 집배원 아저씨

배서진



빨간 가방에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며
편지와 택배를 나르시는
집배원 아저씨.

언제나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시는
집배원 아저씨.

언제나 계절에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총알처럼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시는
집배원 아저씨.

나도 집배원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표

김주하



편지에
붙이는 우표

우표 붙은 편지는
송~하고 전 세계 곳곳으로 날아간다.

알록달록 많은 우표들
꽃 우표에서
향긋한 꽃향기가 솔솔~

옛날 우표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솔솔~

우표를 나란히 놓으니
작은 액자에 넣은 그림 같아
꼭 그림 전시회에 온 것 같다.

우표를 더 모아서
나만의 우표 박물관을
만들어 볼까?

우체국이 필요할까요?

윤원형



우리는 요즘 급변화하는 사회에서 많은 것이 바뀌는 모습과 변화된 모습에 적응해가는 우리를 쉽게 볼 수 있다. 누군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누군가는 발전해나가는 기술로 또 다른 누군가는 더 나빠진 환경으로 질병이 생겨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더 빠른 것, 편리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 가서 익숙하게 자리 잡고, 이런 생활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고 소포를 보내는 것들이 우리의 먼 미래에도 가능할까? 우체국이 남아 있을까? 물론 지금의 우체국이 하는 일이 우편을 보내는 것만이 아닌 보험과 택배 같은 일도 하고 있지만 말이다.

먼 미래에 우리가 편지를 작성하고 서류를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이거나 도장을 찍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상상이 안된다. 그래서 우체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져서 근처 우체국을 방문하였고, 직원분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주변을 살피며 우체국에 대해 배워 보았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소개하자면 편지나 소포 등을 국내 또는 해외로 보내는 업무도 하고,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처럼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우체국 택배는 엄청 잘 되어있어서 택배를 보내고 받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그중에서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지역 특산물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트에서 장 보지 않고 그곳에 가지 않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이렇게 우체국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고 ‘미래의 우체국이 꼭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이 부끄러웠다. 우리 아빠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빠가 어릴 적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기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 편지를 보내며 내 사연이 나오길 기다리기도 했다고 하셨다. 그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다. 요즘 감성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손 편지’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아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무리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더 좋고 빠른 것들이 나와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을 받기도 사랑을 전하기도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기엔 우체통 안에 들어가는 편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다.

“꼭 필요할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 이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빨간 사랑의 감성 우체국’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었다.

고마운 우체국

김서하



나는 얼마 전에 상을 받았다. 우체국에서 보낸 글짓기 작품으로 상을 받은 거다. 만약 우체국이 없었다면 내 글짓기 작품을 대회 하는 곳으로 보내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내게 상을 받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우체국이 좋다. 우체국은 내게 고마운 곳이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친구와 나를 연결해 준 곳이기도 하다. 내 친구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나는 친구가 떠나고 난 뒤, 친구를 보지 못해서 슬프고 불안했다. 프랑스에서 나쁜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가거나, 총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불안했다. 친구가 내 가까이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 버려서 나는 너무 슬펐다.

엄마는 슬퍼하는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셨다.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을 편지에 써서 보내라고 하셨다. 나는 엄마의 말씀대로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을 자세히 편지로 썼다. 그런데 참 신기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친구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다. 게다가 내 친구가 나의 편지를 읽으며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기다리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기쁘고 행복했다.

내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뒤, 친구도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친구가 보낸 편지에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나는 친구가 나를 잊어버렸을까 봐 걱정했는데 친구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편지는 2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우체부 아저씨가 친구의 편지를 전해줄 때마다 우체부 아저씨께 고마웠다. 우체부 아저씨가 나에게 친구의 소식을 꼬박꼬박 전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리던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면 모양이 예쁜 샤프를 살 때처럼 설레고 신났다.

우체국은 나에게 항상 기쁨만 전해주는 산타 할아버지 같다. 그래서 나는 우체국에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 나는 친구들에게도 우체국을 자랑하고 싶다. 우체국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부 아저씨께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이 우체부 아저씨의 희생과 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우체국이 참 좋다.

“우체국! 고마워! 우체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반가운 편지

김유준



나는 학교에서 편지를 썼다.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아이에게 용기를 내라고 쓴 편지였다. 굿네이버스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나는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응원의 편지를 쓰고 용돈을 모아서 후원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하교하는데 우리 집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부모님께 온 편지일 것 같아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보니, 내 이름이 쓰여 있는 편지가 있었다. 누가 내게 편지를 썼을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지 너무 궁금해서 집으로 달려갔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프리카에 사는 여자아이였다. 내가 후원해 준 아이가 내게 고맙다는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 아이는 내게 사진도 보내줬다. 1학년 때부터 후원해 온 아프리카 친구의 답장을 받으니 기분이 참 좋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가기 위해 8시간 동안이나 힘들게 걸어간다고 한다. 힘들게 물을 구해도 마실 수 있는 물은 거의 흙탕물이다. 나는 아이들이 흙탕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다. 그래서 나는 내 용돈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체국이 없다면 내가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보내는 위로의 편지와 돈을 전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참 고맙다. 불쌍한 어린이들을 돕는 내 마음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프리카 어린이가 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전해준다.

우체국은 사람의 마음을 전해주는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는 절대로 전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온 반가운 편지를 전해 준 우체국이 참 좋다.



어느 날 우연히

박윤영



어느 날 우연히 신발을 신다가 신발장 위에 놓인 엽서 한 장을 발견했다. 말해주지 않으면 몰랐을 것이고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모를 위치였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그 종이 한 장에 오묘한 매력을 느꼈다. 다른 사람이라면 지나쳤겠지만 나의 시선은 자꾸 그 엽서로 향했다. 무한한 궁금증으로 엽서에 손을 뻗어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딱히 아기자기한 것도 아니었고 색깔이 튀는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궁금증을 느낀 이유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이다. 어떤 엽서일까? 추리해 보고자 열른 읽어보았다.

그 순간 나는 굉장히 당황했다. 그것은 1년 전에 내가 쓴 글이었다. 믿지 못하겠다. 글씨체도 다르고 내용도 어린아이가 쓴 거 같았다. 나는 글씨도 반듯하고 글도 잘 쓰는 편이라 선생님께 항상 칭찬을 듣는 학생이란 말이다. 내가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이름 석 자가 쓰여있다는 것뿐이었다. 눈을 씻고 여러 각도로 노력보아도 또박또박 힘주어 쓴 글자는 내 이름이었다. 이럴 수가 기억력 좋다고 자부심을 가진 나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보았다. 그래, 1년 전 창원 콰이 강의 다리였던가? 아무튼 창원에 가족과 놀러 갔었다. 거기서 느리게 가는 우편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에게 엽서를 썼던 기억이 난다. 엽서에 쓰인 내용을 보면 1년 전 나는 사랑한다. 힘내라. 같은 간지러운 말을 잘도 썼다. 지금 다시 쓴다면 그렇게는 안 쓸 것이다.

그 편지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다. 1년 후 나에게 잘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또 비밀스러운 작은 소망들과 함께 말이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무슨 소망과 따뜻한 말들을 썼을지 짐작해 보기도 했었다. 그렇게 느리게 가는 우편함에 엽서를 넣고 설레었다. 언제 편지가 올지 날짜 계산을 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두근거렸다. 하지만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조금 아니 많이 긴 듯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며 머릿속에 중심을 잡고 있던 엽서에 대한 생각은 꿈쩍 않던 바위가 강풍과 폭우로 인해 천천히 들썩거리다 마침내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진 것과 같이 조금씩 경로를 이탈해 가다가 마침내 코로 눈으로 입으로 새어나가 머릿속에서 증발해 버리고 더 이상 엽서에 관련된 어떤 것을 보아도 예전과 다르게 별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동안 엽서는 1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우체국에서 집배원 아저씨께 다시 우리 집 현관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내 손에 들어왔다. 천천히 느껴지던 시간도 어느새 1년이 되어버렸다.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내 추억의 한 조각이 편지에 소중한 담긴 듯했다.

1년, 길고도 짧은 이 단어 속에서 수많은 곳을 거치며 많이 기다렸을 엽서에게 많이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어 기뻐다. 앞으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추억을 만들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른다.

“맞다. 학원 갈 시간이었지!”

힘찬 손짓으로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더 큰 세상으로 뛰어나는 나의 발걸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쾌하고 가벼웠다.

우체국은 마음 정류소!

류원엽



“오늘 너한테 편지가 왔네. 책상 위에 올려 두었단다.”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정말요? 누구한테서 왔어요?” 나는 궁금해서 가방도 벗지 않고 여쭙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편지 보낼 사람이 없는데..’ 라며 나는 빨리 내방으로 들어가서 확인했다. 왓! 나는 편지를 보자마자 두 번이나 깜짝 놀랐다. 첫 번째는 작년에 보낸 편지가 올해 도착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민성이가 나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이다.

민성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내가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다. 민성이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자주 여행이나 캠핑을 갔는데 작년 봄에는 경북 예천에 있는 나의 외갓집에 가서 1박2일을 보내고 왔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마지막으로 삼강주막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그곳에는 빨간색 느린 우체통이 있었다. 편지를 써서 그 우체통에 넣으면 333일 후에 편지에 적힌 주소로 배달이 된다고 했다. 마침 우체통 옆에 엽서와 볼펜이 있어서 민성이와 나는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우체통에 넣었다. 거의 1년 전이라서 그 편지를 깜빡하고 있었는데 올해 5월에 드디어 그 편지가 온 것이었다.

나는 민성이가 써 준 편지를 천천히 읽고 또 읽었다. 민성이가 장난스럽게 쓴 편지였지만 나는 그 편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꼭 참았다.

‘민성이네 집에도 내 편지가 도착했는지? 민성이라도 내 편지를 읽었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민성이에게 문자 메시지로 물어보니까 민성이라도 역시 내 편지를 민성이의 어머니께서 전해주어서 병원에서 읽었다고 했다. 지금 민성이는 많이 아파서 몇 달째 병원에 있다. 오른쪽 눈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삼강주막에서 민성이한테 엽서를 쓸 때 대충 쓰지 말 걸 그랬다. 후회가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때는 민성이를 매일 만날 수가 있었고 못 만나도 전화 통화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기 때문에 쓸 내용도 별로 없었고 편지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우체통에 넣을 때 ‘과연 이 편지가 잘 도착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에게 진지하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해서 대강 쓰고 우체통에 넣었다.

편지에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보다 상대방의 마음이 더 잘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내 마음을 가득 담아서 더 좋은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면 지금 아픈 민성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텐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엽서에 내 마음을 한 글자마다 담아서 민성이에게 쓸 것이다. 나는 우체국이 ‘마음 정류소’ 라고 생각한다. 우체국은 편지나 소포를 전해주면서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두 배로 더 기쁘고 행복해지게 된다.

오늘 나는 민성이에게 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마음 정류소에 갈 것이다. 빨리 나아가서 우리가 곧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너는 항상 자랑스러운 내 최고의 친구라는 것도 꼭 쓸 것이다. 내 마음이 민성이에게 편지로 잘 전해지면 좋겠고 편지를 받은 민성이가 내 뒤통까지 더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수민



비가 어마 무시하게 쏟아지는 날이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계셨고 나와 형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나는 괜히 밖에 나가 우체국 아저씨를 기다리고 싶어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자 우리는 거실로 걸어 나왔다. 밥을 먹는데도 폭우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폭우만 아니었다면 벌써 나가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나는 밥을 다 먹고 참을 수 없이 현관으로 가서 우비와 장화를 챙겨 신었다. 나는 대문을 열고 고인 물웅덩이로 침범 뛰어들었다. 그때 우체국 오토바이가 저 멀리 보였다. 나는 반갑게 우체국 아저씨를 손 흔들며 반겼다. 아저씨도 이런 나를 예측한 듯이 가만히 웃으며 내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저씨도 아신다. 아저씨가 가져다주신 이 봉투가 나에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이렇게 우체국 아저씨를 기다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3년 전, 우리 엄마와 아빠는 갑자기 이혼을 하시고 연락이 끊겨 버렸다. 어떻게 해서 엄마와는 연락이 닿아 편지라도 주고받고 있지만 아빠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엄마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우체국 아저씨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나는 우체국 아저씨만을

기다리며 대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게 되었다. 열어본 봉투에는 항상 기쁜 소식만 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우체국 아저씨가 항상 좋은 소식만 가져주실 순 없으니 그냥 떠넘겨 버리곤 한다.

나는 봉투를 소중히 안고 거실에 앉아 열어보았다. 열어본 봉투에는 간식과 조금의 용돈, 편지 3장이 담겨있었다. 우리는 각각의 이름이 적혀있는 편지를 가지고 읽어본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하고 벅찬 순간이다. 그리고 다 읽은 편지를 소중히 안고 다 른 편지들과 함께 쌓아두었다.

다음날 아침. 난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보낼 편지를 써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한다. 나는 귀찮아도 이 일은 빼먹지 못한다. 편지 보내기를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앞에서 우체국 오토바이가 그냥 지나 가면 아쉬운 것처럼, 엄마는 우리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나는 능숙하게 접수를 하고 편지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다.

몇 년 동안 다니고 있는 이 우체국은 조금은 지겹긴 하지만 나에겐 굉장히 소중한 곳임을 알고 있다. 항상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은 아니지만 이 우체국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소중한 곳이다. 우체국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같이 행복한 삶과 희망은 없었을 것이다. 빨간색 간판이 달린 이곳 우체국은 없어선 안 될 가족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는 항상 알고 있다. 엄마를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빼먹지 않고 우체국 아저씨를 기다릴 것이다.

5월의 소포

윤신혜



유독 푸르던 작년 5월, 우리 가족에게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바로 보스턴에 거주하시는 이모할머니께서 보내신 거였다. 이모할머니는 친척 어른들의 말씀으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다. 그래서 소포를 통해 이모할머니님과 가까워지고 싶었다. 우리들은 친척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소포를 열었다.

소포에는 편지와 각종 영양제, 간식, 옷 등이 있었다.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입을만한 분홍색 원피스였다. 흰색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의 주인은 누가 될지 궁금하여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근황과 선물의 주인에 대해 적혀있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 원피스의 주인을 찾았다. 주인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였다. 당혹스러웠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모할머니께서는 초등학교 조카 손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정확히 몇학년인지 몰라 착오가 생긴 듯했다.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모할머니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인 원피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옷걸이에 걸려진 원피스를 보며 할머니와 가까워질 방법을 생각하던 중 번뜩 떠오른 게 있다. 바로 편지였다. 메신저나 이메일은 할머니께서 타자를 치시기 불편하고 진심의 마음을 전하기 한계가 있지만 편지는 글을 쓰고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면 끝이었다. 곧장 편지지를 사기 위해 문구점으로 향했다.

편지지를 고르는데 신중을 가했다. 이모할머니와 연결될 첫 번째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중 원피스 색깔과 같은 분홍색 편지지를 골랐다. 집에 도착한 후 바로 책상으로 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께서는 주말에 바빠 움직이는 나를 보며 의아해 하셨다. 편지를 쓸 준비는 다했지만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였다. 드디어 처음 문장을 간단한 인사로 시작하였다.

“안녕하세요. 이모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조카손녀 윤신혜입니다. 올해로 12세입니다. 얼마 전 할머니의 소포를 받게 되었어요. 소포 안에는 감사하게도 저를 위한 선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쉬게도 초등학교 저학년이 입을 원피스라서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계기로 이모할머니께 편지를 써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메일이나 메신저는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하기 어려워 손수 편지를 써봅니다. 답장을 기다릴게요. 이모할머니님과 가까워지고픈 조카 손녀 신혜 올림.”

이렇게 편지 작성을 마치고 바로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주말이라서 우체국 휴무이므로 다음날 가서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다음날 오전, 온 거리는 설레는 연두색 뉘새로 가득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체국에 진입하자 우체국 안은 마치 희망을 만들어 배부하는 희망 공장 같았다.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다. 그램을 쟀 후 우표를 사서 편지와 함께 부치면 끝이었다. 편지를 부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답장을 기다리는 기대감과 보스턴까지 잘 도착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얼마 뒤 하늘색 편지 봉투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바로 이모할머니의 편지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신혜야 안녕? 이모할머니야, 우리 손녀가 이렇게 편지를 먼저 써줘서 기분이 참으로 좋구먼~ 벌써 12살이여? 시간이 참 빠르구먼 돌잔치 한다는 게 엇그제 같은데 말이여. 할머니는 여그 보스턴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 엄마 아빠랑 놀러 오면 한번 들려라잉. 한국은 어때?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으니 많이 변했겠네.. 할머니는 6.25전쟁이랑 고난들을 겪으면서 돈을 벌려고 보스턴까지 왔어. 형제들이 눈에 아른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 시대가 그런 걸 누굴 탓할꼬.. 그렇게 보스턴에 정착하게 되었어. 아구 주책맞게 별소리를 했네. 다음 소포 보낼 땐 네 선물을 제일 많이 넣을게 또 편지하자.”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할머니께서 보스턴에 정착하시게 된 이유를 듣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였지만 편지 한 통으로 가까워진 것 같았다. 난 또다시 편지를 썼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마음과 현재 나의 이야기들을 썼다. 부모님께 말 못 한 이야기도 쓰고 어리광도 부려 보았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셨다. 편지를 수차례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와 나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 5월의 소포는 잊고 살았던 인연을 다시 이어 주었다. 5월의 소포를 받은 후 1년이 조금 더 지난 현재 또다시 소포가 도착했다. 소포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탕과 간식이 가득했고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 바로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팔지와 뜨개질 인형이었다.

선물을 받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소포를 받을 수 있고 할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희망 공장 ‘우체국’ 덕분인 것 같다. 우체국에서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할머니와 절대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체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우체국은 영원한 희망 공장이다.

꼭 닦았어

방예림



뭐든지 되는 우체국은
마치 제비를 닦았어.

고객이 전해달라는 물건이
가장 중요한 머리가 되고
물건을 넣어주는
소중한 택배 상자가
중심이 되는 몸통이 되고
택배 상자에 달린
물건 지키미 테이프가
제비 몸통에 꼬리가 달린 듯
택배 상자에 달려 있고
물건과 사람을 만나게 해 주는
징검 다리 역할의 트럭이
제비가 날게 해 주는
날개와 꼭 닦았고
택배 기사님이 제비의 눈이 되어
환하게 앞을 비추고

쌩쌩 달려서
마지막 다리로
택배 기사님이 종종 걸어
물건을 전달해주셔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소중한 존재들이 모여
각자 열심히 제 역할을 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체국과 제비는
꼭 닦았어.

할아버지의 편지

노형준



나는 올해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인 지난 2월 코로나에 걸렸었다. 우리 가족 중 처음으로 걸려 혼자 방에 있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서 먹고 자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계속 심심한 날이 되었다.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몸에 아주 커다란 쇳덩이가 나에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 쇳덩이는 내 몸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와 바늘에도 붙어 있는 것처럼, 느낌으론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시계를 보면 겨우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지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서 하얀 봉투를 주고 가는 것이었다. 나는 보자마자 그것이 편지봉투라는 것을 알았다.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지? 요즘 누가 편지를 쓴단 말인가!!’ 나의 몸은 편지봉투와 자석이 붙은 것처럼 나는 자동으로 봉투 쪽으로 걸어가 집어 들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뜯어보기로 했다. 봉투를 뜯었더니 A4용지 정도의 크기에 글이 써져 있었다. 글씨체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보지 않고 내용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니 내가 빨리 나올 것을 누구보다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다. 나는 평소 할아버지와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는다. 왜냐하면 편지는 손으로 쓰기도 힘들고 또 쓰더라도

상대편을 직접 만나서 전해 주거나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그리고 또 종이에 편지를 쓰면 왠지 종이를 가득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되었다. 편지라는 것을 여태까지 잘 접해보지도 못했지만,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을 보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왜 편지로 보내? 카톡으로 보내면 더 빠르고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왜 편지를 주고받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거기에 적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 편지를 메시지로 받았다면 할아버지의 진심이 편지보다 덜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그 편지를 받은 이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카톡보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내려고 노력한다. 물론 나와 편지는

N극과 N극이 붙어 있는지 여전히 마음만큼 잘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마음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 편지를 보내면 나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되겠지??

오늘은 엄마에게 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써야겠다!!

포스트레인 출발! 땡.땡!!

정수민



나는 가끔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미래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해갈지, 또 미래의 직업들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 있을지.

오늘은 내가 우체국 국장님이 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우체국을 멋지게 이끌 것인지 생각해 본다. 만약에 정말 내가 우체국 최고 대장 국장이 된다면, 나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우체국 기차를 만들 것이다. 우체국 기차는 기차가 통째로 우체국으로 이루어진 기차이다. 내가 우체국 기차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가족은 나쁜 할아버지가 건축 사기를 쳐서 갑자기 집을 모두 잃고,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 착한 군청의 아저씨 아줌마가 황소들만 사는 시골 마을 끝 축사 옆 시골집 쪽방을 구해줬다. 해가 지면 별밖에 밝은 게 없어 캄캄하고, 온 세상에는 청개구리들 울음소리와 누런 소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온다. 버스도 하루에 한 번만 마을을 지난다.

엄마가 우체국에 한 번 가려면 택시를 타고 읍내로 나가야 된다. 택시 아저씨들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우리는 15분 이상 시골길을 걸어가야 한다.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다. 우체국이랑 집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한 번 우체국에 가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우체국까지 데려다줄 자동차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우체국 기차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시골 강촌에 사는 우리 가족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우체국에 쉽게 갈 수가 있다.

우체국 기차는 단순히 우체국에 도착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우체국 기차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카페, 모래 놀이터, 발 사우나가 있다. 우체국 기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포스트 로봇콜에 전화하여 “우체국” 이라고 한 마디만 말하면 된다. 그럼 언제든지 하늘 철도를 따라 우체국 기차가 칙칙뽀뽀 빠르게 집으로 달려온다.

이 우체국 기차는 놀랍게도 24시간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일한다. 언제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낮과 밤에 일하는 우체국 기차의 직원들은 시간을 달리 일한다. 때때로 우체국 기차에서 밤에 일하는 직원들은 잠을 못 자 매우 피곤하다. 그래서 밤에는 피곤한 우체국 직원들을 대신하여 포스트 자동 로봇이 함께 일한다.

우체국 기차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카페, 모래 놀이터, 발 사우나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한 번이라도 보낸 어린이 고객들에게는 50프로 할인 쿠폰을 주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우체국은 집배원 아저씨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점점 편리하고 좋게 되었다. 과거에 우리나라 우체국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언젠가 수업 시간에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우리나라 우체국은 일을 했다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북한과 총과 대포로 싸우는 한국전쟁 때도, 로켓을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 과학시대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 우체국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체국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하고 이어지는 손과 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커서 대한민국 우체국의 대장 국장님이 된다면, 달리는 우체국 기차 다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프로포즈 우체부 시스템도 개발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쓴 사람이 직접 우체부가 되어 러브레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나는 대장 국장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을 말할 수가 없다.
정마지 국장님의 아이디어 창고에는 더 멋진 우리나라 우체국을 위한 보물 계획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우체국 기차가 칙칙폭폭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마라도와 백두산
까지 우리나라 곳곳으로 달려가길 희망한다.

우리나라 우체국 기차, 포스트레인 출발! 뽕.뽕!!



우체국

박태희



띠리링!
문이 열린다.

땡땡땡땡 택배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모박스.

차자작!
번호표를 차라락 뽑는다.

층층마다 아저씨가 멈춘다.
내 숨도 턱턱! 걸린다.

기다리는데 눈이 스스룩~
드디어 내 차례다.

째깍째깍 초조한 학원 시간.
아저씨 얼굴에도 땀방울이 흐른다.

찌지직! 상자에 테이프를 붙인다.
할머니께 상자를 보낸다.

띠리링!
우체국을 나온다.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지?
피식~ 웃음이 나온다.

만능 손 우체국

고준



작년에도 ‘우체국 문화전’에 참가했었어요. 할아버지가 코로나로 돌아가실 뻔하신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입원한 곳이 국군수도병원이라서 유일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우체국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 드리느라 우체국을 다니면서 우체국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일반 회사에서 가지 않는 오지나 시골 마을도 우체국에서 우편이나 택배를 담당하신다는 얘길 듣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도 할아버지 보청기에 사용하는 건전지랑 우리 가족이 쓴 편지들을 우체국 덕분에 보낼 수 있었어요. 우체국이 도와주셔서 할아버지도 기운을 얻고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체국 문화전에 참여했었어요. 수상은 못 했는데, 예쁜 우체통 모양의 저금통을 보내 주셨어요. 동전이 생길 때마다 우체통 저금통에 넣고 있는데, 그 때마다 할아버지도 생각하고 고마운 우체국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인 동전으로 사랑의 열매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우체국에 고마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눈을 고쳐 준 일이예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부터 눈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두꺼운 안경을 쓰거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한쪽 눈에 백내장도 심하고 시신경도 가운데가 끊어져 있다고 했대요. 원래부터 나

뻐던 눈이라서 좋아질 수는 없고 시신경도 살릴 수는 없지만, 백내장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눈도 백내장이 생기면, 오히려 수술로 시력을 맞출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도 들었대요. 엄마가 수술하시면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모두 우체국 보험에서 받았다고 하셨어요. 우체국에서는 편지만 전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보험까지 있어서 우리 엄마 눈을 고쳐 주었다니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다니시다가 우체국 전기자동차가 보일 때마다 강아지처럼 무척 귀엽다고 하세요. 저도 전기 자동차를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집배원 아저씨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지 누리집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어요. 기본적인 우편 업무 외에도 보험과 은행 업무, 그리고 쇼핑 업무도 같이하고 계시어요. 아주 옛날부터 우편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소포 업무를 이용해서 택배 업무도 하신대요. 일반 회사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엄청나게 큰 배송망을 사용해서 배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입원하셨던 병원에 유일하게 우체국에서 배송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지 마을에서는 집배원 아저씨가 약국 약사이시고, 노인분들만 계시는 마을에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는 ‘만능 손’이 시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집배원 아저씨가 할머니께 편지도 읽어 드리고, 필요한 생필품을 장도 봐주시고 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하시는 군인분들이나 경찰관분들, 그리고 소방관분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처럼 저희를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집배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우편배달 전기차를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만 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생각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무김치의 여행

이소민



안녕! 난 경상도식 열무김치야
우리 할머니는 내게 빨간 새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과 정성을 담아
야무지게 포장을 하시더니
날 우체국으로 데려오셨어.

그리고는 나 혼자 보내는 먼 길이 걱정되셨는지
직원에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시고
내 몸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지.
“조심해서 잘 가렴. 도착하면 전화하고잉.”



나는 낯선 환경이 조금 무서웠지만
다른 상자 친구들을 만나
조잘조잘 얘기를 하며 신나는 여행을 시작했지
차를 타고 옮겨지고, 또 다시 차를 타고
낮과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친절한 집배원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어.
부릉부릉 부르릉.. 가자! 너희 집으로 출발!

드디어
나는 할머니 손녀 집에 도착했어.
“야호. 우리 할머니 열무김치다.
할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냐오냐. 많이 먹거라.”

집으로 온 우체국

정은호



우체국이 통째로 집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엔 특별한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체국도 자동차로 만들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마치 이렇게..

“예약하신 우체국이 도착했습니다.”

뽕뽕!! 똑똑한 만능 자동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는 우체국 차가 도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차를 보고는 발에서 일하시던 어르신이 반갑게 달려오십니다.

“오늘 방문 예약 주셨죠?”

우체국 직원분이 웃으며 물어봅니다.

“네. 오늘 부탁드릴게 많아요.”

“네. 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직원분이 대답해 주시면서 차 뒷문을 열고 차로 들어가 준비를 합니다. 집안에서 여러 개의 통장과 고지서들을 잔뜩 들고 나오신 어르신. 익숙한 듯 직원분이 타닥 타닥 키보드를 몇 번 누르시더니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해나가며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르신이 들고 오시는 상자 하나. 직원분이 열린 상자를 받아들며 말합니다.

“지난번 주소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제가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그러고는 다시금 컴퓨터를 타닥 타닥 검색하시더니 차에서 주섬주섬 찾아 한아름 챙깁니다. “이건 어르신 개인 우편물, 이걸 면사무소에서 보내는 우편물, 이걸 보건소에서 어르신께 전달 부탁한 물품이네요. 그리고 혹시 최근에 병원 다녀오신 거 있으면 보험금 청구하게끔 알려주세요.” 다 됐다면,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는 어르신. 주저 말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체국으로 전화하라는 말을 남기고, 한참 동안이나 집에 머물렀던 우체국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 할아버지 집은 서울에서 300km나 떨어진 농촌입니다. 시골집 주변에는 온통 논과 밭뿐이고 심지어 이웃집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뿐입니다.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20분이나 떨어진 읍내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읍내에 나가는 일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체국이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지금도 우체부 아저씨가 물건도 전해주시고, 우편물도 전해 주시러 오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체부 아저씨들이 해주시던 일하다가, 우체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예를 들면 우체국 금융 일 그리고 면사무소나 보건소 등 어르신들이 자주 가야 하는 곳과 연계해서 물품 전달 등의 간단한 서비스를 함께해 준다면 그야말로 움직이는 만능 우체국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분들 모두 우체국의 모든 일을 집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다양하고 가까이 있는 서울과는 다른 시골. 그런 시골이기에 움직이는 만능 우체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움직이는 만능 우체국 차가 생겨 시골 마을 구석구석 누벼보길 기대해 봅니다.

행복배달부

이연희



나에게 우체국이란 행복배달부다. 빨간색 제비가 우체국에 들어가기 전에 날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가득한 직원분들이 계시는 우체국은 나에게 꽃향기 가득한 봄 그 자체이다.

나는 우체국을 많이 이용한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시면 꼭 우체국 적금통장에 저금한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만들어 주신 적금통장에 지금 까지 저금한 돈이 많이 쌓였다. 나중에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 것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도 안마의자처럼 몸을 편하게 해 드리는 선물도 사드릴 것이다.

또, 나는 8살 때 아동센터를 다녔었는데 그곳에서 갖고 싶은 물건을 적어서 우체국 직원분들께 편지로 보내면, 선물을 주신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그때 좋아했던 캐릭터를 갖고 싶다고 적었다. 그리고 편지지에 빈칸 없이 모두 채우며 직원분들께 감사함을 담았다.

며칠 후에 누군가가 아동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우체국 직원분들이었다. 직원분들이 햇살처럼 웃으시며 인사했다. 우리는 직원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분들께서 우리를 차례대로 부르시며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나눠 주시던 직원들의 눈은 마치 강물이 햇빛에 비쳐 반짝거리는 것과 같았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분들이 내 편지가 인상 깊었다고 하셔서 너무 기뻐다. 건네받은 선물은 과일박스처럼 컸는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기분 좋은 선물이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때의 기억은 살짝만 떠올라도 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만큼 행복한 기억이었다.

나는 우체국이 정말 좋다.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우체국이 있었는데, 우체국 공터에서 친구들과 간식도 나눠먹고 뛰어놀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체국 직원분들이 행복을 품에 안고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내 가슴이 설렌다. 사람들의 행복을 배달하는 우체국 직원분들이 존경스럽다. 또한 우체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다. 우체국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가 우체국에서 본 글귀 중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 “국민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한국우정” 국민을 위해 전국 각지로 행복을 배달하는 우체국이 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아름드리나무처럼 느껴진다. 우리들을 포근하게 꼭 끌어안고 있는 듯해서 더욱 울창하게 보인다.

나는 빨간색 우체통만 봐도 설렌다. 그리고 우체국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빨간색 제비야, 고마워!!!”

군대에 간 사촌 오빠에게 편지 보내기

하서윤



얼마 전, 사촌 오빠가 군대에 갔다. 나는 TV에서만 군대를 보았는데, 사촌 오빠가 군대에 들어가다니! 정말 든든했다. 군대를 잘 다녀오라는 말을 오빠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이 말을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을 하다 엄마께서,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부쳐보자. 우표를 편지에 붙여서 우체국에 보내면 오빠가 군대에서도 편지를 받을 수 있어. 오빠가 많이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셨다.
“편지를 우체국에서 보내는 건 처음인데, 오빠가 진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엄마도 예전에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보내봤어. 마음을 종이에 써서 보내면 받는 사람한테 그 마음이 정말 전해지지.”

신이 난 나와 동생은 오빠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오빠가 이 편지를 받으면 좋아하겠지? 가장 예쁜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써야지!’
사촌 오빠가 매일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니 고맙다는 이야기와 멋진 군인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썼다. 그리고 글을 쓰고 남은 곳에는 군복을 입은 사촌 오빠의 모습과 공군 비행기도 그렸다.

지금까지는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생신 때만 직접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우체국에서 우표를 사서 붙이고, 편지도 부쳤다. 편지에 우표를 붙이기 위해서 집 주변에 있는 ‘시흥 배곧동 우체국’에 갔다. 생각보다 우리 집과 가까운 데에 우체국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우표는 우체국 이름과 날짜가 있는 스티커 우표도 있고 직접 풀로 붙이는 무궁화 우표도 있었다. 책에서 보던 우표를 실제로 보니 더 예쁜 것 같았다. 나는 풀로 붙이는 무궁화 우표를 고르고, 동생은 우체국 이름, 날짜가 있는 스티커 우표를 골랐다. 내 무궁화 우표는 정말 마음에 쏙 들었다. 오빠에게 보낼 편지에 우표를 붙이고 나니, 나도 하나 갖고 싶었다. 정성껏 우표를 붙인 편지를 우체국 직원분께 드렸다. 편지를 드리고 우체국을 나왔을 때는 정말 뿌듯했다.

벌써 편지를 보낸 지 며칠이나 지났다.
‘오늘은 내가 정성을 들여 쓴 편지를 오빠가 받았을까?’
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는 사촌 오빠가 내 편지를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가 오빠가 있는 그곳에 무사히 잘 도착하길 바란다.

아빠의 우체국 택배

전소윤



또 여름이 왔다.

나는 여름에 꼭 옥수수를 매일 먹었던 것 같다. 옥수수가 식탁 위에 있으면 여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도 여름에는 늘 옥수수를 먹었던 것 같다. 아빠는 오늘도 박카스를 현관문 앞에 둘 것이다. 다음 주도 그다음 주에도 아빠는 우체국 택배아저씨를 위해서 박카스를 준비해 두실 거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보내주시는 옥수수가 택배로 오기 때문이다.

아주 어릴 적에는 우체국 택배아저씨가 옥수수 파시는 분인 줄 알았다. 택배아저씨가 오시면 아빠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꼭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주시면 택배아저씨는 옥수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크면서 알게 된 건데 다른 택배는 엄마가 받지만 시골에서 보내시는 것은 꼭 아빠가 받으신다. 아빠는 시골에서 올라오는 택배는 항상 정리도 직접 하신다. 호박이나 오디나 산삼 가루 같은 것도 아빠는 비닐에 조금씩 넣어서 냉장고에 넣으시고 다음번 우체국 택배아저씨가 오시는 날 함께 나눠먹었다.

한 번은 아빠께 여쭙봤다.

“아빠는 시골에서 오는 택배가 정말 좋은가 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보내시는 건데 소중한지.”

라고 대답해 주셨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빠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야기도 잘 안 했다. 왔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피곤하면 자라고 하시고 긴 대화는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엄마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대화하느라 바빴다. 그런데 왜 아빠는 시골에서 보내주시는 여름 옥수수, 채소, 과일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걸까?

또 이상한 것은 삶아서 얼린 옥수수를 한꺼번에 보내시면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주일치씩 나눠서 보내셨다. 시골에서 보내시는 택배는 계절별로 다른데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이 더 자주 보내셨다. 그래서 아빠는 우체국 택배아저씨가 오시기 전에 항상 박카스를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집은 4층이고 우체국 택배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오시다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음료수를 준비하시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계절마다 아빠가 좋아하고 잘 먹는 채소나 과일을 보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는 여름에 옥수수가 오지 않았다. 아빠도 택배아저씨를 위해 음료수를 준비하지 않으셨다. 가끔 아빠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우체국 택배차를 보면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슬퍼 보이지 않았는데도 나는 꼭 아빠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만 같아서 슬픈 기분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시골에서 택배가 왔다. 처음 여름 옥수수 택배를 받은 날 아빠는 우셨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빠는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나셔서 우셨던 것 같은데 울먹이며 우체국 노란 큰 박스를 들고 있던 아빠를 보며 나도, 엄마도, 배달해 주시는 우체국 택배아저씨도 당황했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알고 계시는 항상 오시던 아저씨라서 아빠의 어깨를 두들겨주셨다. 시골에서 보내는 택배는 들어 있는 게 많아서 택배아저씨랑 그동안 많이 나눠먹었는데 한동안 우리 집에 택배가 오지 않아서 엄마한테 물어보셨다고 하셨다. 엄마는 시골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주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주셨다고 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시골에서 무거운 상자가 택배로 와서 우체국 아저씨가 더 기뻐했다고 하셨다. 깃털처럼 가벼워서 4층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도 안 무거웠으며 아빠랑 대화하셨다.

나는 어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생각했다.

안 친해 보이던 할아버지와 아빠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체국 택배가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시골 할아버지의 사랑을 우체국 택배아저씨는 언제나 전달해 주셨던 것이고, 아빠는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우체국 택배 아저씨께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아저씨께서도 오랜만에 시골에서 오는 우리 집 택배가 깃털처럼 가벼웠던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식탁 위에 있는 옥수수가 오늘은 더 맛있어 보인다. 여름에는 밥보다 더 많이 먹어서 가끔은 아빠만 먹을 때도 있지만 여름 옥수수가 오지 않았을 때는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 오늘도 무거웠을 열린 옥수수를 깃털처럼 4층까지 배달해 주신 우체국 택배아저씨의 감사함과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옥수수를 맛있게 먹어야겠다.

2350년의 우체국 이야기

조아윤



[2350년 7월 23일 토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해외로 출장 간 아빠 생신이다. 아빠 생신 선물로 나는 신상 패드를 구매할 생각 중이다. 그래서 우체국 앱으로 신상 패드를 구매하고 아빠가 머물고 있는 숙소 주소를 입력했다. 이제 배달 도착 장소만 정하면 되는데 베란다로 보낼지, 현관문 앞으로 보낼지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 아빠! 나야! 잘 지내?”

“그럼! 우리 딸도 잘 지내지?”

“당연하지!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뭐 보낼 게 있다는데 엄마가 베란다로 보낼지 현관문 앞으로 보낼지 아빠한테 물어보래.”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현관문 앞으로 보내달라고 전해주렴.”

“알겠어. 아빠, 지금 그곳은 밤이지? 잘 자~”

“고마워 딸. 사랑해~”

아빠와의 통화를 끊고 다시 우체국 앱을 켜 신상 패드를 주문했다.

[2035년 7월 24일 일요일. 날씨 눈이 옴]

“뉴스입니다. 해외로 물품을 배달하던 한 우체국 드론이 눈이 녹아 엔진에 물이 스며들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아침 뉴스에서 한 앵커가 드론 고장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식탁 위 핸드폰에 한 문자가 왔다. 스마트 워치로 문자를 공중에 띄웠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놀라고 말았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물품을 전달하던 드론이 고장을 내 배송이 연기될 듯합니다. 배송 예정일은 일주일 정도 미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뉴스에 나온 사건이 바로 내 물건 배달사고 사건이었다니!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기로 했다.

꿀 같지 않고 충격이었던 주말이 끝나고 지옥 같은 월요일이 왔다. 3교시 사회 시간에 우체국의 역사를 배웠다. 하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삼백 년 전에는 지금보다 우체국이 많았다고 했다. 게다가 그때는 드론이 아니라 사람이 배달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지금의 드론은 베란다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저 멀리 바다 건너 외국의 주소도 잘 찾아 현관문에 놓고 가곤 하는데, 옛날에 비하면 우체국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저나 우리 아빠 생신 선물은 아직 배송 안 했으려나?

다음날 점심 먹고 있을 때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다.

‘딸, 생일선물 고마워.’

고맙다는 이모티콘까지 보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나 역시 생일 축하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했다. 다행이었다. 무사히 아빠 생신 선물이 전달돼서.

이후 나는 드론 사용에 관한 덧붙임 의견으로 우체국장에게 편지를 썼다. 기계인 드론은 편리하지만, 사람도 함께 일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기계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에서 즐겁게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이야기였긴 했지만, 보다 북적이는 우체국을 보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도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계속되는 우체국의 발전을 꿈꿔본다.



행복을 주는 우체국

양하은



내가 5살 때, 겨울이었다. 엄마가 우체국에 간다고 하셔서 친구에게 주려 했던 편지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았다. 거리가 좀 있어서 걸어갈 때는 다리가 아팠지만 처음으로 우체국에 방문하는 날이라 떨리기도 했다.

우체국에 도착하니 땡땡 땡땡 번호 부르는 소리, 뚜벅뚜벅 사람들의 발소리, 따르릉 따르릉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바쁘게 움직이는 듯했다. 엄마와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우표를 붙이기 위해 엄마와 함께 편지를 구매해 우표를 붙여 보았다. 사람이 많아 간신히 꼭 눌러 붙였다. 엄마는 남은 우표는 다음번에 붙이자며 일이 다 끝나신 뒤 집으로 가져오셨다.

나는 다음번에 남은 우표를 붙일 생각에 집에 오자마자 사촌 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뽀뽀뽀한 글씨로 다 쓰고 나니 팔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나는 당장이라도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싶었지만 엄마께서는 내일 직접 붙여보자며 나를 설득하셨다.

다음날이 되자, 나는 아침 일찍 엄마와 집을 나섰다. 신호등을 건너고, 걷고 또 걸어서 빨간 우체통이 서있는 곳에 도착했다. 소옥 하고 편지를 넣으니, 잘 받아먹는 우체통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 이후에도 친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에 옮겼다. 무엇을 쓸까 고민을 하였고, 편지 부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일주일 후 우리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있었다. 친구에게 온 답장이었다. 나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받은 편지여서 그런지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사촌 언니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내가 읽기 어려운 글자는 엄마께서 읽는 걸 도와주셨다. 편지를 주고받으니 추운 겨울 얼어있던 내 마음이 녹는 느낌이었다.

또 며칠이 지나고 우리 집 창문으로 우체국 아저씨가 보였다. ‘이번엔 드디어 할머니에게 편지가 오는 건가?’ 나는 잔뜩 기대를 품고 1층으로 내려갔고, 도착한 편지는 할머니의 답장이었다.

이렇게 하고픈 말을 종이에 적어 전달받으니,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도 뜻깊게 느껴졌다. 엄마에게 다음번에 우체국에 나오는 우표를 사러 또 가자고 부탁드렸다. 우체국에서는 늘 즐거운 일 가득이다. 5살 때 처음 가본 우체국은 아직도 나에게겐 특별한 놀이터가 되어준다.

우리동네 우체국을 대표하는 고마운 우편집배원



이준서

우체국을 생각하면 난 빨간 우체통이 생각난다.

정열의 색이 사랑과 행복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진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금은 보기 힘든 우체통이지만 생각하면 마음속은 늘 따스해진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이다. 시에 살다가 군으로 군에서도 읍으로 오게 된 부모님은 시골이라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은행 업무와 문화생활이라고 하셨다.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니 은행, 우편, 택배, 보험 업무를 가깝게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우체국뿐이라 지금도 부모님은 우체국을 자주 가신다.

부모님은 필요에 의해 우체국을 방문하시지만 내가 우체국을 만나게 된 건 어릴 때 기분 좋았던 우체통과, 이곳에서 자라면서 자주 만나게 된 우편집배원 아저씨 때문이었다. 만나게 되었다기보다 좋아하게 되었다.

매일 만나도 이름을 불러주며 웃어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살이 강하고 폭염이 있는 날에도 어김없이 웃으며 온 동네를 열심히 도는 아저씨. 우편업무가 엄청 힘드실 텐데 오토바이를 타고 땀을 뺀뺀 흘리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일에 충실하고 기쁘게 일하시는 모습에 난 감동을 받았다. 연세도 있으신데 얼마나 그 일이 좋으시면 저렇게 웃으며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신다.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가 기분 좋게 편지도 받고, 중요한 문서도 받고, 택배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분이다.

최근 들어 아저씨가 보이지 않아 엄마께 여쭙보니 퇴직을 하셨다고 한다. 젊어 보이셨는데 퇴직을 하신 걸 보니 정말 긍정적이고 이 일을 하면서 체력도 쌓으셨던 것 같다. 그런 긍정적이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 우체국이 더 신뢰가 가고 많은 국민들이 우편 서비스를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미래에는 인력보다는 기계의 힘으로 많은 배달 업무가 바뀌겠지만 난 우체부 아저씨를 잊진 못할 것 같다.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든 그분을 본받아 맡은 일을 즐겁게 따듯하게 책임감 있게 하고 싶다.

내게 우체국은 편지와 택배만 전달했던 곳이 아니고 마음도 전달했던 따듯한 곳이다. 오지에서 가지고 싶은 걸 주문하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배달이란 단순히 물건의 배달만은 아니다. 한국은 초고속 배달의 나라라 한다. 해외에서 주문을 해도 배달이 빨리 오기만 기다렸던 거 같은데 이 글을 쓰며 물건이 배달되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수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초인종을 눌렀던 아저씨께 시원한 물 한잔 못 드렸던 것이 지금 너무나 죄송하고 아쉽다.

못 만날지 알았으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라도 할 걸 그랬다고 엄마와 이야기도 해 보았다. 수십 년 일하며 허리도 아프셨을 텐데 건강히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며 지내시길 바라며 전할 수 없지만 이 글로 저희 가족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체국 그리고 집배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우체국 속 486

김서연



내겐 오랜 습관이 있다. 나갈 때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 이젠 더 이상 올 회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돌아보게 됐다. 막연한 기다림에 대한 결과였다.

MZ세대라 일컫는 나이지만, 내겐 과거를 좇는 성향이 있다. 집에 비치된 시디플레이어나 방 한 칸에 쌓여 있는 빈 이어폰 박스, 외우고 다니는 뽀빠나 중국어 숫자 암호, 연필 깎이와 2B 연필, 원고지를 닳은 편지지 몇 장이 이 성향을 담은 물건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케케묵은 취향이라 놀리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사랑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가. 아니면 의미 없는 가벼운 내용이었던가. 몇 해나 지난 지금은 그 편지의 요지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편지를 건네기 전에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게 가히 충격적이었던 탓이려나. 직접 건네려고 했던 편지는 주인을 잃었다. 주인을 잃은 편지는 짠 맛이 가미됐다. 첫사랑이 짊었다.

편지에게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다. 완곡한 거절에 오점을 남기고 싶었던 어린 마음이었다. 꽃이면 즉시 실행하는 편이라 바로 편지 봉투 뒷면에 개의 주소를 적었다. 가방에 편지를 넣고 장우산을 챙겼다. 아직 장마였으니까.

밖은 어제까지 창문을 뚫을 기세로 쏟아지던 빗발은 죄다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맑았다. 길거리에 등성등성 남은 물웅덩이가 어제 왔던 폭우를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하늘이 무거운 장우산 따위는 챙길 필요 없다고 말해 주는 것 같았다. 난 다시 집으로 올라가 우산을 두고 나왔다. 왜인지 그래도 될 것 같았다.

우체국은 집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있었다. 7분 정도 걸었던가. 날이 스물스물 흐려 지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신이 내 편지는 평생 주인이 없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뭘 하려고만 하면 세상이 나서서 날 방해하는 것 같다. 모두가 이런 기분으로 살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우체국까지 계속 걸어갔다. 빗물이 옷에 스며들어 온몸이 축축하고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세상이 날 방해한다면 난 그걸 이기고 싶었다. 쓸데없이 짙은 사랑이 만든 오기는 젖었다면 젖은 대로 편지를 보내라 시켰다.

물에 젖은 생쥐 꼬로 우체국에 도착해 가방을 열었더니 신기하게도 편지는 젖지 않았다. 운 좋게도 그날 들고 나왔던 가방이 방수였다. 어쩌면 세상은 날 방해하기엔 미흡한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게 세상의 미약한 배려였을까 생각하며 대기 번호표를 뽑았다. 대기 번호 88번. 바이바이. 우체국 번호표가 내 첫사랑에게 대신 인사해 주는 듯했다.

그다음 날부터 편지에 대한 답신이 왔을까 봐 나갈 때마다 우편함을 확인했다. 그렇게 빨리 올 리가 없음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우편함에 들어 있던 건 청구서나 광고 전단지였다. 답신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우편함을 확인하는 건 습관이 되어 굳어졌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답신이 와 있었다. 보내는 이 옆에 내가 사랑했던 그 이름이 적힌 답신이. 아마 우체국에서 뽑았던 88번은 첫사랑이 아닌 내 지질했던 과거에 대한 인사 아니었을까. 우편으로 부친 내 유치하고 케케묵은 감정은 다행히도 버려지지 않았다. 반려되어 새로운 공모지를 찾고 있을 뿐. 이게 바로 내 우체국 속 486. 그리고 첫사랑에게 88.

우체국과 '나'의 인연 그리고, 추억

강은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며, 소포를 보내며 가슴 설레게 하는 우체국!
내가 처음 우체국을 방문한 것은 어린이집을 다녔던 6살이었던 것 같다. 어버이날 기념으로 부모님께 삐뚤삐뚤 쓴 편지를 보내기 위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우체국에 갔다. 사실 부모님께 쓴 편지는 선생님께서 한꺼번에 모아 보내셨어도 되는 거였지만 우린 우체국 견학도 할 겸 어린이집과 가까이 있는 우체국을 찾았다.

집 근처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제비가 그려진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 보긴 했지만 우편물을 직접 취급하는 우체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6살 어린아이였던 난 모든 것이 신기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신기함이 우체국과 '나'의 인연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한 쪽에서는 사람들이 우편업무 외의 금융 업무를, 또 다른 쪽에서는 커다란 소포나 우편물이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편 업무가 이뤄지고 있었던 그때의 우체국 모습은 내 눈에는 신기함과 황홀함 그 자체였다.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황홀해? 하겠지만 6살 꼬맹이 아이에게는 우체국에서 우편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이뤄진다는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내가 보낸 편지는 그것으로 배달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편지들이 그곳에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을 따름이었다. 그날 난 우체국 견학을 가서 내가 아빠, 엄마에게 쓴 편지를 보내고 우체국에서 하는 일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우체국에

가서 내 손으로 직접 편지를 보내고 온 그날 난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주는 우체국이 내 마음도 어느 곳이든 전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 나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마냥 즐겁고 좋았다.

그 뒤로 난 틈만 나면 삐뚤삐뚤 편지도 쓰고, 엽서도 써서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듯 엄마에게 우체국에 가자고 졸랐고, 그렇게 우체국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나의 소중한 친구 우체국은 사랑도 소중함도 고민도 조용히 전달해 주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설렘을 안겨준다.

15살이 된 지금도 난 가끔 우체국을 지나게 되면 가슴이 설레고 알 수 없는 소식의 기다림을 느끼곤 한다. 6살이었을 때도 15살이 된 지금도 우체국에서 설레는 감정 기다림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지금의 우체국은 조금은 변한 것 같다. 이제는 길에서 빨간 우체통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사람들 또한 손으로 꼭꼭 눌러쓴 편지나 엽서보다는 전화로 메일로 소식을 전하고, 우체국에 직접 가서 누군가를 위한 소포를 보내기보다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면 어디든 배달이 될 거라는 믿음과 6살 때 처음으로 방문했던 우체국에서 보고 느꼈던 정겨움과 설렘이 식어 갈까 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정겨움과 설렘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될까 봐 조금 슬프기도 하다.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생활도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점점 사라져가는 길거리의 빨간 우체통과 내가 처음 봤던 그 모습이 아닌 요즘 시대에 맞춰 변해가는 우체국의 모습이 조금은 슬프다.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어린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세상은 발전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변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하더라도 나는 빨간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으면서 설렘던 감정, 6살 때 우체국을 처음 방문해서 받았던 정겨움과 신기함의 추억을 그리고, 그리움과 고마움, 즐거움, 행복을 담아 손으로 꼭꼭 눌러쓴 편지와 엽서를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사람에게 전해준 나의 소중한 추억을 우체국이 함께 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빨간 천사

최위진



창문 앞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제일 고맙고 미안한 엄마에게’
라는 말로
시작하는 편지.

특하면 짜증내고
특하면 통명스럽게 말하고
특하면 뒤늦게 미안해하고
특하면 뒤늦게 후회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득 담아
연필도 내 마음도
꼭꼭 눌러 담는데,

바람도 편지를 읽고 싶은지
계속계속 편지지가 나부깁니다.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고이접어
바람을 피해 자리를 옮기고,
집밖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러자
눈에 띄는 빨간 우체통.

‘우리 엄마에게 내 진심을 전해주는
빨간 천사가 되어줘.’

마음속으로 희망하며
내 마음을 우체통에 넣어봅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소리

박지훈



땡땡!
제주도 며느리가 보낸 갈치
함뻑 웃으며 받으러 나가시는
시아머니의 발소리
후다닥

스속 삭
군대간 아들에게서 한달만에 온 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소리
사그락

찌직
우표 수집하는 중학생
첫 데이트 기다리는 남자처럼
새로운 우표가 나오길 고대하는 소리
흐하아

톡 톡
기러기아빠
그리운 가족에게 송금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리
띵

우체국이 전하는 소리
마음의 소리

추억을 배달하는 관광우체국

윤하빈



만약 미래에 여러분이 우체국장이 된다면 어떤 우체국을 만들어 고객님들에게 어떤 감정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조금은 다르지만 편안한 감정을 제공하는 우체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미래에 직업을 찾게 될 때는 적어도 2030년대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5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시기죠. 즉, 인공지능이 많은 일을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고 있겠죠. 그중에 우체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체국은 이제 새로움을 배달해야 합니다. 즉, 추억 관광이라는 분야에 눈을 뜰 때라는 것이죠.

저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 것입니다. 관광을 어렵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래에서는 과거의 우체국이 중요한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걸요. 2030년의 20대, 30대, 40대 등등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님들이 심심할 때,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편지를 쓰고 싶을 때 등등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의 목표는 과거의 우체국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고, 소수 단골손님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우체국은 오직 손님이 느낄 감정과 작지만 세심한 표정의 변화를 중요시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되, 인테리어를 신경 쓰고, 우체국 본관의 색을 초록, 연두 계열의 색으로 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싱그러워서 상쾌함과 산뜻함을 주는 그린 디퓨저를 우체국의 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이 직원이 되어야겠죠. 어떤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이벤트는 시즌마다 한 번씩. 설날에는 다들 바쁘시니깐 직접 쓴 편지를 받고, 편지 봉투를 꾸미고, 선택하신 폰트로 손글씨로 써드리는 이벤트, 한글날에는 직접 예쁜 한글을 예쁜 글씨체로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벤트, 또 가끔은 유명 연예인이 있는 소속사와 콜라보를 진행해서 팬들이 직접 쓴 편지를 받고 답장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또 편지를 주소를 적어 놓으면, 10년 후에 배달하는 이벤트 등등.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완벽한 우체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체국은 이렇게 새로운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추억을 배달하는 우체국이 개설된다면, 여러분들은 오실 건가요? 우체국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도 선사하는 우체국. 24시간 운영, 일자리 많음, 휴일 없는 이 우체국을, 여러분들은 방문하실 건가요? 그리고 방문하셔서 어떤 감정을 느끼실 건가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 다양한 기술의 모음집 ‘미래우체국’

윤여준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우리의 삶은 나아졌지만 우체국은 오히려 위기다. 편지가 보이지 않고 이용객마저 줄어들고 있다. 우체국은 빠른 시대의 변화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 사업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 전국 곳곳에 많은 시설과 사람을 보유한 우체국의 비효율적인 조직의 문제가 약점일 수 있다. 그러나 우체국의 공공성을 살리고 사업적 효율성을 보완한다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미래 우체국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방안은 ‘공익을 중시하는 활동 증가’이다. 모든 사기업은 회사의 이익 추구를 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우체국은 달라야 한다. 하나의 예시적 사업으로 ‘찾아가는 우체국 서비스’를 고민해 보았다. 우체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다는 것이 강점이지만 그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할 수 있다. 도서산간 지역의 노약자를 돌보는 복지사업은 민간에서 하기는 어렵고 공공기관 역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사업의 일부를 우체국이 맡아 운영해 보면 어떨까? 노약자는 각종 혜택과 복지를 편리하게 누리고 우체국은 복지의 대가로 지역의 특산물 택배 판매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공익을 추구하며 발생한 손실을 우체국의 다른 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손실을 줄여 나갈 수도 있다.

두 번째 방안은 ‘AI 기술의 활용’이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행을 따르고 적응하는 것이다. 손 편지를 대신하는 이메일도 광고의 범람으로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사람들이 꼭 읽어 보고 싶은, 읽어야만 하는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편지나 이메일은 무엇이 있을까? 2017년 개봉한 영화 ‘코코’를 가족들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멕시코의 주요 명절인 ‘망자(죽은 자)의 날’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죽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여 ‘죽은 가족과의 소통’이 가능한 영상편지 시스템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 언제든 우체국을 방문해 죽은 가족과 얘기하면 일상생활 속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평소 가족과 소통하는 영상편지를 자주 남기면 그 기록을 근거로 망자가 되어도 가족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개인의 역사박물관 같은 공간을 우체국의 영상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 3번째 방안은 우체국을 정보 중심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즉, 정보를 우체국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는 네이버, 구글과 같은 여러 정보 사이트가 쓰이는 곳이 많다. 그만큼 정보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우체국 자체의 홈페이지 하나가 전부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 예시는 우체국 자체의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 원리로, 사람들이 우체국 사이트에 많이 접속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터넷 사용과 우체국 방문이 동시에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우체국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우체국의 개선 방안 세 가지를 구성해 보았다. 비록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방안들이 실제로 구성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정보화 시대의 우체국

윤여원



현재 우체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때문에 우편 업무가 감소해 위기에 처해있다. 또 새로운 기술과 전통적인 우체국과의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편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사람들이 우체국에 많이 방문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체국 활성화와 우체국을 많은 사람이 방문하도록 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의견은 우체국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계에는 다양한 우체국이 있다. 이중, 특색 있고 유명한 우체국은 그 지역의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체국들은 그 지역의 관광 명소로 꼽힌다. 예를 들면, 스페인 마드리드의 우체국은 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내고 있고, 궁궐로 지어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우체국을 지역 문화에 맞게 건설하면, 관광 명소가 되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면 좋겠다.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전시와 지역의 특산물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 우체국을 우리나라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의견은 첨단 기술을 우체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우편 업무만을 살리기 위해 손 편지를 쓰는 것만을 장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한 편지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영상 편지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 현재는 돌아가신 분, 답장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다. 말 그대로 답을 할 수 없는 대상(환상 속 캐릭터, 돌아가신 분들 등)에게 편지를 써서 우체국으로 보내면, 우체국이 대신 답장을 해주는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산타 할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스템 빅데이터를 이용해 그 대상에 빙의하여 편지를 쓰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평소 우체국을 이용하며 기록된 영상 편지 데이터를 누적해 활용하면 알맞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우체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 우체국으로 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데이터가 쌓여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품질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

세 번째 의견은 고객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취향이 다르듯 원하는 서비스도 다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손편지와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우편 앨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우체국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회원제 이용이나 해외 우체국을 탐방하거나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체국 서비스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방법도 더 많은 우체국 이용자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 각자 원하는 서비스들을 우체국에서 제공해주면, 사람들은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길 것이고 자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과거의 우체국은 우편 업무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미래의 우체국은 첨단 기술의 도입과 복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특별함,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더 고급스러운 기관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마음

백민승



우리 할머니는 저어기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사신다. 원래 우리 가족은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의 직장 문제 때문에 육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내가 7살 때였다. 하지만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추석이나 설날 등의 연휴 기간에는 꼭 할머니집에 들렀다. 할머니는 정말 좋아하셨고, 그날은 우리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많아지는 날이었다.

“아이구 우리 손녀 왔다. 밥 먹었?”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알록달록 맛있는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할머니를 뵈러 간 것은 2020년 겨울 방학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강아지 복실이와 함께 살고 계신다. 할머니는 제주도가 좋으신 것 같다. 조금 적적하실 것 같아 걱정했는데, 복실이랑 동네 산책도 나가시고 이웃들과 얘기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았다. 나도 가끔 할머니집에 오면 도시와는 다른 느낌을 받고 ‘힐링’되는 것 같아 좋았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유행하다 끝나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바이러스는 금방 종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감염자 수는 점점 늘어났다.

몇 명에서 몇십 명으로, 몇백에서 몇천 명으로, 몇만, 몇십만 명으로. 할머니집에 가려면 항공까지 끊어야 하는 데다 하루 이틀만 제주도에 있다 오는 것도 아니어서 혹시나 우리가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걱정이 되어 쉽게 가지 못했다. 할머니는 잘 계신는지, 적적하시는 않으신지, 건강이나 집에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할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퍼지기 시작했던 2020년 12월. 할머니께 메시지가 왔다. “수미노아 너희 지브 주소가 어떡하게되니?”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문자를 보내신 할머니가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충북 00시 00로 000번길 000 101동 101호요!”

나는 주소를 찍어 보내 드렸다.

“알겠다. 고맙다”

별것 아니었지만 할머니한테 연락이 오고, 답장을 보내 드리니 기분이 좋아졌다. 문득 할머니가 집 주소로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몇 주 후,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보니 우리 집의 우편함에 무언가가 꽂혀 있었다. ‘보내는 이’가 우리 할머니 성함으로, ‘받는 이’가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편지가 온 것이다. 안을 열어 보니 편지지에 직접 손으로 쓴 장문의, 할머니의 마음이 들어 있었다. 한 장만 쓰신 것도 아니라 우리 가족 4명에게 모두 각각 1장씩, 그리고 가족 전체에게 전하는 편지도 1장.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쓰셨는지 짐작이 갔다.

“할머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복실이랑 같이 산책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머니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바이러스 안 걸리고 잘 있지? 얼굴을 못 본지 꽤 됐는데. 바이러스 끝나면 보자.”

한 자, 한 자 꺾꺾 정성을 다해 눌러 쓰고, 지운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음이 울컥해졌다. 할머니가 나한테 쓰신 편지에는 작은 사탕이 하나 붙어 있었다. 내가 전에 할머니집에 갔을 때, 좋아했던 그 사탕이다. 그걸 기억해 주시다니, 결국 나에게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한 자 한 자 편지를 쓰고,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우체국에 가서, 하나하나 주소를 치고 편지를 보냈을 그 마음. 할머니한테 이 말을 해 드리고 싶다. 할머니, 그 마음 잘 받았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편지

서규빈



편지를 쓰는 건
아무리 써보아도 어색해서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연필을 들고 멍하니
편지지를 내려다본다.

그러다 뒤늦게
편지지에 연필을 가져다 대면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비어있던 편지지가
검은빛으로 수놓아진다.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마음속 깊이 눌러 둔 진심들이
연필 한 자루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힘들게
세상으로 나온 진심들은
조심스레 다가가
따스하게 마음을 끌어안고는
그리움을 달래주고
웃음을 만들고
행복을 꽃피워낸다.

저는 평양 우체국 국장입니다!

지다현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어 오늘부터 2040년이 되었군요. 여기는 평양 우체국입니다. 지금부터 평양 우체국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택배도 자유롭게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체국도 통일이 조금 앞당겨지는 데 작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서신과 택배가 자유롭게 이동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분단에서 통일까지의 역사를 알려주는 박물관을 설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 역사를 알게 해주었고 박물관과 우체국에서 통일 기념우표와 통일 택배 박스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통일 기념우표에는 남북한 어린이들이 그린 백두산과 한라산의 그림을 넣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체국의 새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체국이 금융, 보험, 택배를 넘어서 여행 분야도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물건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배달하며 배송지 주변 관광지에 여행객을 싣고 내려주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양과 서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개마고원까지 관광지가 더 넓어집니다. 우체국 여행자 보험을 통해 안전

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체국에서는 지역 알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이 됐는데도 우리나라의 지역을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체국에서는 남북한에 각각 9개의 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각 도의 9쌍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의 특산물, 여행 간다면 가볼 만한 곳 등을 소개해준 뒤 그 지역들을 방문하여 분단 때문에 몰랐던 지역들이나 분단이 아니어도 잘 몰랐던 지역들을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 저희 우체국에서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신청을 통해 이산가족이나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을 찾게 된다면 직접 신청자의 집까지 찾은 가족들을 데려다 주고 신청자가 가족들을 위해 작성한 편지와 저희 우체국에서 마련한 친환경 제철 과일 꾸러미들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찾는 가족을 볼 수 없다면 그의 후손들에게라도 편지와 과일 꾸러미를 전달하고 신청자와의 만남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평양 우체국에서는 풍산개나 진돗개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위해 보험도 만들었습니다. 남북한이 공통으로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껏 반려동물 보험이 없어서 불편했을 텐데 이 점을 생각해 특별한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유기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반려동물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동물 유기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보험 상품은 반려동물의 건강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의 환한 미소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체국 여행 상품으로 평양에 놀러 오세요!

이상으로 평양 우체국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체부를 기다리는 이유

김지윤



학교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버릇처럼 아파트 우편함에 시선이 가장 먼저 간다. 각종 고지서와 함께 종종 흥미를 끌만한 우편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지서와 간행물들 속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던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의 주인공인 신타로이는 케냐에 살고 있는 10살의 내 동생이다. 5년 전에 해외 아동 후원을 통해 알게 된 신타로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다. 당시 외동인 나에게 다섯 살의 초콜릿색 피부의 귀여운 신타로이는 내 여동생이 되었다.

그동안 신타로이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지켜봐 왔다. 신타로이가 몇 달만에 성장하는 사진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멀리 아프리카에서 반가운 신타로이의 편지를 우리 집까지 전해 주신 우체부께도 감사했다.

띵동! 할머니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얼마 전 할머니께서 드시는 약이 떨어져 간다고 하시더니 우체부께서 친절하게 문자로 배달 알림 시간을 보내왔다.

바다 건너 해외 직구로 배달되는 할머니 약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기다리는 선물 같다. 할머니는 아이처럼 무릎 관절에 좋은 건강식품과 각종 비타민 등을 배달해 주시는 우체부를 산타처럼 기다리신다.

나도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우체부를 기다린다. 타지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편지와 택배를 보내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 처음 한글을 배워 비뿔비뿔 첫 편지를 써서 드리자 아버지께서 감동받으셨다고 한다.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떨어져 지내느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손수 손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다.

430원의 우푹값과는 비교도 안되는 기쁨을 우체부께 전해 받았다.

얼마 전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기말고사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왔다.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 졸이며 부재중에 성적표를 확인했을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기도 했다. 절친했던 친구가 6개월 전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고 하여 부랴부랴 우체국에서 친구가 취침할 때 사용할 조명등을 택배로 보내며 추억을 하나 만들기도 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 자주 우체국을 이용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체국은 나에게 설렘과 감동, 마음 졸이는 반전을 선물하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빨간 우체통을 보면 괜스레 그 안에 누군가를 위한 기쁜 소식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우체부의 발걸음이 가까워지면 내게 전해질 선물을 기대하게 되기도 한다. 내일은 한 달 만에 받게 된 용돈을 저축하러 우체국에 가야겠다. 꿈과 사랑, 정, 희망이 머무는 우체국에 가는 일은 늘 내 발걸음을 설레게 한다.

380원이 준 추억

강수린



난 평생 우체국을 가본 적이 없다.

당연히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본 적도 없었다.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표를 이용한 편지를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작년 봄에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우표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가기 전 엄마에게 느린 우체통에 대해 설명을 살짝 듣고 갔는데 느린 우체통이란 편지를 써서 그곳에 있는 우체통에 넣게 되면 정확히 1년 뒤 지금 쓴 편지가 우리 집으로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난 이런 게 있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미리 쓴 편지를 가지고 엄마와 우표 박물관으로 향했다.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샀던 우표를 깔끔하게 붙이고 주소를 써서 빨간 우체통에 편지들을 넣었다.

편지들을 넣은 다음에는 우표를 좀 더 구경했는데 옛날 우표부터 최근 우표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은 우표들이 매년 만들어지는지 몰랐다.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졌음에도 무척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석구석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그 편지들이 정말 1년 뒤 나에게 돌아올까?’ 라는 생각을 했다.

1년이 지날 동안 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다.

친구들을 새로 사귀고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느린 우체통에 넣은 편지에 존재는 이미 잊은지 오래였다.

그런데 약 두 달 전 6월 초, 작년에 넣었던 편지가 1년을 살짝 넘겨서 도착했고 난 완전히 잊고 있었던 편지를 우편함에서 발견하고 무척 신기했다.

편지는 총 네 통이었다.

그 당시 난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쓸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엄마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편지를 썼었나 보다. 다음에 또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일이 생긴다면 그때 나도 꼭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쓸 거다. 어쨌든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두 통의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나만의 추억 모음집에 편지를 넣었다.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을 때 그 편지들을 읽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난 위로 받고 싶을 정도로 큰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결국 뜯어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별 내용도 없었고 위로될 만한 내용도 없는 그저 그런 편지였다. 다만 중학생이 된 내가 초등학교생인 나를 바라보는 그런 묘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나서 엄마가 나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았다.

아직 편지를 중간까지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나에게 썼던 편지보다 훨씬 의미 있었고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몽클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건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래서 난 중3이 되면 다시 한번 그곳에 가 볼 생각이다.

엄마, 아빠 그리고 고1이 되어있을 나에게 편지를 쓸 거다.

미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 같다.

우체국의 산타

권도윤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창문 밖에는 화색빛 하늘과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빗물들로 가득하다. 갑작스러운 폭풍우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쳐다본다. 역시나, 아이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오늘은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아이들은 몇 주 전부터 소풍, 소풍 거리며 노래를 불렀고 그 당일이 됐다. 하지만 폭풍우로 아이들은 소풍은커녕 센터에서 영화만 보게 되었다.

시계의 침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다. 시무룩해져있는 아이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노력 중이지만 쉽지가 않다. 이미 다른 선생님들은 지쳐 사무실로 들어간 듯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똑똑똑.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노크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약간의 흥미가 생긴 듯 고개를 돌려 문과 나를 번갈아 보며 나에게 문을 열어보라는 눈빛을 보낸다. ‘지역 아동 센터에 손님이 방문하는 일은 적인데’ 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은 나는 거대한 박스를 들고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 그 사람의 옷에는 우체국의 빨간 마크가 박혀있다. 나는 잠시 뒤에야 ‘소원 우체통’을 기억해 냈다.

우체국 공익 제단에서 담당하는 ‘행복배달 소원 우체통’으로 우리 센터에 소원 우체통이 생겼고, 아이들은 우체통에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적어 넣었다.

그리고 편지를 읽은 우체국에서 당분간에 선물은 보낸다고 했고, 그것이 오늘날인 것이다.

“우체국에서 왔습니다. 소원 우체통이요.” 비에 흠뻑 젖은 그는 젖지 않은 박스와 함께 센터의 안으로 들어온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의 톤을 올린다. 여러분들의 편지 잘 읽었어요!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던 아이들이지만 선물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로 향한다. 그는 거대한 박스를 열고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해 선물을 건네준다. 자동차 장난감, 공주놀이 세트, 만화책 등. 우체국에서는 지극 정성으로 편지를 읽었는지 세세한 것까지 준비를 해왔다. 선물을 다 받고 아이들은 자리에서 폴짝 뛰며 순수한 웃음을 보인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줬는지 거대한 박스를 정리하는 그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산타처럼 보인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떠날 준비를 한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고생을 하는 우체국 담당자들이라니. 안녕히 가세요! 배 모형 장난감을 손에 들고 있는 은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인사를 보낸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인사를 보낸다. 산타 같은 그는 손을 흔들며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 폭풍우를 뚫고 센터를 떠난다.

이제 아이들의 얼굴에는 불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우체국의 산타라. 그는 단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닌 소풍보다도 값어치가 큰 행복을 준 것이다.

마음을 전달하는 법 - 편지

정현우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 마음에는 수많은 마음이 존재한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말로 표현한다. 또 선물이나 인사 등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중 마음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진실함이 묻어나는 것이 편지가 아닐까? 그러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써오지 않았나 싶다. 마음의 풀이 과정이 쓰여있는 것이 바로 편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 마음과 얘기를 나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도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실해진다. 누구에게 쓸지, 어떤 내용을 쓸지,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편지 안에서 집중하게 된다. 보다 솔직해져서 편지를 받는 사람도 쉽게 알고 전달되는 듯하다. 무엇보다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편지가 주는 감동 같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편지는 점차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편하게 편지를 오가기도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같이 짧고도 간단한 표현으로 길들여졌다. 어느덧 긴 얘기를 전달하는 글쓰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자 한자 적어 쓰는 느린 편지글이 소중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손글씨 편지에 더 진심인 것은 그런 정성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는 현장학습 때마다 도시락 위에 편지를 써서 끼어놓으셨다. 그 편지에 주위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했다. 정성 어린 도시락과 사랑이 담긴 편지에 더없이 배부르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때 편지의 감동을 알게 되었다. 편지에 고스란히 엄마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난 요즘 반성문 같은 편지를 엄마에게 전하고 한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상황과 내용들을 밝히고 나의 잘못된 행동과 마음을 반성하며 쓴다. 또 놓치고 있었던 내 맘도 살피면서 진심으로 전달되길 바라며 적는다. 고스란히 마음을 다잡는 과정이 담긴다. 말주변이 없고 표현이 서툰 내가 엄마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편지만큼 좋은 게 없다.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내 맘을 보여 줄 수 있어 편지에 더욱 진심이다.

또 커갈수록 아빠에게 점점할 말도 없고 표현이 서툴러지고 무뚝뚝해진다. 하지만 아빠에게 편지를 쓸 때만큼 한없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고생하시는 아빠에게 감사하고 믿음직한 아들이 되려는 내 마음이 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마음을 나누고 전하고 싶을 때 편지를 써보자.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느리고 천천히 마음을 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말은 한순간에 흘러보낼 수 있지만 글은 오래 남기에 쉽게 성급해지지도 함부로 쓰지도 않는 것 같다. 오롯이 내가 전하는 바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편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한 번쯤 써봐도 좋을 것 같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편지는 누군가에겐 반가운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편지를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고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고 가는 편지 속의 비타민

최성운



우리 부모님은 편지로 인연이 맺어진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지금은 통신 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것이 무척 비효율적으로 여겨질만한 일이겠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80년대 90년대 포까지만 해도 편지를 써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라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 평범한 서울의 고등학생이었던 엄마와 대한민국의 국군이었던 아빠는 펜팔로 처음 서로를 알게 되셨다고 하신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펜팔 문화가 대중적이었다고 하셨다. 우리 엄마 아빠가 편지를 주고받게 된 이야기는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여름날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시절 엄마의 학교에선 매년 연말마다 국군장병 위문편지를 써서 군대로 보내는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리 새로울 것도 없고, 또 열심히 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엄마는 미상의 군인 아저씨에게 사춘기 시절의 고민을 실은 편지를 성심성의껏 써서 보내셨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어떤 학교에서 성의가 없이 쓴 위문편지 한 장이 전국 민의 공분을 산적도 있었다. 아마도 나라를 지키는 고마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학생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편지는 이처럼 쓰는 사람에게도 또 받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성의와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한 장치라 생각을 한다.

엄마가 성의 있게 쓴 그 편지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우리 아빠였다. 엄마가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엄마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다고 한다. 물론 엄마는 학교에서 자신이 군인 아저씨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군사 우편이라는 소인이 찍힌 도장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군인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었다.

우리 아빠는 다른 장병들과는 달리 긴 장문의 성의 있는 편지를 받고서 무척 기분이 좋으셨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한자 한자 성의를 다한 엄마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그 여학생의 정체가 누구일지 너무나 궁금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엄마와 나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큰 오빠가 동생을 대하는 듯한 이야기로 두 분은 서로의 인연을 맺었지만, 점점 상대에게 보내는 편지가 쌓이고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서 사장 자신의 말을 소중히 귀담아듣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드디어 대망의 사진 교환이 편지로 시작되었고 사진을 보자마자 두 분은 서로의 인연이 그냥 잠시 세차게 왔다가 그치는 소나기 같은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아빠는 무사히 군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엄마의 편지 덕분이었다는 말씀을 요즘도 하신다. 훈련을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왔을 때 누군가로 부터 도착한 편지가 있다는 것은 하루의 고된 피로를 모두 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타민이었다고 말씀을 하신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시게 되었고 편지를 나눈 지 몇 년이 지나고서야 두 분은 처음 만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다.

엄마는 요즘 시대의 연애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참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편지를 쓰고 조마조마 기다리고 다시 답장을 편지 지에 꼭꼭 눌러쓰던 그 마음은 여전히 엄마의 가슴속 깊이 남은 추억이 되었다고 말씀 하신다.

그 후,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셨고 언니, 오빠 그리고 막내인 나까지 낳으시게 된 것이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면 항상 입가에 반달이 그려지는 가족이 되었다. 엄마께서는 편지를 쓰면 전화나 딱딱한 메시지로 전할 수 없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요즘도 우리 부모님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가끔씩 편지를 보내시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우표도 붙이지 않은 부모님의 편지를 전달해 드린 기억이 아주 많다. 어쩌면 엄마와 아빠는 편지라는 비타민으로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가슴속에 묻고 편지로서 서로 알게 되는 것.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 SNS 프로필만 보아도 상대방의 간단한 정보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편지를 쓰기도 받기도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편지를 쓰고 주고받을 수 있는 남자친구를 한번 만들고 싶다. 나도 이제 그 비타민을 한번 맛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마음

이교진



아빠 따라 우리 가족
외국에서 살 때
집 앞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레 쳐다보는 창밖
편지를 바라보는 마음

덜컹덜컹 소리 나는 우체국 차안에
가득 차있는 사람들의 마음
편지 속에 묻어있는 고향의 냄새
편지 한 통에 들어있는 추억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은 편지의 내용
고향이 그리울 때면
꺼내는 편지
우체국 아저씨만 보면
들뜨는 기분

나의 연결고리 우체국
항상 기다려졌다.

법원 우체국 속 꿈

금지연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은 법원 안에 있었다. 그다지 큰 법원은 아니었으나 주변 상가에 가득한 변호사 팻말과 양복과 서류 가방을 들고 지나치는 어른들은 나를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진로를 바꾼 후 나는 인생에서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몇몇 백일장은 인터넷 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부쳐야 했다. 나는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우체국을 꽤 자주 찾게 되었다. 나는 대개 하교 후에야 우체국을 들렀다.

처음 들어섰을 때 통과의레인 범죄에 대비해 설치된 보안검색대가 가장 먼저 시야에 들었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나는 그대로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갔다. 우편 하나 부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문제가 될 물건을 지닌 것도 아닌데 괜스레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다른 우체국 갈 시간이 마땅치 않아 결국 보안검색대를 지나갔다. 들어간 후에는 우체국이 어디란 표지판도 없어 낯선 공간을 조금 헤맸다. 법원을 돌아다니자 난 괜히 죄를 저지른 것 같이 제 발이 저렸다. 직진 본능에 몸을 맡기자 그곳에 우체국이 있었다.

법원에 딸린 우체국이라서인지 크기가 꽤 작았다. 아직 법원 안이라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우체국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다. 사람은 한 명 정도밖에 없었으나 직원과 친근하게 말을 섞고 있었다. 직원은 날 보자 얘기를 끊고 옆 창구로 와 접수를 받았다.

마냥 딱딱할 줄 알았으나 여느 사람들처럼 친절한 모습에 경직됐던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았다. 녀석이 좋은지 내게도 웃으며 접수를 받았다. 그렇게 부친 우편은 며칠 후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그 우체국을 몇 번이고 들리게 되었다. 늘 마감 시간에 빠듯하게 맞춰 도착하니 언젠가부터 직원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류 봉투에는 산문 지원 부문이라 적혀 있는 걸 보고 글을 쓰냐 물었다. 직원은 접수하며 내게 이런 건 보내서 뭐 하냐고 물었다. 비꼬는 투는 아니고 정말로 궁금한 모양이었다. 나는 짧게 “그냥, 좋아서요.” 하고 말했다. 직원은 선을 긋는 내 답에 무안하다는 듯이 웃었다.

나는 늘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대개 내 꿈을 들으면 낯서니 신기해하긴 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리란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그걸로 뭐해 먹고 살아, 이런 감상이 전부였다. 그러나 직원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그래도 꿈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거 되게 멋있어 보여요. 나는 못난 어른이라 꿈도 못 이루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나는 직원에게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되물었다. 직원은 글과 비슷하다 답했다. 세상을 기록하는 일, 그러니까 사진이 찍고 싶었다고. 직원의 응원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았다. 나는 그런 순수한 응원이 조금은 필요했던 걸까. 남들이 뭐래도 내가 나아가면 된다 생각했는데, 직원의 말을 듣고 나니 힘이 났다. 나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서로의 꿈을 터놓으며 사이의 벽도 어느 정도 함께 허물어진 듯했다. 이젠 보안검색대를 드나드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때였다. 직원은 이따금 우체국을 찾은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질문을 받아주며 잠시 떠들다 접수를 마치고 가는 식이었다. 우체국을 향하는 걸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오늘도 한결같이 우편을 부치며 떠들던 중 직원이 내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다.

“지연 학생, 꼭 꿈 이뤄요. 내가 언제나 응원할게요. 나중에 책 출판하면 나 꼭 살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별 같은 언질에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왜 낮간지러운 말을 하나며 웃는데 직원은 얼핏 굳은 웃음을 지었다. 제가 좀 오글거렸죠. 나도 꿈을 좇아볼까 싶어서요. 학생 덕에 잊고 지내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편을 받았고, 나는 그렇게 법원을 나왔다.

그 후 한동안 우체국을 가지 않았다. 세상의 성장에 맞춰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늘 프린트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귀찮아했지만 막상 직원을 못 보니 아쉬웠다. 그리고 제출했던 글 중 하나가 상을 받게 되었다. 그 우체국에서 보냈던 백일장이었다. 나는 왠지 그 직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 환히 웃으며 축하해 주는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더는 보안검색대를 드나드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익숙하게 표지판도 없는 우체국으로 찾아갔다.

도착한 법원 속 우체국, 그 안에 내가 알던 직원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직장을 그만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칠 물건 하나 없이 우두커니. 나를 따라 자신의 꿈을 좇겠다던 직원의 얼굴이 선연했다. 그래서 외롭거나 서운하지 않았다. 도심과 자연을 누비며 아름답고 덧없는 한 장면을 기록하는 직원을 떠올렸다. 그 직원이 없는 우체국은 내게 아직 따스함이자 추억으로 남아 있다.

독도 우체국

연진현



저 멀리 동쪽 끝
독도로 가는 마지막 배를 타고
독도에 향하는 배에 올라

친절한 갈매기 배달부 아저씨가
나한테 인사를 건네고
편지 배달일을 하러 가신다.

우체부가 되고 싶었던
어릴 때의 나를 보면서

가끔은 멀리 여행할 수 있는
우체부도 괜찮지 않을까?

우편번호 799-805
울릉우체국장이 새겨진
독도 우체통

우리 땅이라는 걸 증명하듯
거센 파도에도 서 있는 빨간 우체통

여기에 있는 생물들이
우체국 직원인 것 같다.

새들이 편지를 나르고
식물들이 업무를 보는
독도에 있는 나만의 작은 우체국

독도 우체국 앞에 있는 우체통에
들고 온 글월을 한 장 넣어본다.

우표는 사랑을 실어나르고

최고은



열넷, 처음으로 편지에 우표를 붙여보았다. 기숙사 중학교에 입학하며, 부모님과 내 하루를 공유할 수 있는 건 전화와 편지뿐이었다. 그중 시험이 끝난 내 기쁨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진정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건 편지가 유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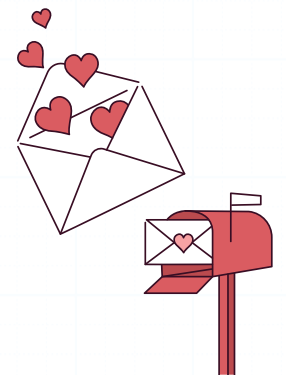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우체국을 통해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른다. 또 우체국을 통해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전해 받았는지 셀 수 없다.

그냥 해본 말처럼 그냥 써본 글이라는 말이 없는 건 그 까닭이다. 글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 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말은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글은 다르다. 다들 하루를 일기장에 기록하고 전하고 싶은 말은 편지에 써 내려간다. 다른 이들과 같이 나도 내 마음을 편지에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갔다.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고자 힘듦보다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슬픔보단 기쁨을 말했다. 소중해서 신중하게 표현한 내 마음에 대한 답장이 올 때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진정 이해할 수 있었다. 종례 시간이 되면 부모님께 편지가 왔을까 내내 기대했다. 기대가 큰 만큼 편지가 오지 않은 날은 실망이 컸지만 편지가 오면 그 편지로 나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전화선으로 전해지는 전화의 따뜻함과 우표로 전해지는 편지의 따뜻함은 결이 다르다. 같은 '널 응원해.' 라는 말도 전화로 전하면 한 번 듣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글로 남긴 말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더 읽어볼 수 있다. 그렇게 나는 글로 3년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열여섯, 소중한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 '추억 상자'에는 편지로 가득 찼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아마 저 편지들을 다 읽는 데 반나절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반나절이 걸릴지라도, 하루 내내 읽어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읽고 싶은 글뿐이다.

우표는 사랑을 실어 나른다. 3년간 우표를 통한 사랑을 진심 어리게 느껴보았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이 되는 건 편지가 유일하다. 지난 시간 동안 그 사랑을 받기만 한 것 같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든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남은 시간에는 보다 더 우표를 통해 부모님에 대한 나의 감사와 사랑을 전해야겠다.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우정공무원교육원